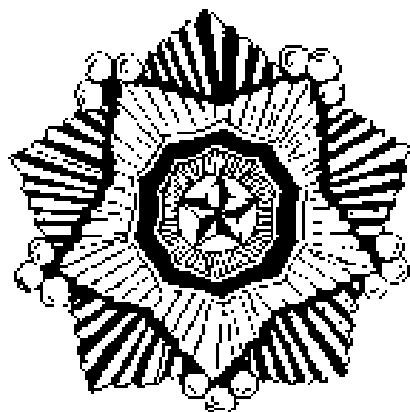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7

주체 93 (2004)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4)년 제7호

(루계 제 681 호)

## ◆◆◆◆◆◆◆◆◆◆ 차 례 ◆◆◆◆◆◆◆◆◆◆

수령님과 우리 .....	4
수령님 세월 .....	8
한편의 수령영생가요에도 .....	9
태양상 미소의 그 빛발 .....	10
내 삶의 년륜이여 .....	10
푸른 버들 .....	11
뜨거운 여름 .....	12
명언해설 .....	19
《로천사무실》 .....	20
재 간 .....	23
전설은 계속된다 .....	24
영원한 사랑의 품 .....	26
전설적위인에 대한 전인민적격찬 .....	27
노을 고운 땅에서 .....	32
구름우의 지휘처 .....	33
《지원》에 대한 생각 .....	34

내 나라, 내 조국과 더불어 영원할 《애국가》 .....	35
절 정 .....	37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	45
선군의 총소리 .....	46
나는야 좋아.....	47
대동강의 아침 .....	48
력사의 새벽길에 울려 퍼진 혁명적시가들에 구현된 민족자주정신 .....	50
돌아오다 .....	52
사진을 찍네 .....	53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53
절세의 위인, 운명의 태양을 우리르며 .....	54
나의 시.....	58
장군님의 그리움속에 .....	59
웃놀이 .....	59
1950-1953 .....	60
나의 인간결산서 .....	62
58 년전 이야기 .....	63
지적소유권 .....	73
산나리 .....	74
양키병졸 존의 고백 .....	74
자단나무 합.....	75
손에서 놓고싶지 않은 《영근 이삭》 .....	80

# 수령님과 우리

리진철

## 1

영생축원의 념원이 가득 차흐르는 7월의 하늘가에 붉게 타는 글발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땅 그 어디에 가봐도 우리의 푸른 하늘을 떠받들며 높이 솟아오른 영생탑.

돌로 쌓은 탑이 아니고 성으로 조아새긴 그런 글이 아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아버지수령님을 더더욱 잊지 못해하는 인민의 그리움이 층층 쌓여 탑을 이룬것이고 천만년 대를 이어 영원히 **김일성** 민족으로 살아갈 인민의 념원이 모이고 모여 획을 이루고 글자를 이룬것이다.

수령님과 우리!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말처럼 친근하다.

수령이라는 위대한 존칭과 우리라는 평범한 부름이 그토록 친근하게 어울리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우리!

아버지수령님의 품에서 그 의미가 새롭게 태어난 말이다.

오늘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레사로운 말 이건만 그 의미는 결코 범상치 않다.

우리를 몰랐던 세월이 있었고 우리를 무시하는 세상이 지금도 있으며 우리의 세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있을진대 그 의미 어찌 범상할수 있으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라는 부름속에 뜻을 같이하고 정과 사랑을 나누는 동지애의 세계로 꾸려주시고 이 땅의 모든것을 우리의것으로 되게 하여주신 아버지수령님!

정녕 아버지수령님 품속에서 하나의 피줄기로 이어진 우리 인민이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흠모의 정에 젖은 우리 조국이다.

우리를 몰랐던 세상에서 우리의 세상으로 되기까지 아버지수령님 얼마나 먼길을 걸어오셨던가.

우리라는 부름이 이 땅의 모든것에 그토록 정당하게 울리기까지 아버지수령님 얼마나 크나큰 심혈

바쳐오셨던가.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조국의 캄캄한 하늘...

그 하늘밑에서 흘러간 세월은 우리가 없는 세월이었다.

등허리가 휘고 두손이 갈구리가 되도록 일쿠고 걸군 땅에 《동척》의 말뚝이 박혀 청청대낮에 제 땅을 떼우고도 하소연할데가 없어 제혼자 묵묵히 울분을 삼켜야 했으니 피땀을 바쳤어도 우리의것이 아니었다.

왜놈들은 땅이나 빼앗고 사람들의 인정만을 갈라놓은것이 아니었다.

칼을 찬 왜놈밑에서 아이들은 엄마라는 우리 말조차 마음대로 할수 없었고 《창씨개명》의 미친 바람앞에 로인들까지 한생을 함께 산 제 이름마저 인생말년에 줄지에 빼앗겨야 했다.

혁명시인 조기천이 서사시 《백두산》에서 이 나라의 집집은 대들보 터지고 기둥이 썩어져도 그 미끈한 만년재목으로는 놈들이 춤추고 노래부를 집을 세우고 놈들이 향락의 향연 베풀었다고 비분에 차웨치듯이 우리의 귀중한 자원과 피땀배인 옥백미는 이 나라 백성들의 원한속에 놈들의 땅에 실려갔다.

땅도 남의 땅이 되고 우리의 말과 글, 이름, 이 땅의 소중한 그 모든것을 다 빼앗긴채 사람들도 너와 나로 갈라져 이국의 산천에 구름처럼 흩어져야 했던 불쌍한 이 나라 백성들...

침략자가 도사리고있는 땅에 어떻게 우리의것이 존재할수 있으랴.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가슴아프게 체험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가슴속에 불같은 맹세가 타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조국을 한시바빠 되찾고 그 모든것을 영원히 우리의것, 조선의것으로 만들고싶은 념원이 불길처럼 나의 가슴속에 라번지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아버지수령님이시기에 돈냥이나 있는 집자식들이 다른 나라에 가야 개명도 하고 학문도 닦을 수 있다고 보따리를 싸들고 조국을 떠날 때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을 위해 배우실 큰 뜻을 품으시고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였으며 왜놈들이 강요한 《국어독본》을 《일어독본》으로 고쳐버리는 용단도 내리시게 하였다.

그 누구보다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기에 왜놈도 지주도 모두 없는 새 조선 자유의 강산에 우리 주권 세우자 슬기론 인민이 살아가는 내 나라 우리의 손으로 길이길이 빛내자고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의 힘에 대한 긍지로 충만된 《조선의 노래》를 부르실수 있었다.

《조선의 노래》를 부르시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어버이수령님의 앞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은 《조선독립청원서》를 들고 대양 건너 대국들의 턱밑에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었다.

권력다툼에 이골이 난 종파놈들의 파쟁덕에 동네와 동네끼리 피투성이싸움을 벌리며 주의주장에 따라 우리가 갈라지는가 하면 하늘소 한마리가 자산계급의 징표가 되어 무자비한 숙청을 당하는바람에 재산을 제선으로 또 우리가 쪼개지기도 했다.

왜놈들의 칼탕질에 우리가 흩어지고 파벌때문에 우리가 또 갈라지고...

우리를 떠난 《애국》, 우리를 무시한 《혁명》을 수령님께서서는 도저히 용납하실수가 없었다.

너와 나로 갈라지면 죽고 하나로 뭉쳐 우리가 되어야 사는것이 민족이다!

너와 나, 우리로 되는것이 진정 애국이고 혁명이며 무한대한 우리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잔과도에도 씻기우는 모래알과도 같은 너와 나가 격랑에도 끄떡없는 청암절벽과 같은 우리가 될 때 겨레의 운명이 구원되고 조국의 광복이 성취된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뽄뽄이 흩어진 겨레를 하나로 묶어세우는것으로 혁명을 시작하시였다.

겨레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짚신발에 배잠뱅이를 걸친 천한 백성이라 그 누구도 돌아다보지 않을 때 그들을 자신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함께 할 동지로 보시였으며 그들에게 하늘도 이겨내는 인간존엄의 무기-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주체의 진리를 심어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 밝혀주신 주체의 진리에 눈을 뜬 어제날의 배잠뱅이들이 망국노의 설음만을 켜던 주먹에 총을 틀어쥐고 자기 운명의 주인, 시대와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뭉쳐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함께 할 동지로, 그 어떤 칼부림에도 흩어지지 않고 파쟁의 회오리속에서도 갈라지지 않는 참다운 우리가 되었다.

그렇다! 우리란 단순히 나의 복수형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고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동지들의 결합체이다.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품에서 진정한 우리의 세월이 시작되었으며 이때로부터 우리란 말은 하나의 뜻으로 뭉쳐지고 하나의 위업을 위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운명공동체를 뜻하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 2

우리!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말이다.

백두에서 시작되어 걸음걸음 승리를 펼쳐 온 주체혁명위업은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밑에 일심단결의 기치높이 우리의 대오가 성장한 나날이며 우리의 힘이 백배천배로 커진 력사였다.

한피줄을 이었다고 저절로 우리가 되는것이 아니며 한민족이라고 하여 다 우리가 되는것은 아니다.

뜻으로 뭉쳐지고 정과 의리로 다져져야 우리가 된다.

반일이라는 하나의 뜻으로 뭉쳐지고 조국광복의 성업을 위한 길에서 피와 살, 사랑과 우정, 목숨까지도 함께 나눌것을 맹세한 백두산대오.

백두산대오가 민족의 머리우에 펼쳐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대강아래 애국적인 지주, 민족적인 자본가, 종교인도 반일성전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로 뭉쳐졌다.

우리의 힘을 재워넣은 백두산대오의 징벌의 총대앞에 일제의 백만대군도 추풍락엽의 신세 면치 못했다.

항일혁명전쟁! 이는 너와 나로 흩어져 쓰리나무 가지처럼 연약하던 민족이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라는 거목으로 자라난 나날이었으니 천백배로 커진 우리의 힘으로 강적 일제를 쳐부신 수령님의 우리 철학의 승리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우리 철학은 광복된 땅에 울려간 건국연설에도 뜨겁게 메아리쳤으며 새 나라 법령들에도 자자구구 새겨졌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어버이수령님의 건국연설에 심장을 합치니 너와 나 그대는 건국의 한길에 어깨결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고 어제날엔 보잘것없었던 나의 힘, 너의 돈, 그대의 지식이 합쳐지니 그 힘- 우리의 힘은 실로 무한대였다.

왜놈밑에서 고역을 치를 땐 몇년이 걸려도 승산이 없었던 보통강개수공사가 단 두달동안에 끝난것을 비롯하여 건국 5년사이에 일어난 기적들은 다 우리로 뭉쳐진 힘이 낳은 기적이고 우리의것에 대한 사랑이 낳은 열매이다.

인민이 우리의 법령이라고 두손 받들어 환호한 새나라 법령들로 하여 땅도 우리 땅이 되고 공장도 우리 공장이 되니 받들어 올린 낱알은 더욱 무거웠고 돌아가는 기계의 숨결과 뿜어 올리는 연기는 더욱 기세찼다.

수령님두리에 뭉친 우리의 대오 수령님품에서 자라난 우리의 힘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도 발밑에 무릎꿇리우는 전승의 역사도 안아왔다.

그토록 귀중한 우리의 부모형제들과 우리의 땅, 우리의 집을 빼앗으려 원수들이 달려드는데 어찌 한치인들 물러설수 있으며 전장에서 우리의 아들딸들이 피를 흘리는데 후방이라고 어찌 발편잡을 갈수있으랴.

우리의것을 지키려 인민군용사들은 원수의 불구명앞에 한몸 서슴없이 내뒀고 후방에서는 한몸 그대로 전동기가 되고 보습이 되어 탄약을 생산하고 군량미를 마련했으며 두어개가 그대로 교각이 되어 군수열차를 전선으로 떠나보냈다.

전선과 후방이 하나의 피줄기로 이어진 우리앞에 팔라에 매인 식인종무리들은 개죽음을 면치 못했고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산산이 깨여졌다.

항일의 혈전만리길에 뿌리를 내리고 건국의 열풍속에 굶어졌으며 전화의 불비속에서 거목으로 자라난 우리의 세계는 복구의 터전우에서 무성한 아지를 쳤다.

강선의 불길속에 태어난 《다음 교대를 위하여》라는 우리 로동계급의 소박한 글밭에서 더욱 뜨겁게 뭉쳐 더 크고 더 강한 우리로 되려는 인민의 갈망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우리 세계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인민을 이끌어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서 뒤떨어지면 이끌어 나란히 세워주고 나란히 서면 떠밀어 앞세워주며 사람들모두를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인간개조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서로 돕고 이끌어 창조해가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속에 미래를 주름잡는 천리마

시대가 태어났다.

천리마에 오른 인민은 미국놈들이 100년이 걸려도 일어서지 못한다던 도시와 마을, 공장과 발전소를 불과 몇년사이에 일떠세웠고 남들은 수백년 걸린 공업화를 단 14년동안에 완성하고 이 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우리가 되지 않고 너와 나로 갈라져서는 도저히 안아올수 없는 기적이였다.

어제날엔 뿔뿔이 흩어져 제 하나의 운명조차 건지지 못하던 인민을 《우리》라는 운명공동체로 묶어세워 조국의 번영을 마련해 가는 주인으로, 역사를 전진시키는 시대의 창조자로 키우시느라 어버이수령님 얼마나 크나큰 심혈 바쳐오셨던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려 항일의 혈전만리,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려 전화의 불길만리, 우리나라를 일떠세우시려 폐허와 재더미길,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여주시려 우리 식 사회주의혁명의 초행길을 앞장서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

그 길에서 우리를 죽이려던 우리의 원수들은 수령님 높이 드신 정벌의 철추를 면치 못했다.

우리 인민을 노예로 만들려던 일제와 미제가 그러했고 우리의 단결을 파괴하려던 반당반혁명분자들이 그러했다.

그 길에서 이 땅의 모든것은 인민의것, 진정한 우리의것이 되였다.

사람들모두가 친형제가 된 우리의 세상, 인민이 쓰고사는 우리의 그 모든것, 그 어디엔들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스며여있지 않으랴.

터지는 수류탄도 제 한몸으로 막아 동지를 구원하는 숭고한 세계도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애의 세계에서 시작된것이며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여주고 영예군인의 안해가 되고 남편이 되여 한생을 같이하는 우리 인민의 인정미, 아름다운 삶의 향기도 다름아닌 어버이수령님의 정의 세계가 낳은것이다.

저 하나의 행복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힘도 지해도 정열도 다 바치며 그 길에서 우리라는 칭호로 불리우는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는 이 나라 사람들의 인생관도 애국애족으로 뜨거운 어버이수령님의 조국관, 인민관에 뿌리를 둔것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깃들어있지 않은 우리의 것이란 이 땅에 없다.

정녕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태양과도 같은 뜨



거운 열로 인민의 심장을 덥혀주시고 한사람, 한사람의 피줄기를 이으시여 피와 살을 나눈 하나의 대가정, 뜻을 같이하고 사랑과 정으로 맺어진 동지-우리로 꾸려주신 민족의 어버이의 한생이었고 태양의 자애로운 빛발로 이 땅의 모든것을 인민의것, 조선의것- 우리의것으로 되게 하여주신 질세의 애국자의 한생이었다.

### 3

우리!

이 말은 곧 승리란 말이다.

나를 죽일수는 있어도 없애지 못하는것이 바로 우리이다.

나 하나를 바치여 우리를 지킬 때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위업속에 나는 살아있을것이며 우리를 이루는 나 하나하나가 강자가 될 때 우리의 힘은 필승 불패이다.

얼마나 많은 투사들이 자신을 바쳐 우리를 지켜냈던가.

우리에 대한 믿음, 우리의 승리에 대한 확신에 넘친 투사들이었기에 자기의 허를 끊어 우리를 지켰고 두눈을 빼앗기고도 우리의 승리를 떳떳이 웨칠 수 있었다.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의 래일에 대한 략관에 넘친 인민군용사들이기에 돌도 없는 목숨 서슴없이 바쳐 적의 화점을 막고 지뢰밭에 뛰어들며 승리의 진격로를 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죽지 않았다. 우리를 지켜 나가 사는 우리 세계의 삶의 참된 진리를 깨달은 그들은 결코 죽은 몸이 아니었다.

머나먼 혁명의 길에서 수많은 혁명렬사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선렬들의 고귀한 넋과 값높은 희생으로 천만배로 강해졌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고 선렬들의 고귀한 삶이 바쳐진 우리의 단결을 파괴하고 우리의 세상을 없애려 원썬들은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했는가.

정도 사랑도 의리도 없이 너와 나로 갈라져 너 죽어야 내가 산다는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길들여진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사람들모두가 서로 믿고 사랑하며 굳게 단결된 우리의 세상은 눈에 든 가시였다.

놈들은 우리가 질식되기를 바래 봉쇄와 고립의 울가미를 조이었고 우리의 세상을 없애려고 핵무기를 휘둘렀다.

놈들의 최후발악으로 하여 우리의 운명은 엄중한

도전에 부딪혔다.

우리의 운명을 지키시려 총대를 드시고 결사수호의 성전에 나서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증이 얼마나 무거우셨으랴.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고 제국주의떼무리가 호시탐탐 덤벼들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문제는 이렇게 첨예하게 나뉘었다.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국방력강화와 인민생활과 관련한 두개의 문건을 펼쳐드신 우리 장군님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진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믿음이였다.

국방력강화를 위한 문건에 수표를 하자니 마음이 괴롭다고, 그러나 우리 인민은 자신을 리해할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우리 인민을 믿는다고!...

마디마디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는 장군님의 말씀에 인민은 《우리 장군님!》 하고 목메여 웨쳤다.

《우리 인민》! 이 믿음외에 무엇을 더 바라랴.

우리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신다면 진필에도 서슴없이 뛰어들고 불비속도 웃으며 헤쳐나갈 충직한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앞에 제국주의 핵무기도 력사의 모진 광풍도 맥을 추지 못했다.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는 또 다시 승리하였으며 세상에 대고 **김일성**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일찌기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더 큰 하나가 된다는 우리 힘의 진리를 발견하신 우리 장군님.

중학시절에 벌써 너는 귀중한 우리의 너, 너는 결코 버릴수 없는 나라는 진정한 우정의 세계- 우리의 세계를 펼치신 경애하는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세계를 지키시려 총대를 틀어쥐시고 선군혁명의 천만리를 헤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이런분이시기에 《우리》 라는 말에 류다른 애착을 가지고 때없이 속으로 곱씹어 외워보시며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에서 군인들과 인민들이 자기 지휘관과 일군들을 《우리》 라는 호칭으로 부를 때 그리도 기뻐하시며 그런 일군들을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전우, 진짜동지로 여기시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라는 호칭은 그 어떤 관직이나 명예칭호가 아니라 군인들과 인민들이 자기들을 위해 헌신하는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값높은 칭호이고 평가이며 진정한 인민의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믿음과 친근감의 대명사이다.

사람들모두가 《우리》라는 칭호로 불리울 때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강성대국의 승리가 가까와진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북과 남이 우리가 될 때에야 성취된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의 분렬도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민족끼리》라는 통일대강아래 마음을 합치면 곧 통일로 되는것이다.

내 조국의 번영이고 겨레의 통일인 우리를 지키는것은 바로 총대이다.

총대가 약했던탓에 우리를 잃었고 총대를 틀어쥐였기에 우리를 지킨 조국이고 인민이기에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을 우리 민족수호의 기치, 우리 조국번영의 생명선으로 틀어쥐시였다.

그렇다,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따르는 길에 우리의 운명이 있고 우리의 승리가 있으며 우리의 번영이 있다.

선군총대에 의해 담보되는 우리의 세계는 영원할 것이며 무궁번영할 우리 조국의 미래와 더불어 어버이수령님은 영생하신다.

장군님 계시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 우리 수령님!

## 수령님 세월

전승일

꿈만 같아라  
피눈물의 7월이 엇그제같은데  
우리 조국이 벌써  
십년을 살아왔다는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루도 가신적 없는 수령님  
예대로 내 조국땅엔  
수령님노래 끝없이 울리고  
수령님뉘이 뜨겁게 굽이치는  
날과 달과 해가 흐르지 않았더나

10년세월의 폐지폐지를  
조용히 번지노라면  
수령님은 이 세월속에  
태양으로 빛나계셨노라  
우리 장군님과 함께  
선군조국을 역세계 이끌어오셨노라

눈내리는 겨울날  
토지정리 들길을 걸으시면서  
수령님 소원이 풀렸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는  
장군님 절절한 말씀속에  
수령님은 계셨고

최전연산발 사적비앞에서  
승엄한 경례를 올리시며  
하많은 심중의 말씀 나누신

그 봄날의 고지우에도  
수령님은 장군님과 함께 계셨더라

수령님체온으로 더웁혀진 이 땅  
수령님 한평생 바쳐오신  
사랑으로 자라온 인민이기에  
이 땅이 하늘을  
수령님모습으로 꼭 채워주신 장군님

정녕 꿈일수 없으리  
이 나라 천만인민 그 누가  
수령님없이  
수령님 계시지 않는 조국에서  
십년세월 단 하루라도  
숨쉬며 살아온적 있었던가

해가 갈수록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인민의 마음속에  
장군님 펼쳐주신 강성대국 넓은 길로  
태양의 미소를 연연히 뿌리시며  
수령님은 오늘도 함께 계시나니

총대를 틀어쥐신 장군님 계시여  
조선의 세월은  
영원한 수령님 세월  
수령님은 장군님과 함께  
천년만년 찬란한 미래로  
조국을 이끌어주시리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김정일

## 한편의 수령영생가요에도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불라는 7월의 아침 노래가 울린다. 수령영생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한평생 인민위해 바친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  
꿈결에도 안고사는 마음  
오늘도 그 품을 찾네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과 함께 계시네

노래에 심취되어있느라니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충정의 세계가 뜨겁게 안겨온다.

아버이수령님을 잃으신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기념비적인 수령영생가요창작을 구상하시고 작품의 완성을 위해 깊이 마음쓰시며 온갖 심혈을 바쳐오신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영생구호의 사상을 담은 노래를 창작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보아주시며 창작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듭되는 가르치심을 받는 과정에 창작가들은 수령영생가요와 같은 기념비적 작품들에는 수령님을 흠모하는 열렬한 감정이 있어야 하고 장중한 감정도 있어야 하며 수령님의 뜻을 끝까지 꽃피워가려는 신념과 맹세의 감정도 담겨져야 한다는 심원한 뜻을 깨닫게 되었다.

주체84(1995)년 6월 새로 창작한 여러편의 수령영생가요를 또다시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라는 같은 제목으로 된 3편의 노래들중에서 첫번째 가요의 선률이 좋다고 하시며 그 곡을 선정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상을 부각시킬수 있도록 제목마감에 《계시네》를 더 넣게 하시었다. 이어 가사내용에서 《위대하신 김일성 동지 영원히 함께 계시네》로 되어있는 부분을 노래의 선률에 가사가 쉽게 담겨질수 있도록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로 고쳐주시고 수령영생의 신념이 노래형상에서 더욱 강조되도록 이 구절을 마지막에 후렴으로 반복하도록 하시었다. 어찌 그뿐이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매절의 마지막부분 선률

형상에서 《영원히》라는 대목에 력점을 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이 노래에서 《영원히》라는 대목이 아니라 《우리과 함께》에 방점이 있다고, 이 대목에 선률형상의 력점을 찍으라고 일깨워주시었다.

장군님께서 수령영생가요창작사업을 발기하시고 걸음걸음 이끄시여 가요의 가사와 선률을 사상예술적으로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도 가요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노래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본때있게 잘 지었다고, 이 노래는 올해 나온 노래들중에서 제일 잘된 노래라고 창작가들을 높이 치하하시었다.

주체84(1995)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또다시 노래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이라고, 이 노래는 들을수록 좋고 더 듣고싶다고, 이 노래는 완전히 성공한 노래이라고 추억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 노래는 당가갈기도 하고 국가갈기도 하다고 하시며 노래보급을 잘하도록 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길이길이 칭송하고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갈 우리 당과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노래한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는 이렇듯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충정의 고귀한 결실이다.

사람들이여, 그 언제, 그 어느 나라 력사에 이런 수령영생가요가 울려 퍼진적 있더냐.

아버이수령님 유산으로 물려주신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이시려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굳건히 계승 완성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 계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도 이 신념의 노래를 대를 이어 부르면서 선군혁명천만리를 역세게 걸어갈것이다.

한평생 조국위해 바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나  
이 조선 무궁하여라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과 함께 계시네

본사기자

## 태양상 미소의 그 빛발

박근원

맑은 아침의 내 나라에  
해빛 찬란하니  
대지에 온갖 꽃 만발하고  
온 강산에 아름다운 꽃동산 펼쳤습니다

저 하늘의 해빛받아 피는  
강산의 꽃은 한계절 폼다 지지만  
우리 마음 우리 얼굴의 웃음꽃은  
사계절 활짝 피었습니다

언제나 웃으시는  
아버이수령님의 태양상  
밝으신 미소의 그 빛발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절이 따로 없이  
뜨겁게 포근히 안아주시니  
눈바람 비바람 불바람 불어도  
우리의 웃음꽃은 지지 않습니다

아버이수령님은  
자애론 미소로 우리에게  
맑음만을 주시려  
웃음만을 주시려  
태양의 빛발을 만드셨습니까

그 억만줄기 끝없는 빛발  
천만의 심장에 새겨져

우리 눈물을 모르고삽니다  
눈물없인 넘을수 없었던  
그 시련의 언덕도  
희생없인 헤칠수 없었던  
그 준엄한 나날도  
웃으며 넘었습니다  
웃으며 헤쳤습니다  
웃으며 승리해왔습니다

앞에 또 찹찹  
험난한 준령 막아서고  
엄혹한 나날이 있다 해도  
아버이수령님  
맑은 미소의 그 빛발 안고  
웃으며 넘으렵니다  
웃으며 헤치렵니다  
웃으며 승리해가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환히 웃으시며  
자애에 넘쳐 밝게 빛나시는  
아버이수령님 태양상  
그 미소의 빛발은  
우리 장군님 높이 받들어갈  
우리의 영원한 신념과 의지의 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꽃입니다

## 내 삶의 년륜이여

최남순

이 땅에 태어나  
맞고 보낸 세월은 스물다섯해여도  
철든 삶의 년륜은  
아, 열돌기...

10년전 피눈물의 7월에  
나는 나를 키운 사랑의 무게를 알았다  
역수로 쏟아지는 비발속  
만수대 그 언덕에서  
난생처음 아픈 심장으로 울며  
오, 나는 걸어갈 보답의 삶을 깨우치였다

그날부턴  
험박질하며 뛰어놀던  
정든 마을길을 걸어도

우리를 찾아오셨던 수령님 발자취우에  
내 작은 발자국이 받들리운것만 같아  
생각깊은 인생의 걸음마를  
나는 이 땅에 다시 찍었고

북받치는 오열에  
시인 아닌 사람들도 다  
그리움의 시를 쓰던 그 나날  
동심만을 시줄로 엮던 이 철부지소녀는  
종이우에 눈물을 쏟으며  
진정 시를 배웠거니

하나 갈린 목소리로  
장군님을 부를수 없었기에  
그때 우린 나이가 어렸어도

조국앞에 어른으로 성장하여 나서지 않았던가

받아안은 사랑과 사랑이  
정녕 사무치도록 귀한줄 알았다  
파아란 대학입학통지서가 내 마음의 하늘마냥  
가슴에 안겨들 때도  
힘겨운 조국이 새 교복을 입혀줄 때에도  
사시절 눈비에 젖어 마를새 없는  
장군님 옷자락을 먼저 생각하며 자랐어라

내 오늘은 교단에서  
후대들에게 이야기하노라  
장군님 계시여  
우리의 마음속에

수령님 더 가까이 오신  
10년의 역사를

아, 그렇게  
내가 크고  
인민이 성장한 세월  
잊지 못할 10년세월에  
우리는 한생의 철이 다 들었거니  
이 땅에 천만년 세월이 흐른다 해도  
수령님 영생하시는 세월로  
참다운 인생의 나이  
진정한 삶의 년륜을 새겨가며  
아, 장군님 받들어 나는 살리라

## 푸른 버들

김윤걸

이 땅 어디 가나  
이 하늘아래 어디서나  
내 머리위에 푸르른  
버들 하나 있어  
오늘도 나는 그 버들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 집 마당가  
스적이던 버들아래서  
나를 품어 안아주시던 수령님  
서른해전 그 따스한 체온을  
내 오늘도 잊지를 못해...

이제는 키높이 자란  
무성한 너의 푸른 잎새마다에  
해살처럼 어려있어라  
내 걸어갈 앞길에  
뜨거운 아버지의 축복을 얹어주시던  
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이

얼마나 위대한 품에 안겨  
얼마나 영광의 순간을 맞을줄도 몰랐던  
나는 유치원철부지  
들에서 가랭이에 촌촌히 묻혀온 가막사리  
수령님 하나, 둘 뜯어주실 때조차  
그저 좋아 웃고만 섰던...

아, 버들이여 버들이여  
잎새 푸른 너의 가지 하나를 잡아도  
아름다운 추억의 줄기우로  
그리움은 하늘높이 치솟거니

버들이여, 너는  
배움의 층계마다에서  
내 작은 가방을 희망의 푸른빛으로 물들여주었고  
어엿이 자라 총잡고 선 전호가에서도  
비가 오면 비를, 눈이 오면 눈을  
지어 불비까지도 막아주었거니

너의 즐기줄기를  
마음속에 꼭 틀어잡고  
고난의 언덕도 내 웃으며 넘었고  
신념의 기둥마냥 너를 부둥켜안고  
백번 더 쓰러졌을 그 길에서  
장군님 받들어 억척같이 걸어왔거니

아, 푸른 버들이여 진정 너는  
내 인생의 찬눈비 다 막아준  
푸른 처마  
머리들어 바라보며 산  
내 삶의 푸른 하늘

버들아, 정녕 너는  
인생의 먼먼 길에  
내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은 수령님사랑  
들관소년을 조국의 아들로 키워준  
고마운 젖줄기

아, 버들  
내 인생의 머리위에  
수령님 숨결마냥  
스적이고 스적이며  
영원히 푸르리 설레일 내 고향의 버들아!

## 뜨거운 여름

리민락

붉고 푸른 불빛들이 어롱거린다.

거대한 크기의 꽃바구니가 밤하늘에 그려지기도 하고 천리마며 치차같은 상징적인 그림들… 《주체》, 《일심단결》 같은 형형색색의 글자들이 뚜렷한 모양으로 새겨지기도 한다.

최승규는 기차를 타고 오면서 혁명의 수도 평양의 밤하늘가가 분화구의 번두리처럼 불그레 밝던것을 상기하였다. 하늘의 못벌들처럼 많은 고층살림집들의 불빛들, 전설의 수중궁을 방불케 하는 거리량권의 봉사당들, 질주하는 자동차불빛의 물결… 령롱한 불빛이 가득차흐르는 인도로에는 손에 손을 잡은 어린이들이 《빨간 앵두 따다가 누구에게 드릴가》 하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부르며 지나간다.

서너걸음앞에서 두 젊은 남녀의 뒤모습이 교예무대의 조명등색갈처럼 여러가지로 엇바뀌곤 한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또 빨간색… 그들의 행복에 겨운 목소리가 어떤 신비의 음향인양 주위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하는듯 싶다.

《태일이 빨리 왔으면…》

《그래 경연이 잘될것 같소?》

《심사원선생님들이 내 노래가 감정도 좋고 성량도 풍부하다면서 아이 글썄…》

무슨 말인가 낮게 소곤거린 다음 동시에 터치는 웃음소리… 뽀족한 구두뒤축이 보도블록을 찍으며 내는 유난스러운 소리는 행복을 연주하는 이 거리음악의 박자이런듯 마음을 한껏 들뜨게 했다.

최승규는 자신도 알수 없는 흥그러움에 잠기어 무심중 《태일!…》 하고 뇌이였다. 태일! 태일은 황홀한 이 저녁과 함께 서서히 다가오고있다. 현란한 불빛으로 장식된 저앞의 가로수처럼 시시각각으로 가까이 오는 태일.

태일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그의 심중에 파동을 일으킨적이 있었던가. 이 거리로 오가는 사람들중 태일이 최승규에게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을 안겨줄것 인지 누구도 알수 없을것이다.

최승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것이다. 지방공장에 내려갔다가 그 소식을 받고 갑자기 평양으로 올라온 지금 그의 가슴은 터질듯 한 흥분과 감격으로 한껏 부풀어있었다.

《이번에 식용단백질처리공장에서 새 촉매를 연구한 그 동무를 좀 만나봅시다. 그 동무가 연구한것이 성공하였으면 우리는 앞으로 인민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수 있고 우리 군

인들에게 고기를 공급할 전망도 열리게 됩니다.

그 동무의 이름이 최승규라면 아마 내가 전쟁때 충주 남쪽 수안보에서 만나본 전사일수 있소.》

아버이수령님께서 중요한 국가회의에서 인민생활문제를 두고 교시하시다가 문득 자기 이름을 부르며 하시였다는 말씀이다.

최승규는 그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자기의 크지 않은 연구성과를 아버이수령님께서 알고 관심하시는것도 놀라왔지만 더욱 놀라운것은 아버이수령님께서 자기를 알고계신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수령님께서 아득한 어제날의 평범한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계신단 말인가. 거의 반세기전의 일을… 정말 놀라왔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더니 최승규도 어느덧 예순나이에 이르렀다. 그는 요즘 나이가 차츰 들어가면서 로년기에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험으로 느끼고있었다. 하기에 며칠전 아버이수령님께서 벨지끄의 정계인사들을 접견하시고 함께 사진을 찍어주신내용이 로동신문에 났을 때 그는 신문을 앞에 놓고 오래동안 생각에 잠기였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르면 자연히 눈시울이 훈훈하게 달아오르는것을 어찌할수 없다. 그이께서 쓰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글줄들이 삼삼히 떠오르고 그이께서 헤쳐오신 눈보라치는 백두광야의 험준한 메부리들과 불구름피는 싸움터의 자욱자욱이 가슴저리게 안겨온다.

이제는 80이 넘으신 아버이수령님이시다. 그 고령의 나이에 이르시도록 휴식을 모르고 일하고계신다니…

어제날 그때처럼 최승규가 다시 아버이수령님앞에 서는 때가 있게 된다면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리리라.

《아버이수령님, 이젠 그만 만시름을 놓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조국광복을 위한 혈전의 나날에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의 가렬치절한 나날에… 전쟁후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이 땅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시느라 겹쌓이신 피로를 푸시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그것은 또한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하였다. 그 마음들을 모아 일군들이 수령님께

인민의 소원을 말씀드리면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내놓으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대로 일한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 일하는것이 자신의 휴식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었다.

아,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이 꼭 해결하실수 있는 그런 크고 중대한 사업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가.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그것을 뜨겁게 절감하며 수령님을 더 잘 모셔야 한다는것을 스스로 깨닫곤 하는 최승규였다.

제네바에서 제3단계 조미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는 과정을 보아도 그렇고 오는 7월 25일부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있게 되는 역사적인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두고보아도 알수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번에 근 반세기에 걸치는 민족분열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몸소 마련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이 아니시면 그 누가 우리 혁명의 길에 가로놓인 최대의 역경을 이처럼 순경으로 전환시킬수 있으며 화를 복으로 만들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최근 격변하는 세계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인 우리 나라는 미제와 반동세력들이 정치경제적, 군사적압력과 제재를 단호히 물리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마침내는 《초대강국》이라고 떠들던 미국을 굴복시키고야 말았다. 온 세계가 《하나의 큰 전쟁과 맞먹는 대결》이었다고 공인한것처럼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을 걸고 벌린 원수들과의 치열한 싸움이였다. 그 과정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얼마나 큰 로고를 겪으셨으랴,

하지만 원수들은 새로운 도발을 준비하고있다. 며칠전 미국회에서는 우리에게 대한 그 무슨 《체제론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악에 받친 소리가 튀어나왔다고 한다. 복침을 노린 놈들의 공중기동진개 연습이 대규모의 범위에서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 놈들의 정탐행위와 군사적도발행위가 그치지 않고 감행되고있다.

어느 순간에 어느 고리가 충격적이고 운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곡절많은 세상관도이다. 폭풍치는 날바다와 같이 험난한 항해길로 조선혁명의 배를 몰아오시며 조국통일의 위업도 자신께서 맡아 수행하기로 결심하시고 북남최고위급회담도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다. 것처럼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의 중심에 서시여 자주시대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한갓 이름없는 연구사의 크지 않은 연구결과를 알고계신다니 이를 어찌 있을수 있는 일로만 생각할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최승규 자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였다니 그가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을것인가.

이 최승규를 알고계신다?!...

수령님께서 아직 그때의 일을 잊지 않고계신단 말인가.

물결에 실려 흘러간 가랑잎처럼 종적을 알수 없는 세월의 한 지점, 불로 지지는듯 뜨겁던 전선의 어느 고지가 문득 머리에 떠올랐다.

그때, 흐르는 영화의 매 장면처럼 얼핏 지나친 일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어이 오늘까지 기억하고 계시는가. 한두달도 아니고 한두해도 아닌 수십년세월을 폐허에 첫삽을 박고 터전을 다지던 전후복구건설의 시기여 온 나라가 보수주의, 소극성을 불사르며 혁신의 불길 높이던 천리마운동의 시기를 거쳐 줄기차게 달리고달려온 불같이 뜨거운 열정의 세월이었다. 풍파사납고 굵이많은 그 역사의 진군길에 세인을 놀라우는 사건과 사변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전쟁때의 일은 이젠 최승규의 기억에조차 희미한 망각의 그림자를 던지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르시였던 불타는 고지만이 오늘도 퇴색할줄 모르는 풍경화처럼 그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었다. 공격과 방어, 적의 저항, 화염, 포성과 폭음, 결사전... 전투의 승패를 걸머진 수많은 지휘관들이 그때 수령님의 주체적군사전법을 배우며 그이의 곁에 있었다. 그때 최승규의 존재를 두고 새삼스럽게 말한다면 대양에서 물방울의 존재라고나 할수 있을지...

그렇지만 수령님앞에 섰던 때는 그의 일생에서만 한순간뿐이었다.

가장 가렬했던 조국해방전쟁의 첫 여름의 어느날. 청춘기가 갓 시작되였던 열여섯살이 애어린 병사 최승규는 새 군복을 입고 전선부대에 배치되었다. 그때 그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뒤설레였다. 증오와 격분, 소중한 희망을 다시 찾으려는 강렬한 지향... 그가 다니던 학교는 미군 비행기가 떨군 폭탄에 맞아 폐허로 변하였다.

《승규는 머리가 좋아. 이제 양수기도 뜯어맞출줄 아는 기술자가 될거야!》하는 사람들의 기대속에 기계기술자가 되려던 그의 황홀한 꿈은 폭연과 함께 산산이 흩날려 버리었다.

미제침략자들을 무찌르고 조국의 촛토, 고향마을을 수호하기전에는 다시 되돌아올수 없는 소중한 희망, 그 희망을 그러볼수록 가슴은 원수에 대한 격노로 타번지였다. 하여 그는 나이를 늘구고 때를 써서 용약 군복을 입었던것이다.

노도처럼 남으로 진격하는 부대들을 겨우 뒤따라 며칠만에 충주 남쪽 어느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에야 비로소 한부대의 대렬참모에게 인계되었다. 문건을 한아름이나 넘겨받은 몸매다부진 대렬참모는 새로 보충되거나 배속되는 인원들을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있는 구분대들에 배치하느라 눈코뜰 사이가 없이 바빠 돌아갔다. 이 동무들은 몇대로, 이 동무들은 포중대로... 하며 분주히 돌아치던 그는

홀로 남게 된 승규를 보며 《이 동무는 김동무에게 배속시키시오!》라는 말을 누구에겐가 남기고 곁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임무를 받은 대렬서기 조차 인차 그 자리를 뜨지 않으면 안될 긴급정황이 조성되었다.

멀지 않게 보이는 고지에 올라가면 누구나 알고 있다는 《김동무》를 찾아 승규는 혼자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김동무》가 어떤 사람일까? 중기사수일까 아니면 정찰병?... 어쨌든 누구나 알고있다는것으로 보아 이름난 싸움꾼이 틀림없었다.

고지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우연히 만난 후방부의 마차를 밀어주면서 승규는 이제야 기다리던 복수의 시각이 가까이 왔음을 분발되는 열정의 쾌감속에서 뚜렷이 느끼었다.

《짜짜! 이 녀석... 빨리 가자!》

얼굴이 길쭉한 마차군은 연방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다그쳐댔다. 마차에는 아구리에 기름종이로 덮고 비끄러면 절임목통이며 설토막으로 묶은 장작단 그리고 가마며 그릇가지들이 실려있었다.

아마 고지후면 싸움터가까이에 야전식당을 전개하는 모양이었다.

찌르는듯 한 따가운 해별이 목덜미를 내려지지였다.

여름은 바야흐로 자기 계절의 가장 더운 열정의 막바지로 치달아오고있었다. 밤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숲에서 우적우적 나무아지들이 뿜는 소리가 들릴듯 한 왕성한 계절이었다. 그래서인지 아카시아의 긴 가지가 길복판까지 쭉 나와있었다.

성칼사나운 가라말은 화약내를 말고 흥분되었는지 코를 벌름거리며 몹시 갈개였다.

놈들이 무시로 쏘아대는 류탄파편이 가끔 뽕뽕-귀전을 날군 하였다. 그럴 때마다 말은 앞발을 쳐들고 몸통을 추켜올리기도 했고 발통을 번디디고 눈알을 디룩거리며 심술궂은 코김을 히히- 내뿜기도 했다.

승규는 마차에 붙은것을 후회하였다. 마차군이 진땀을 흘리며 바빠하는것을 보고 저만 저라고 홀떠나기도 힘들었다. 마차가 들출 때마다 미끌어 떨어지는 장작단같은것을 부지런히 실어주기도 했고 목통들을 붙들어주는가 하면 경사진 길을 오르는 마차를 안간힘을 쓰며 밀어야 했다.

그는 속이 바질바질 탔다. 전호를 파느라 부지런히 삽질을 하는 군인들이 보이고 무슨 임무를 받고 급히 달려가는 대오도 보였다. 눈이 억실억실하고 살갗이 검스레한 한 군인이 위장망을 펄펄 날리며 마차결을 핵 지나치자 불현듯 위구가 가슴에 끼어어졌다. 자기가 찾아가는 그 《김동무》라는 사람이 중요한 임무를 받고 훌쩍 떠나가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생각이였다. 혹시 방금 지나간 군인이 자기한테 배속된 나를 찾으려고 달려간것이나 아닐까? 아니, 이려고있을수가 없지.

《저... 아바이, 안됐지만 난 이곳에 새로 배치되어오는 사람인데 가서 상관을 만나보고 다시 와서 도와드리면 안될가요?》

승규는 미안한 안색을 짓고 가갸스로 말을 꺼내었다. 정작 말을 때니 마차를 모느라 모지름을 쓰는 아바이병사에게 무척 면구스러운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러나 아바이병사는 《어서 그렇게 하계. 내가 제 욕심만 부리려 했군. 어서 가보라니까...》하며 그의 등을 떠밀어주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찾아해매던 《김동무》가 마차를 몰아오던 그 마차군아바이일줄이야.

취사원 김석중- 그는 전투원들의 식사를 도맡아 보장하는 눈코뜰새없이 바쁜 사람이었다.

승규는 그와 함께 야전식당을 가설하고 밥을 짓는 식사보장성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최승규의 일생에서 그때처럼 속이 언짢고 마음이 괴롭던 때는 없었던것 같다. 한껏 부풀었던 황홀한 기대와 열정은 고무풍선이 바늘에 찔려 형체도 없이 터져버린것 같다고 할지...

야전식당이 자리잡은 고지밑으로는 큰 도로가 여러갈래로 갈라져있었는데 얼핏 내려다보아도 땅크며 포글차들이 달리고 위장풀을 쫓은 전투대오가 쉽없이 흐르는것이 보이였다.

전쟁은 이미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작전적방침을 관철하는 준엄하고도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인민군대의 드세찬 공격으로 좁은 지역에 압축된 적들도 생사판가리를 준비하고있었다.

조선전쟁을 도발했다가 참담한 패배를 거듭한 트루먼은 급기야 20세기에 들어와서 두번째로 취하게 된다는 대통령의 비상대책을 행사할것을 공포하였다. 수많은 병력이 조선을 향해 밀려들었다. 놈들은 소백산줄기 동남쪽의 유리한 산악지대에 력량을 집중배치하여 인민군대의 공격을 지연시키며 어떻게 하나 락동강방어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고 발악하였다. 그래야 련속 부산과 포항으로 부대들을 투입하여 다시 대규모적인 공격으로 이전할수 있으리라 타산하였던것이다.

전선정황은 시간과 더불어 엄혹해져갔다.

락동강을 도하하여 놈들의 마지막숨통을 끊어버릴수 있겠는가... 결정적인 전쟁의 국면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찌는듯 한 무더위로 하여 웅덩이의 물이 끓던 그 시절 지휘관들과 전사들의 가슴도 전투열망으로 설설 끓었다.

누구나 전쟁의 결말을 두고만 생각하던 그 시절이였다. 최승규는 도도한 대하의 흐름에서 떨어져

기슭으로 썩 밀려난 침울한 기분이었다. 하는 일이란 돌가마에 불을 때고 물에 올군 도라지를 잘게 찢어놓는것 같은 《부엌일》 이었다. 걸음마다 한숨이 푹푹 새어나왔다. 그런데 어쩌면 김석중이라는 사람은 전쟁의 진행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같이만 보이는가. 밤마다 달빛속 수림을 더듬으며 도라지를 캐는가 하면 또 후방에서 날라온 쿵을 삶아 썩장까지 만든다고 부산을 피우지 않는가.

《김석중동지, 이러다가 전쟁이 끝나지 않을가요?》

《어찌겠나. 싸움도 먹어야 한다네. 잔말말구 일어나 하라구, 꼬마!》

《체! 날 오래 잡아둘 생각 말라요!》

최승규는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았을뿐아니라 제법 위협까지 했다.

(안되겠어. 무슨 도리가 있어야지!)

그의 이런 심정은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 포연탄우를 헤치시고 이곳 최전선에 나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더욱 강렬해졌다.

최승규는 너무 속상하여 막 울음이 나올것만 같았다.

강을 건너지른 다리가 끊어져 열기설기 깔린 철다리의 침묵우로 차를 몰아 위험천만한 길을 오셨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다. 전쟁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어찌 줄폭탄이 튀는 최전선에 나오신단 말인가.

한편 이번에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옵는 전투원들은 얼마나 행복할가 하는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갈증만난 사람이 물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마음은 줄곧 싸움마당으로 달리었다.

(나도 싸우는 전호속에 서있었더라면...)

그는 마음속으로 장군님앞에 자신을 세워보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전사 최승규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을 받들어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있습니다.》 하고 힘찬 보고를 드렸으면 얼마나 행복할가.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 고지후면의 야전식당에서 허리를 짓숙이고 장작을 때고 쌀을 퍼놓고 뉘를 골라야 하는 처지이다. 여가시간이 있으면 《김동무》의 보조지시를 받고 식당주변의 풀을 뽑고 물도랑을 깨끗고... 이거야말로 죽을 맛이 아닌가.

그는 자기의 처지가 눈물겹도록 원망스러웠다. 그러거나말거나 김석중은 매일 간간한 작업지시를 주곤 하였다. 불을 알맞춤하게 때라는것, 국거리를 너무 크게 썰지 말라는것...

그날 김석중은 그에게 한가지 보충지시를 주었는데 그것이 그만 최승규의 억누르던 감정을 폭발하

게 하고말았다.

점심식사시간이 착 되기전에 고지밀에 가서 차거운 샘물을 길어오라는 지시였다. 그동안 자기는 좀 멀리 떨어진 남새밭에 가서 오이를 따오겠다고했다. (흥, 오이?!...)

최승규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공방전이 고지마다, 골짜기마다에서 벌어지고있다. 실개천 하나를 사이에두고도 적아 쌍방이 대결하고있고 때로는 독립가옥한채를 가운데 놓고도 수많은 전우들이 피흘리며 쓰러지고있다. 생사운명을 건 적들의 발악적인 저항으로 하여 이 며칠간 아군의 공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이 긴박한 시각에 김석중은 포탄과렬에 온통 잊이겨진 주인없는 밭에 오이 몇포기 살아있는것을 보고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어 오이를 자래웠다.

오늘 그것을 따다가 오이랭국을 풀겠다는것이였다.

《아니, 지금 누가 랭국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승규는 불만을 터뜨렸다. 식사를 보장하는 일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엄혹한 싸움마당에서도 몇개의 오이만이 크게 보이는 김석중이 그 순간 가엾게 보이기도 했고 아니꼽게 여겨지기도 했다.

《지금이야 탄약상자를 하나라도 더 날라야지 오이랭국을 풀 물이 됩니까.》

최승규는 자기 주장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김석중이처럼 수긋해서 시키는 일이나 하면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을것이며 싸움판에 있는 자기또래의 병사들은 또 얼마나 알볼것인가.

그의 달아오른 얼굴빛이 감빛으로 발그레하게 물들었다.

그것은 급작스러운 반발이였다.

김석중의 가뜩이나 커보이는 눈이 둥그래지였다. 한동안 그를 쳐다보기만 하던 김석중이 타이르는듯, 일리는듯 한 어조로 말하였다.

《승규동무, 그러면 안되지...》

《난 더 여기 못있겠어요. 한쪽에선 피흘리며 싸우는데... 체!

지금 누가 주먹밥을 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더운 때 시원한 랭국을 풀어주면 좋지 않나, 응. 그러지 말구...》

《그만두라요.》

《?!...》

《어울리지 않게 랭국이요 뭐요 하다가 도리어 망신을 당하지 않는가 보라요.》

《뭐가 어찌!》

김석중의 얼굴이 험하게 이그러졌다. 땀이 내뻘진갈색얼굴에 모옥당한 노기가 뻗쳤는지 눈썹이 푸



들거리었다.

침묵!

그 어떤 벼락이 천대도 최승규는 맞설 각오를 하고 있었다.

될대로 되라! 귀뺨을 천대도 난 내 생각대로 주장할것이다.

김석중은 잠시 그를 노려보았다. 씹씹... 거친 숨 소리만이 이제 터지게 될 그 무엇을 예고하였다.

그런데 김석중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물통을 찾아들더니 묵묵히 고지아래로 내려갔다. 아마 오이를 따오는 길에 자기가 물까지 길어오려는 모양이었다.

에익! 며칠만 참자, 며칠만... 그래도 이 처지가 끝나지 않으면 그때 도망을 쳐서라도 어느 전호속에 뛰어들고말테다!

최승규는 속다짐을 단단히 했다.

하지만 그 원망스러운 야전식당이 그의 한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곳으로 될줄이야.

영광의 시각은 김석중이와 함께 식사준비를 말끔히 해놓고 새로 팬 장작들을 정리하던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었다.

《수고합니다, 동무들!》

우렁우렁하신 목소리로 친근하게 불러주시며 식당으로 가까이 오신분은 꿈결에도 뵈고싶었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이시였다.

갑자기 주위에 명롱한 빛이 서리었다. 온 천지가 밝아진듯 싶었다. 야전식당의 천막이 번쩍 들리운 것 같았고 흙으로 대충 바른 부뚜막도 무슨 빛을 뿜는것 같았다.

간편한 회색 단긴 옷차림에 장화를 받쳐신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얼굴에 햇빛같은 밝은 웃음을 지으시고 그들의 인사를 받아주시였다. 젊음이 넘치시는 그의 밝은 안광에 인자함과 부드러움이 봄빛처럼 흐르고있었다.

아! 이 초라하고 불품없는 야전식당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오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수 있었던가.

최승규는 너무도 감격이 크고 가슴이 벅차서 지기가 어떻게 그이께 인사를 올리였는지 잘 알수 없었다. 영광이란 언제나 이렇게 뜻밖에 오는것인가.

모자를 벗어드시고 허리에 한손을 얹으신채 잠시 주위를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함께 온 지휘관들을 바라보시였다. 모두 어깨에 금빛견장을 달고 곤색 승마복바지에 붉은색 굵은 줄이 있는 어마어마한 모습들이였다. 포연에 끄슬린 검실검실한 살갗이며 방금 부어낸 조피덩이처럼 열기를 풍기는듯 한 눈빛들... 그들의 얼굴빛은 엄엄하였다. 아마도 전선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지금 그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앞에 놓인 복잡하고 처절한 군사행동방안들만이 맴돌이칠것이었다.

하건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너무나도 여유작작하시였다.

《이 동무들이 식당을 참 아담하게 꾸렸습니다. 정결하고 규모도 있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만족하신듯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몇걸음 더 옮기시고 허리를 약간 굽히시더니 가마뚜껑을 열어보시였다.

흰 김이 물씬 솟구치며 한순간 뽕양게 서리었다. 가마안에는 흠씬 열을 가한 뒤에 뜸을 충분히 들여 속속들이 잘 익은 윤기흐르는 밥알들이 고르롭게 보이였다.

《음, 밥이 잘되었군.》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히신채 고개를 돌리시여 곁에 서있는 그들, 두 병사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여주시였다. 그의 눈빛이 너무도 다정하고 자애로와 최승규는 한순간 아버이를 모신듯 가슴이 찢릿하였다.

이름만 들어도 일제의 100만 관동군이 벌벌 떨었다는 회세의 명장, 오늘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의 운명도 한손에 거머쥐시고 쥐락펴락하시며 세상을 놀래우는 강철의 령장 **김일성** 동지께서 초연자옥한 고지우 막 쌓은 돌가마앞에 서시여 가마뚜껑을 열어보시였다는것만으로도 수많은 일화와 전설을 남길 일이였다.

그이께서는 손수 절임이 담긴 목통덜개도 열어보시고 물에 손을 넣으시여 울군 도라지도 만져보시였다.

《이 동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잠시 쉬여가게 어떻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묻는듯 한 시선을 김석중에게 주시면서 통나무를 가로질러 만든 투박한 걸상에 걸터앉으시였다.

누구도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동무들은 혹시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는것이 무의미하다고 보는게 아니요?》

그이께서 말없이 서있는 장령들에게 얼굴을 돌리시자 한 장령이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씀올리였다.

《아닙니다. 허지만 지금 전투정황이 하도 긴장하기예...》

그 말을 증명하는듯 멀지 않은 골짜기에서 굉장한 폭음과 파렬음이 터져올랐다.

《전투정황이라...》

그이께서는 잠시 화염이 타래치는 전방을 바라보시였다.

그러시다가 고개를 돌리시고 결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우리 병사들은 지금의 긴박한 전투정황을 곧 승리의 정황으로 일변시킬것ियो.

우리 아무리 바빠도 병사들이 무엇을 끼니로 하고 싸우는지 좀 알아보고 갑시다.》

《최고사령관동지, 저희들이 미쳐...》

방금 말씀올린 장령이 자책어린 목소리로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너그럽게 웃어주시며 김석중에게로 시선을 돌리시었다.

줄곧 굳어진 자세로 서서 어찌할바를 모르던 김석중의 길쭉한 얼굴에조차 얹은 웃음이 실리었다. 그의 대답은 행복의 걱정과 감격으로 흐느끼듯 떨리듯 울려나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더는 말을 잊지 못한 김석중의 눈시울너머 맑은 물방울이 쭈르르 흘러내리었다.

《동무들도 이리 와있소.》

그이께서는 장령들을 곁으로 부르시고 전투원들이 먹는 그대로 한그릇 가져오라고 친근하게 말씀하시었다.

김석중은 물론 최승규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라 더없이 당황하였다. 어떻게 최고사령관동지앞에 변변치 못한 식사를 놓아드릴수 있단 말인가.

밥 한그릇에 랭국, 도라지채에 고추장 한종지-그것이 력사의 그날 그이앞에 놓였던것의 전부였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산천이 변하고 또 몇몇번 변해도 정녕 잊을수 없는 그날이었다.

전선연합부대들의 작전정형을 료해하시고 우리나라의 지형과 우리의 무장장비에 알맞는 전투행동으로 저항하는 적을 타승할수 있는 비범한 주체적인 군사전략전술을 제시하시며 단 한순간의 여유시간도 없이 보내시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날 어찌하여 그 야전식당에 들리셨는지... 철다리의 침묵우로 차를 몰아오신 그 위대한 걸음이 어이하여 그 평범한 식당에 이어졌었는지...

최승규는 그때까지 너무도 많은것을 알지 못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차려놓은것을 보시고 의외이신듯 물으시었다.

《오이가 어디서 나서 랭국을 했습니까?》

《저...》

김석중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마디굵은 두손을 맞잡고 갑자르기만 하였다.

김석중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한 후방일군이 오이에 깃든 사연에 대하여 말씀드리었다. 포탄에 맞지 않고 서있는 몇포기 안되는 오이를 살려내려고 밭에 널려있는 버짚나래를 주어다가 바자를 두르고 물을 주며 며칠사이에 큰 오이들을 따게 된 이야기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하는 김석중에게 이름도 물어보시고 군사복무경력도 물어보시며 대견해하시었다. 그이의 얼굴에 큰 일을 수행한 전사를 대하시는데 한 만족한 기쁨이 어리시었다.

《정성이면 돌우에 꽃을 피운다고 동무들의 성의

가 이 싸움판에서 희한한 오이랭국을 만들어냈구만. 참 훌륭하오.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올수 있는 동무들이요. 이 랭국을 먹으면서 우리 전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소.》

그 말씀을 들으며 곁에 서있던 최승규는 그만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머리를 푹 숙이였다. 입술을 꼭 깨물었다.

오이랭국이 당치 않다고?!... 오이랭국때문에 망신을 당할수 있단가?...

방망이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을 자기가 몰랐다는 강한 충격에 마음이 허둥지둥하였고 몸을 가눌수 없어 잠시 비칠거렸다.

그이께서는 불비쏟아지는 전선에서 이렇듯 시원한 오이랭국이며 생신한 도라지채를 전사들의 밥상에 올려놓은 그 마음이 기특하신듯 뜨거운 말씀을 이으시었다.

《나는 이곳에서 좋은 동무들을 만나게 된것이 기쁘오.

혁명동지들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동무들이요. 이런 훌륭한 동무들이 있기에 내 마음이 놓이오.》

최고사령관동지의 마음속에 정녕 어떤것이 간직되어 계시기에 그리도 하찮게 생각되던 사실을 보시고 더없이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는가.

최승규는 그날 그이의 말씀을 통하여 몇개 대학을 나온대도 다 알수 없는 귀중하고도 숭고한 인생철학을 배우게 되었다.

그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에게 뜻깊은 말씀을 해주시었다.

《동무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혁명의 길에 나선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인민대중을 위해서였소. 일체와 싸워 나라를 찾은것도... 또 지금 미제 침략자들과 피의 결사전을 벌리는것도 다 우리 인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요.

나는 어디에 가서든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해가는 이런 동무들을 만날 때가 제일기쁘오. 사람들의 눈에 띄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진심을 바쳐가는 이런 동무들이 있기에 우리 혁명대오는 언제나 용기백배하여 전진하고있습니다.》

누구나 범상히 보고 스쳐지나갈 한그릇의 랭국을 보시고 하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에 최승규의 모든 의혹이 풀리었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병사의 위훈은 어디에 있고 인간의 아름다운 면모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한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된 최승규였다.

아, 내가 얼마나 큰것을 모르고있었는가.

《이 기특한 동무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소. 귀중한 우리 전투원들을 친어머니심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이 동무들에게 나는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줍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을때 최승규는 그만 자신을 더는 견잡을수 없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감사?!...)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것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회오와 자책은 더욱 끓어번지였다. 아무리 입술을 꼭 깨물어도 터져오르는 격정과 오열을 참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하겠습니다!》

결에 서있는 김석중이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을렸을 때 그만 최승규는 흐흐-하고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그 흐느낌소리의 의미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주위에 있던 장령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전 때를 썼습시다.》

《?...》

《식당근무서는걸 하참게만 여기고... 김석중동지가 오이랭국을 하겠다고 하기에 막...》

《전투구분대에 가겠다고 막 때를 썼단 말이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승규의 앞으로 다가오시며 밝게 웃으시였다. 그러자 주위에 서있던 장령들이 그제야 말귀를 알아차리고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수 있지... 그래 지금 몇살이나? 오, 열여섯!... 나이를 속이고 군복을 입었구만. 그렇다... 음!》

그이께서는 친아버이가 되신듯 최승규의 어깨에 한손을 얹으시고 너그럽게 말씀하시였다.

《이름이 최승규라고 했지...》

《그렇습니다.》

최승규는 자기가 품었던 속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아뢰이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라시는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자신에 대하여 눈물을 머금고 뉘우치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애어린 전사인 그가 몹시 사랑스러우신듯 등을 다독여주시며 고무의 말씀을 해주시였다. 그러시고 병사들을 위해,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언제나 일생토록 최고사령관동지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최승규의 심장의 맹세였다.

그렇게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왔던 아득한 어제날의 한순간이었다.

지금도 그날의 감격은 귀밑머리가 희숙해진 어제날의 병사 최승규의 가슴에 느닷없이 찾아들곤 하였다.

최승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아버지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살리라 결심하였고 제대되어서는 애초의 희망을 바꾸어 수령님께서 근심하시는 식료가공부문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부터 이름없는 한 연구소에서 수십년... 그러나 오늘까지 이렇다하게 내놓을만 한 연구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래전 아버지수령님을 그토록 기쁘게 해드렸던 김석중은 그후에도 수령님께서 관심하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영웅이 되었고 이름을 날리었다.

그러나 최승규는 부러워만 하지 않았다. 이제는 생의 말년이라고도 할수 있는 기간이지만 량심을 바쳐 일하였고 그리하여 최근에 비록 큰것은 못되지만 고심의 열매를 거둘수 있게 되었던것이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연구성과를 아버지수령님께서 알게 되실줄 어이 알았으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무엇인가 쿵! 하고 가슴을 찡는것이 있었다.

아, 이제는 그전과도 같지 않으신 교령의 년세에... 아직도 수령님께서서는 오래전 그날 철다리침묵우로 차를 몰아 밤을 꼬박 밝히시며 전사들을 찾아 전선으로 달려오시였던 그 젊으신 시절처럼 일을 하고계시는구나! 오늘날 최승규의 평범한 연구성과를 어제날 오이랭국과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심히 스쳐보내지 않으신것이다.

나라의 정세가 복잡하고 엄청나게 큰 일감들이 천갈래만갈래로 밀려드는 속에서도 인민들의 복리와 련관되는 일은 아무리 작은것이라도 다 알아보고 소중히 가꿔가시는 아버지수령님! 이 땅에 펼쳐진 인민의 만복중 하나하나가 다 수령님께서 그렇게 마련해오신것이거늘 정녕 파란중첩한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아버지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인민의 행복은 이 밤의 현란한 불빛처럼 아름답고 황홀한것이였다.

×

화강석을 다듬어쌓은 넓은 돌층계를 최승규는 천천히 올랐다.

하늘은 맑게 열리고 끝없는 고요가 머리위에 흐르고있다.

그 고요속에 귀를 기울이였다.

어디선가 신비의 목소리가 들릴것만 같다.

주위는 따뜻한 해빛으로 가득찼고 폐부로는 달콤한 꽃향기가 서서히 젖어든다. 언덕우에 일매지게 펼쳐진 파란 잔디밭, 드문드문 서있는 기이한 형태의 의나무들... 누가 말했던가. 숭엄함과 아름다움의

절정이라고.

최승규는 한단한단 층계를 오르며 흘러간 10년 세월과 그 이전의 일을 회억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만나 보자 하셨다는 그 가슴벅찼던 감격, 세월이 가고 또 가도 그의 가슴속에서 그날의 그 충격과 그 행복감만은 가셔내지 못할것이다.

아득한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불구름피는 전쟁의 어느 한 고지에서 만나시였던 애어린 전사를 기억하시고 뜨거운 믿음의 말씀까지 주신 수령님의 그 다심한 은정을 가슴속에 피가 뛰는 한 어이 잊으랴. ...

최승규는 아버지수령님을 다시 만나뵙지 못하였다. 그가 이름할수 없는 그리움속에 기다리던 《래일》이 왔을 때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였던것이다.

지구가 자전운동을 멈춘듯 한 그 피눈물의 나날로부터 어언 10년 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최승규에게는 그 10년 세월의 하루하루가 그리움으로 바다를 안은 나날이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언제나 50년대의 그 뜨거운 여름날이 자리잡고있었다.

화염이 타래치고 물줄기가 마른 공기를 켜던 그 여름, 한그루 잔술마저 찍어버리려고 무수히 날던 류탄의 파편들... 하건만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습기가 충분한 수림에서 나무들이 우썩우썩 자라던 무성한 여름이었다.

그중의 한그루 갓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애어린 나무가 바로 자기 최승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엄혹한 시절 우리 인민군 전사들에게 사랑의 빛과 사랑의 열과 사랑의 자양을 한껏 부여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최승규를 만나보려던 그 마지막생의 순간에조차 인민경제 여러부문 일군들과 오래동안 협의회를 하시였고 해당 일군들도

따로 만나주시였다고 한다.

최승규자신에 대한 말씀도 또 계시였다고 한다. 전쟁때 만나본 동무인데 그때 그 동무는 한생 인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맹세한 동무라고, 그 맹세를 지켜 좋은것을 연구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는 것이다.

안팎의 정세가 것처럼 파도치는 속에서도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제일 중하게 여기시는분, 인민을 위한 마음을 이 세상 가장 값높은것으로 내세워주시던 아버지수령님이시다.

정녕 아버지수령님은 우리 인민이 추위와 눈보라에 부대끼세라 한생토록 빛과 뜨거운 열을 주시고 행복으로 무성한 수림을 가꾸어오신 만민의 은인이시다.

드디어 넓고 송엄한 교양마당에 다달은 최승규는 수령님의 동상앞에 경건히 섰다.

문득 시의 한구절이 떠오른다.

밟으신것은 백두의 용암대지  
손들어가리키심은 우주의 한끝  
...

조용히 귀를 기울이었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고운 목소리를 합쳐 《김일성 장군의노래》를 부른다.

최승규는 머리를 들었다.

매일과 같이 이 언덕에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이 흐른다.

최승규는 그중 하나의 《물방울》이었다.

그는 이윽도록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우려했다.

마음속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정적과 고요의 공간으로 울려 퍼진다.

《아버이수령님,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 명언해설

《수령이 위대하면 작은 나라도 위대한 시대사상의 조국으로, 사상의 강국, 정치대국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릴수 있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시대사상의 조국, 사상의 강국, 정치대국으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수령의 위대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수령이 위대하면 작은 나라도 위대하고 강한 나라로 된다. 수령의 위대성은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나라는 큰 나라는 아니지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휘황한 빛발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것으로 하여 사상의 강국, 정치대국으로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 《로천사무실》

아버이수령님께 훌륭한 집무실을 마련해드리려고 오래전부터 마음 써오시던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금수산의사당(당시)을 수령님께 지어드린것은 1970년대 중엽이었다.

이 이야기는 수령님께서 금수산의사당에서 집무를 보시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어느해 봄날에 있는 일이다.

동녘이 희붉히 밝아오는 이른 아침이었다.

이맘때이면 아버지수령님께서 금수산의사당의 정원길을 걸으시었다.

매일 이른 아침이면 산보를 하시는것이 장군님께서 제정해드린 수령님의 첫 일과였던것이다.

그이께서 뒤짐을 지시고 천천히 정원길을 따라 어느 나무밑을 걸으실 때였다.

갑자기 푸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가지에 앉았던 새 두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바람에 나무잎에 맺혔던 이슬방울들이 보석처럼 빛을 뿌리며 후드득 떨어졌다. 그 이슬들은 산책을 하시는 수령님의 어깨와 옷자락 그리고 얼굴에까지 떨어졌다.

《어, 시원하다. 정신이 번쩍 드는군.》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에 시선을 주시며 말씀하시던 그이께서는 뒤따라오는 책임서기에게 《산보는 이 재미에 한다니까.》 하시며 웃으시었다.

새들을 민망스럽게 생각했던 책임서기는 수령님께서 기뻐하시자 인차 마음이 즐거워졌다.

시원한 맑은 공기, 아름다운 새소리, 향기로운 꽃내와 싱그러운 숲냄새, 나무가지의 설레임소리...

그이의 앞에 펼쳐지는 자연의 온갖 생동한 화폭들은 그야말로 신비경이었다.

수령님께서 만면에 부드러운 미소를 담으시고 자연이 안겨주는 이 신비한 정서에 한껏 취해계시었다.

책임서기는 만족해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몇발 자국뒤에 떨어져 조용히 걸었다.

이때 누가 등뒤에서 그의 팔소매를 건드렸다.

돌아보니 문건을 손에 든 경제부문의 한 일군이 미안한 표정을 짓고 귀속말로 간청하는것이였다.

《수령님께 급히 보고드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니다.》

책임서기는 하는수없이 수령님께 사연을 보고드렸다.

그이께서는 쾌히 일군을 만나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즉석에서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그 일군은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갔다.

수령님께서 뒤짐을 지시고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다.

그런데 이때 또 외교사업을 보는 일군이 급한 걸

음으로 다가왔다.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 나라의 한 대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수령님께서 꼭 결론하셔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일인즉 난감하기 그지 없었다.

방금 있는 일만 해도 죄송하기 그지 없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망설이였다.

사색에 잠기시여 조용히 걸음을 옮기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문득 뒤로 돌아서시었다.

《아, 동무요? 어떻게 왔소? 무슨 일이 제기되었소?》

그 일군은 수령님께서 반색을 하며 웃으시자 미안한 표정을 짓고 찾아오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었다.

순간에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신 수령님께서 외교사업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될 말씀을 주시며 즉시 취해야 할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수령님께서 그 일군과 인사를 나누시고 헤어졌을 때는 동녘에 피어오른 아침노을이 대동강을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결국 이날 산보는 그렇게 끝나고말았다.

다음날 이른 아침이였다.

이날도 아버지수령님께서 일과대로 산보를 하시었다. 그이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시며 잠시나마 만시름을 놓으시고 피로를 푸신다고 생각하니 책임서기는 더없이 기뻐다.

(오늘은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는 이런 시간이 오래동안 계속되기를 진정으로 바랐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에 불과하였다. 또 한 군사일군이 찾아왔던것이다.

그 일군이 나타났다는것은 적들의 책동과 관련되는 중대한 일이 생겼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책임서기는 그 일군이 들고 온 문건을 수령님께 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산책하던 걸음을 멈추시고 문건을 받아보신 그이께서는 군사일군을 가까이에서 있는 나무결상으로 이끄시었다.

수령님께서 그 일군과 오랜 시간 담화를 하시었다.

결국 이날 산보도 군사일군과의 사업토의로 중동무이되고말았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수령님의 산보는 여전히 이런식으로 진행되였다. 책임서기의 마음은 안타깝기만하였다.

(수령님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보살펴드려야 할 내가 제 구실을 못하니...)

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자책으로 모태기고있는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수화기를 드니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리었다.

《책임서기동무입니까?》

《예.》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어떻게 되어 요즘 <로천사무실>이 생겼습니까?》

장군님의 목소리는 격하신듯 하였다.

(《로천사무실》이라니?).

그는 장군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똑똑히 알수 없어 머뭇거리고있었다.

《금수산의사당 정원에 <로천사무실> 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로천사무실》이라는 귀에 선 표현을 처음 들은 그는 어리둥절하였다가 인차 뜻을 깨닫고는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화끈 달아올랐다. 동안이 지나 장군님의 말씀이 계속 울리었다.

《수령님께서 산보하시는 시간에 왜 자꾸 사업문제를 제기합니까?》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 걱정하시게 하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그즈음 산보길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죄다 말씀드렸다. 그의 말을 끝까지 다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이미 다 알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지금은 수령님께서 매일아침 일군들을 만나시는데 그것은 산보가 아니라 정식 사업하시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집무실이 정원으로 옮겨진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수령님께서 산보시간마저 편히 쉬지 못하시니 참 야단입니다.》 그는 무어라 말씀드렸으면 좋을지 몰랐다.

잠시 마음을 다잡고난 그는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올렸다.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에 있을수 있는 정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짜고들지 못하다나니 이렇게 걱정을 하시게 하였습니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그를 따듯이 일깨워주시었다.

《산보는 수령님의 하루일과에서 레외로 될수 없는 일입니다. 이른 아침 즐거운 기분으로 산보를 하고나면 그날은 온종일 마음이 흥겹고 양기가 솟고 아무리 일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정서를 감미하며 산책한다는것은 심신을 맑게 하고 정신적 피로를 깨끗이 가서줄뿐아니라 마음을 경쾌하게 하고 의욕이 북받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령님의 산보에 대해 깊이 관심하고있습니다. 동무는 제기되는 문제들이 당사업과 국가사업에서 극히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젠가도 말했지만 제기된 문제가 설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수령님의 건강에는 비길수 없습니다.》

그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위대한 태양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일하면서도 태양의 귀중함을 잊고있는

자신을 질책하지 않을수 없었다.

수화기로도 그의 심정을 환히 헤아리신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건강을 보장해드리는데는 당성중의 최고당성이고 혁명성중의 최고의 혁명성이며 의리중의 최고의리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었다.

《수령님께서 건강하셔야 혁명도 당도 있는것이고 우리 조국도 나라의 번영도 있는것입니다.》

그러시고는 우리가 전사의 의리를 다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해드려야 한다, 산보도 그 중요한 고리이라고 거듭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부담을 덜어드리자면 제기되는 문제를 종합하여 보고드리되 특별한 경우에만 직접 보고하는 제도를 세우도록 하라고 이르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러시고도 마음 놓이지 않으시여 불의의 정황에서도 양보함이 없이 수령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사전연구를 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었다.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그대로 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동무를 믿습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나니 그는 눈앞이 환해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다.

그러면서도 그의 머리 한구석엔 어떻게 장군님께서서 수령님의 산보시간에 있는 일에 대해 죄다 낱알이 알고계실가 하는 의문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날부터 수령님의 산보시간에는 그 누구도 열썬하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상쾌하신 기분으로 산보를 하시고 늘 만족하신 기분으로 일에 착수하군 하시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날 아침이었다.

그날도 정원에서 산보를 하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의아한 시선으로 책임서기를 바라보시었다.

《왜 요즘엔 사람들이 보이지 않소?》

뜻밖의 물으심에 그는 선뜻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다.

《산보할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니 요즘은 별일이군...》

그이께서는 혼자말처럼 외우시었다.

책임서기는 장군님께서서 수령님의 산보를 보장해드리는 문제를 두고 지적이 계신데 대하여 그이께서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김정일** 동지가 산보시간에 일군들을 오지 말라고 했던 말이지요?》

《예, <로천사무실> 이 됐다고 나무람하셨습니다.》

《<로천사무실!> 하하하.》

수령님께서서는 소리를 내어 크게 웃으시었다.

《<로천사무실> 이라... 하기가 그 말이 맞지.

**김정일** 동지가 그런걸 다 생각했구만.》

그이께서는 무한한 감동에 휩싸여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새소리, 물소리, 나무가지의 설렘소리는 동터오는 새날과 더불어 기쁨과 행복을 더해 주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봄정기가 완연한 새벽경치에 한껏 잠기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만족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보약이 있다해도 저 새소리, 이 맑은 공기에 비기겠소? 내 건강은 순 **김정일** 동지의 덕이요. 그의 덕이구말구.》

그이께서는 다시금 뒤짐을 지시었다. 그러시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나를 위해주는 **김정일** 동지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일을 더해야 하오. 그렇지 않소? 책임서기동무, 그러니 산보시간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막지 말라구. **김정일** 동지가 밤을 새우며 자지 않고 일을 하는데 설사 그의 몸이 무쇠라 해도 어떻게 견디겠소. 과중한 그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내가 한 가지라도 일을 더해야 하오.》

《수령님, 그것만은 절대로 안됩니다.》

책임서기는 간청어린 목소리로 절절하게 말씀드렸다.

《동무는 나와 같이 오래동안 일한 사람인데 왜 내심정을 돌려주오,》

수령님께서는 안타까우신듯 마지막어조를 좀 높였다.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다.

정원에 내려앉은 안개는 얼마나 짙은지 불과 몇미터앞도 내다보이지 않았다. 산보를 하시는 수령님의 발치엔 안개가 칭칭 감기여 돌아갔다. 마치도 수령님께서 구름우를 걸으시는듯 싶었다. 이때 뒤쪽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수령님의 뒤를 따라 걷던 책임서기는 인기척을 느끼고 머리를 돌리었다.

안개속에서 불쑥 한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과학연구기관의 한 책임일군이였다.

《동무는 어떻게 왔소?》

놀란 책임서기는 조용히 물었으나 말투는 저도 모르게 곱지 않았다.

당황해진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시여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수령님께서 부르시다니?》

책임서기의 말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신 수령님께서는 《오, 인제야 왔소? 책임서기동무, 저 동무는 내가 찾아서 왔소.》 하시며 그를 가까이 오라고 하시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그 일군과 함께 오래동안 우리 나라 과학연구사업에 대하여 진지하게 담화를 나누시었다.

이날 산보는 그 일군과의 담화로 시작되고 그것으로 끝났다.

다음날도 그이께서는 또 일군들을 부르시었다.

책임서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안절부절 하였다.

그 다음날엔 한사람이 아니라 무려 일곱명의 일군들이 한꺼번에 찾아왔다. 그들도 수령님께서 부르신것이다.

그이께서는 찾아온 일군들과 함께 정원길을 걸으시다 그들을 어느 큰 나무밑에 있는 결상에 빙 둘러앉히시고 사업토의를 하시었다. 일군들에게서 보고도 받으시고 결론도 하시고 과업도 주시었다. 말그대로 《로천사무실》이였다.

마음을 쓰며 안타깝게 시계만 자주 들여다보던 책임서기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둔중한 우뢰소리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랬더니 하늘엔 먹장구름이 꾸역꾸역 밀려들고 있었다. 금시 한소나기 퍼부으려는듯 대동강 건너편에선 번개가 일고 뒤따라 우뢰소리가 울렸다. 이때 정원의 나무가지에서 새 두마리가 하늘공중으로 날아올라갔다. 언젠가 정원에서 본 그 새였다. 구름은 대성산쪽에도 그리고 보통강쪽에도 뒤덮였다.

그런데 유독 금수산지구의 하늘에만은 파아란 하늘이 보이고 찬란한 해빛이 내리비치고있었다. 그 해빛속으로 두마리의 새가 가로세로 날아왔다. 그러나 점점 좁혀드는 구름들이 인차 금수산지구의 하늘도 뒤덮을것은 불보듯 자명한것이요. 그러면 여기에도 비가 쏟아질것은 분명하였다.

벌써 대성산너머엔 비가 오는지 쑈-하는 소리가 불어오는 녹녹한 바람에 실려왔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해있던 책임서기는 드디어 결심을 품은듯 그이께로 다가갔다.

《수령님, 당장 비가 올것 같습니다. 집무실로 들어가셔야겠습니다.》

그의 말에 수령님께서는 하늘을 얼핏 올려다보시더니 별일 없다는듯 사업토의를 계속하시었다.

여기저기서 번개가 일고 천둥소리가 울리었다. 그러거나말거나 그이께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시는지 여전히 사업토의에만 열중하시었다.

그러다나니 어느덧 시간은 흘러 10시가 가까와왔다.

이날 산보는 사업으로 곧바로 이어졌다. 그러니 또 이른 아침부터 집무를 시작하신것이다. 하지만 이상한것은 주변엔 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금수산의사당 정원에만 비가 오지 않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 산보를, 아니 사업토의를 끝마치신 다음 일군들을 돌려보내고 집무실에 들어서신후에야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책임서기는 창밖을 내다보며 《로천사무실!》하고 새삼스럽게 외워보았다.

《수령님, 정말 신기합니다. 사업토의가 끝나니 비가 내립니다.》

《신기할게 있소? **김정일** 동지가 <로천사무실>이라고 말하지 않았소. 사무실이야 비가 오는 법이없



지. 하하하.》

수령님께서는 기쁘신듯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이께서 사업토의를 하시는 기간 금수산의사당 정원은 네벽에 둘러싸여있고 지붕이 없혀있는것처럼 비가 한방울도 내리지 않았으니 그이의 말씀대로 《로천사무실》이 틀림없었다.

이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책임서기에께서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하늘도 우리 수령님을 알아보는것 같습니다.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시며 눈비를 많이 맞으신분은 세상에 없을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수령님께서 백두산시절부터 눈비를 많이 맞으셨는데 광복후에 더는 눈비를 맞지 않게 하시기 위해 늘 우산을 가지고 다니시며 받쳐드리곤 하시였습니다. 그러면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눈비를 암만이고 맞아도 좋다고 하시면서 우산을 거두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니 하늘도 수령님 맞으신 눈비가 너무도 많아서 그이께서 계시는 의사당정원에만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한것 같습니다. 하늘도 수령님을 돕는것이 분명합니다. 그이의 인품에 감동되어 하늘이 움직인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건강은 하늘의 뜻

이니 앞으로 그이를 더 잘 모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그후에도 수령님의 산보시간에 일군들의 발길은 끊기지 않았다.

그러니 수령님께서는 생의 마지막까지 순간의 휴식도 못하신것이다.

책임서기는 한생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그 어느것 하나 빼놓지 않고 드팀없이 관철했으나 수령님의 산보시간만은 끝내 보장해드리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두마리의 새에 대해 신비성을 부여하고있다. 그들은 그 새들이 하늘나라 전령인데 금수산의사당 정원에서 산보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는 인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늘나라에 속속들이 다 전해주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수령님께서 정원에 나오시여 산보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면 절대로 비가 오지 많았다고...

그렇다, 민심이 천심임은 틀림없다.

김우경

## 혁명일화

## 재 간

재간이란 이러저러한 활동을 성과적으로 할수 있는 재능이나 솜씨를 이르는 말로서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

글을 잘 쓰면 글쓰는 재간,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그리는 재간, 가구같은것을 잘 만들면 목수재간이 있다고 한다.

주체90(2001)년 6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한 부대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두번째로 보시면서 글을 쓰는 작가들의 재간과 관련된 새로운 해명을 하여주시었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되면 거기에 바쳐진 창작가들의 수고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려주시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통하여 이곳부대 한 창작가가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동원되어 작품도 쓰고 연출도 동시에 하였다는것을 아시고 그가 재간이 있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전에 군인가족예술소

조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어느 한 실화극과 극이야기도 그가 썼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작품은 인민군대작가들속에서만 나올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거듭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머리가 정돈되지 못하고 잡사상에 오염된 사람들은 아무리 재간이 좋아도 군인들과 인민들을 교양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작품들을 써낼수 없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태양의 빛발이 있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듯이 그이께서 명작창작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여 작가들의 재간도 훌륭히 발휘될수 있다는것을 더더욱 깊이 느끼었다.

박봉운

## 전설은 계속된다

김우경

얼마전 현지에 있는 창작실로 눈섭이며 머리칼이 온통 은가루를 쓴듯 새하얀 백발의 한 로인이 찾아왔다.

내가 정리한 전설들에 가끔 나오곤 하는 하늘나라 신선과 흡사한 그 로인은 나를 보자 반색을 하며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작가선생! 그동안 잘있었수?》

인사하는 품으로 보아 초면이 아닌것 같은데 나는 통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디서 만났던 로인인가?

혁명전설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안가본 고장이 거의 없었어서 내가 취재길에서 만난 사람은 수백수천을 헤아린다. 그러니 가끔 이런 곤경에 빠지는 때가 드문한것이다.

로인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얼떠름해있는 나에게 그는 결절한 목소리로 마치 엇그제 만났던 사람인양 흔연히 이렇게 말하였다.

《날 모르겠수? 아니, 사득촌의 박령감을 모르겠단말이우?》

그제사 나는 그 로인이 누구인지 알고 환성을 질렀다.

《이거 참 몇년만입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만 못알아보았습니다.》

《하긴 오랜 세월이 흘렀지요.》

옛일을 추억하는지 박로인의 눈가엔 추연한 빛이 어리였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흐름에 대한 감각이 뜸 법이다.

내가 박로인을 만난것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두번이나 지나간 20여년전인데 그는 불과 몇년 전 일로 생각하고있었던 모양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1980년대초 어느날 우리작가들에게 백두산전설을 발굴정리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신 직후 내가 인차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들에 갔을 때 풍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광복전 백두산포수였던 이 박로인이었다.

그때로부터 20여년, 부지중 나도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그때 30대 말이었던 나도 지금 60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그 시절 박로인의 나이도 70이 넘었었으니 지금은 아마 90이 넘었을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얼굴엔 혈색이 돌고 두눈은 젊은이들처럼 초롱초롱하니 박로인은 말그대로 홍안백발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밤을 새워가며 우리 인민들속에 퍼져 있던 백두산전설들을 들려주었었다. 그 전설들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되어 《백두산전설집》 1권과 2권에 발표되었었다.

나는 박로인의 느닷없는 출현에 반가움과 함께 놀라움이 컸다.

《로인님, 그런데 무슨 일로 그 먼데서 힘든 걸음을 하셨습니까?》

자리를 권하며 내가 묻는 말이였다.

《내 얼마전에 증손자녀석들과 함께 텔레비존을 보느라니 아, 글썄 작가선생이 나오지 않겠소. 우리 수령님에 대한 전설이야기를 합니다. 내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그 녀석들에게 저 작가선생이 말하는 전설은 내가 들려준 이야기라고 자랑했더니 어디 믿어야 말이지요.》

그럼 내 이제 당장 평양가서 저 작가선생을 만나고 올테니 봐라하고 큰소리를 쳤지요. 그런데 내가 길을 떠나려하니 로친이 못가게 합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늘그막에 로망하지 않았나 하면서 말이우다. 예로부터 장부일언이 중천금이라 했거늘 내 아무리 늙었기로서니 애들앞에 헛말을 하면 되겠소? 허허허.》

박로인은 위엄있게 수염발을 내리쏘었다.

그러니 이 박로인은 증손자들앞에서 한 호언장담 때문에 90을 넘긴 고령의 그 나이에 이렇듯 먼 길을 왔단 말인가?!

선뜻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과시 소시적에 호랑이를 잡아메쳤다는 박포수다운 담박한 결단이고 의기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었다.

《로인님, 그럼 정리된 <백두산전설집> 들을 올릴테니 증손자들에게 가져다주십시오. 작가선생이 준책이라고 자랑하면서 말입니다.》

《고맙쎄다. 늙으면 아이가 된다는 말 그른데가 없수다. 내 이 책을 가져다가 증손자녀석들한테 자랑을 하겠수다.》

박로인의 눈은 감동의 빛으로 그윽했다.

《그렇다고 작가선생, 내 뭐 그런 자랑을 하고싶어 불원천리 선생을 찾아온건 아니웨다. ... 실은 이걸 작가선생에게 주려고...》

《?!...》

박로인은 가지고 온 밤색멜가방을 열더니 그안에

서 종이에 쓴 꾸레미 하나를 꺼내었다.

《옛수다.》하며 박로인이 건네주는 꾸레미를 받  
아든 나는 부쩍 호기심이 동하여 그 자리에서 풀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안에 또 흰종이로 싸여있었다.

이런것을 세겹이나 푸니 두툼한 학습장 한권이  
나왔다. 무슨 학습장이길래 이처럼 귀히 썼을가?

나는 의아한 눈으로 로인을 마주보았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건 내가 알고있는 수령  
님에 대한 전설들을 적어놓은 책이웨다. 우리 수령  
님께서 서거하신지 10년이 되어오니 그리운 마음  
이 자꾸만 간절해져서 사람들속에서 돌고있는 이야  
기들을 한자한자 적어놓은거웨다. 식자가 없는 내  
가 뭐 변변히 썼겠수. 허지만 내가 들은 이야기들을  
자그마한 일까지 속속들이 다 적어놓느라고 했체다.  
선생한테 무슨 도움이 되거나 하겠는지...》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이 책때문에, 결국 이것을 나에게 가져다주려고  
고령의 몸으로 그 먼곳에서 찾아왔단 말인가?

그 책을 받아든 나의 심장은 강한 충격으로 하여  
세차게 뛴뛰었고 가슴이 뻘근해났다.

나에겐 불보다 뜨겁고 금은보석보다 더 귀중한  
순결한 로인의 마음이 응축되어있는 그 책이 억만  
근으로 느껴졌다.

저도 모르게 목이 팍 메고 두눈엔 눈물이 핑 돌  
았다.

더없이 고맙고 훌륭한 로인, 나는 사뭇 경건한 마  
음으로 정중히 책장을 한장한장 번지었다.

했으나 나의 눈엔 좀처럼 글줄이 보이지 않았다.  
섬광과도 같은 그 어떤 강렬한 빛을 마주하고 앉은  
듯 눈을 습벅이며 애써 글줄을 따라읽는 나의 마음  
은 숙연해졌다.

《로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전설들을 수집하  
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수고야 무슨 수고겠소. 위인전설들을 사실 그대  
로 죄다 적어놓는것이 우리 백성의 도리가 아니웨  
까.》

박로인은 겸양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백두산전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생동한 실록인 동시에 그이의 위  
대한 생애를 격조높이 레찬한 수령송가문학으로 래  
여났다.

이 백두산전설을 통해 포악한 강도일제의 발굽에  
짓밟혀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더잘 알게 되었고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는 혁명전설들을 창조하면서  
민족재생의 영광스럽고도 피어린 길을 헤쳐왔으며  
단군 이래 처음으로 되는 민족사적번영과 통성의 새

시대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현대력사는 백두산전설과  
함께 흘러왔다고 할수 있다.

백두산전설은 암흑과 도란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  
에게 정신적양양과 성장을 안겨준 자양으로 되었고  
사그라져가던 민족의 넋에 활력과 생기의 불꽃을  
지켜주었다.

다름아닌 이 전설로 정화되고 세련된 우리 인민  
의 강의한 정신이야말로 고난과 시련의 시기에 발  
양되었던 백절불굴의 기개와 간고분투의 의지와 완  
강한 철의 인내가 싹터자란 토양이 아니겠는가.

백두산전설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일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빛나는 력사이고 숨  
결이고 영웅적감정으로서 세기를 이어 내려치는 기  
상의 원천이며 무궁무진한 열정의 근원이라고 생각  
한다.

이런 박로인과 같은 인민이 있어 오늘 백두산전  
설은 수령영생문학으로 꽃피어 나날이 풍만해지고  
있는것이다...

《작가선생, 수령님께서 우리결을 떠나셨지만 우  
리 인민의 마음속엔 언제나 수령님에 대한 생각뿐  
이우다. 우리 수령님은 5천년력사국이 떠받들어올  
린 전설적위인이시구나 하는 생각은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지지요.

그래서 내 이렇게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  
나하나 적어놓은것이웨다. 꿈속에서도 수령님을 그  
리는 그 마음으로 말이웨다.》

열정에 넘쳐 토로하는 박로인의 그 순박한 진정  
과 함께 나의 심장도 쿵쿵 뛴뛰었다.

나의 눈앞엔 불현듯 수많은 낮익은 얼굴들이 떠  
올랐다. 취재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였다.

조국의 북단, 선봉군 우암리에서 만났던 80이 넘  
는다던 정씨할머니- 그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고  
개를 세게나 넘어 우리 수령님에 대한 전설을 들려  
주기 위해 내가 들어있는 숙소로 찾아왔었다.

묘향산에서 만난 보현사의 주지인 최선사- 그도  
건강이 좋지 못했으나 우리 수령님에 대한 전설들  
이 깃들어있는 묘향산의 명소들에 나를 안내하여  
수십일동안이나 같이 다녔었다.

인적없는 깊은 산속에서 바위를 타고넘다가 떨어  
져 그가 발을 상한 그날, 그를 부축하여 겨우 보현  
사로 돌아오니 자정이 훨씬 넘었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수령님에 대한 전설을 많이 들려주었다는  
자긍심에 넘쳐 조금도 힘든 빛을 나타내지 않았다.

어찌 이들뿐이라. 인민군장병들을 만나도 공장과  
농촌, 그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백두산전설이야기  
를 들려주었다.

이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어버이수령

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차넘치는 주옥같은 위인  
칭송의 혁명전설들이었다.

이 박로인과 같은 수많은 구술자들의 마음은 그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 소행은 세찬 불길속에서  
목숨바쳐 구호나무를 지켜낸 영웅적인 투쟁이나  
풍랑을 만난 배에서 자기들의 생명보다도 어버이수  
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부터 먼저 안전하게  
보위한 그들의 충성심과 맞먹는 그런 헌신성이고  
흠모심인것이다.

《작가선생, 백두산이 영원히 솟아있듯이 백두산  
전설도 영원히 계속될것인즉 건강한 몸으로 더 많  
은 전설들을 책으로 만들어주시우다.》

나는 박로인의 그 책이 천만군처럼 무겁게 느껴  
졌다.

그렇다. 백두산전설- 이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높이 솟아 빛나는 녀의 백두산, 신념의 백두산, 백  
두산위인전설이다.

백두산전설은 계속될것이다.

수령님을 끝없이 그리고 따르며 낮이나 밤이나  
영생실록을 엮어나가는 우리 인민은 주옥같은 혁명  
전설들을 더 많이 창조할것이다.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계  
속되고있으며 래일도 대대손손 끝없이 창조될 혁명  
전설과 더불어 영원히 흐를것이다.

## 영원한 사랑의 품

### 림공식

누구나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  
누구나 수령님을 모시고 산 그날처럼 목메어  
말한다

아, 영원한 사랑의 품에 사는  
자신의 복된 삶을 두고-

쇠물이 끓는 로앞에 서면  
용해공의 땀젖은 손을 잡아주시던  
수령님의 그 손길이 어려와  
그 사랑을 두고 해빛을 두고  
오늘도 가슴뜨거이 말한다

매미소리 정다운 먼 두메산촌을 찾아오시여  
우리 수령님 허물없이 명석우에서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흙물배인 손을 마주잡아주시던  
어버이 그 사랑을  
오늘도 못잊는 마음들

아, 그 사랑은 해빛이런가  
전선에서 남편을 잃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많던  
녀인의 가슴에도 따스히 흘러들고  
그 집에 들리시여  
밥가마뚜껑도 손수 열어보시던  
그 인자한 모습은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진 어버이모습

품어주고 보살펴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  
나의 삶은  
조국이 어려운 날에도  
이 세상 부러움모르는 행복만을 누렸나니

세월과 세월을 넘어  
꿈과 같이 흐르고 흐르는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에 사는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는  
나의 집 창문이여

아 우리 수령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영생하시는 태양  
그 품에 운명의 피줄을 이은  
천만인민이 떨어져선 못살 어버이의 품

그래서 나는 말하노라  
우리 수령님의 그 품은  
인민이 무궁토록 안겨살 이 땅, 이 하늘  
내 한생 길이 받들  
영원한 사랑의 품, 사회주의 내 조국이라고

## 전설적위인에 대한 전인민적격찬

-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2)을 읽고-

천재규

인류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천만뜻밖에 잃은 온 나라, 온 겨레가 비애의 곡성, 상실의 아픔속에 오열을 터치던 때로부터 10년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짧지 않은 그 나날 얼마나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워했으면 꿈결에 그이를 만나뵙고 꿈과 생시를 분간할 새도 없이 달려간 안개건지는 감자밭에서 현지도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은 전설이 생겨났으랴!

정녕 지난 10년간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이룩하신 업적이 너무도 위대하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쏟아부으신 사랑이 너무도 크시여 우리모두 그 업적, 그 사랑을 가슴속차게 절감하였고 온 나라에 그리움의 대하가 굽이쳐흐른 못잇을 력사의 날과 날이었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워하며 그이의 영생을 바라는 온 겨레와 세계진보적인류의 의지와 감정은 그대로 천심이 되어 헤아릴수 없이 많은 위인전설을 낳고 있는것이라.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2)이 바로 그 일단을 말해준다.

### 시대의 요구와 혁명전설

신화에 이어 고대로부터 수천년세월 줄기차게 발전하여온 전설은 인민구전문학의 주되는 형태를 이루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문화정서생활의 위력한 수단으로 복무하여왔다.

문자가 없던 시기부터 창조전승되기 시작한 전설은 구전문학의 한 형태로서 그 발전력사가 유구할 뿐아니라 오늘날에도 시대와 더불어 자기의 사상정서적감화력을 높여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해방전에 인민들속에서 창조전승되여온 장군님에 대한 혁명전설은 수령형상에 바쳐진 혁명문화건설의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전설은 그의 특징으로 보아 건국전설로부터 인물전설, 사연전설, 유래전설 등 다양한 양식으로 세분화되면서 발전하여왔다.

주체문학사의 새로운 장을 열던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문학에서도 전설은 수령형상문학창조에 적극적인 기여를 한 문학형태로,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혁명문학형태로 발전하였다. 최근년간에 발굴정리되어 련속 출판되고있는 백두산3대장군에

대한 혁명전설들이 그것을 잘 실증하여준다.

언어예술인 문학은 현대에 와서 서사어를 기본표현수단으로 발전하고있지만 전설만은 여전히 구두어로 창조되어 력사주의원칙과 시대적미감에 맞게 서사어로 정착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것은 전설의 고유한 속성, 특히는 시대적혁신성과 관련된 전승방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수천년력사를 가진 전설이 혁명전설, 주로는 위인전설(인물전설)로 급격한 발전을 이룬것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오늘의 자랑스런 사회현실,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도도한 흐름을 이루는 시대적지향, 수령형상을 기본으로 하는 주체문화건설방향과 관련된 필연적인 문학적현상이다.

혁명전설에 전승된 전설의 고유한 속성은 신비성이다. 력사적사건이나 사실, 뛰여났거나 깊은 사연을 안은 인물들, 인간의 창조물이나 자연지리적대상의 유래 등에 대한 범상치 않은 이야기가 전설이다.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신비성이 깔려있다.

혁명전설에서 신비성은 전설적위인인 수령의 위대성에 그 바탕을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남다른 감명을 준다.

위인은 신비성을 낳기 마련이다. 그 신비성은 평범한것에서 비범한것을 발견하고 실천하는데 있다.

《상에는 대장부도 호걸도 많았고 영웅도 명장도 많았다. 허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처럼 10대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청년시절에 횡포무도한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였으며 인류사상사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자주를 갈망하는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신 그렇듯 위대한 업적을 쌓으신 위인은 이 세상에 일찌기 없었다. 그야말로 어버이수령님은 세계가 한결같이 우리러 칭송하는 전설적위인이시다.

위인이 있어 위인전설이 태어난다.

위인전설은 그의 생리에 맞는 형상원리가 있어야 한다.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2)은 이 형상적요구를 잘 보여준다.

오늘의 자주시대전설, 특히 위인과 관련된 혁명전설의 기본특성, 혁신적측면은 환상을 《예술창조적기초(특성)》로가 아니라 내용측면에서는 위인의 위대성이며 형상화의 측면에서는 사실성에 기초한 실재적신비성이다. 환상을 리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다는데 선행한 전설과의 본질적차이가 있다. 그것은 금수산기념궁전전설의 창조경험이 잘 말해준다.

## 민족의 격찬, 만민의 칭송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2)에 실린 31편의 전설속에는 세계가 한결같이 우러르며 칭송하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 수령님과 우리 인민, 수령님과 세계진보적인류간에 맺어진 가지가지 사연들이 다 담겨져있다. 신비할 정도로 매혹을 주는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왔으며 그것으로 하여 주체조선의 기상 조선인민의 존엄과 정신력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그리고 오늘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전설적위인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따라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전도는 얼마나 양양한것인가를 가슴뿌듯이 느끼게 한다.

이 전설집이 주는 귀중한 의의는 민족사와 인류사회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인은 전설속에서도 인민들의 가슴속에 한없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그들을 자주위업수행으로 힘있게 떠밀어 주고있다는것이다.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2)에서는 우선 우리 인민이 하늘처럼 믿고살던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민족의 슬픔, 인류의 비애가 진한 눈물이 되어 작품집의 갈피갈피에 흐른다.

전설 《금수산의 천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못잇을 그 새벽 번개와 우뢰가 야단스러운 가운데 대줄기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고 세찬 바람에 길가의 나무가 태절 한 범상치 않은 자연현상을 통하여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을 전하고있는 작품이다.

전설에서는 《하늘이 낸 위인이어서 그이의 서거를 하늘이 먼저 알고 그처럼 몸부림치며 슬픔을 토했는가!》고 주정을 터치고있다.

이튿날 낮 12시 청천벽력의 비보가 중대보도로 알려지자 또다시 금수산마루에서는 번개가 일고 우뢰가 울면서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졌다.

어쩐지 수령님생각이 간절하여 전날 새벽부터 잠 못이루던 칠순을 바라보는 한 녀성은 곡성을 터친다.

《하늘아! 번개를 치고 천둥을 울어라.

우리 수령님께서 깨어나시게 우뢰소리를 더 크게 울리거라! 더 크게 천둥을 울어라!》 이것은 그대로 민족의 곡성이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환상도 과장도 없다. 너무도 충격적인 사변과 몸부림치는 자연현상이 일치하기에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구분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특이한 자연현상이라도 실재한 사실이어서 그저 현실로 믿을뿐이다. 어버이를 잃은 철통한 심증을 대변하여주기에...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지 나흘째되는 날 저녁 희망을 상징하는 새별과 작별과 슬픔을 상징하는 초생달이 합친 자연현상에 의거하여 《어버이수령님을 잃으신 가슴터지는 슬픔이 너무도 커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저렇게 초생달과 함께 밤

하늘의 새별이 되어 나오신것만》 같다는 사연을 전하는 전설 《새별과 달이 합치다》를 비롯하여 《울음홀》, 《빛을 잃은 해와 달》 등도 같은 주제적과제를 해명하고있다. 다른 주제의 전설들에서도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전설들에서 슬픔의 호소가 크면 클수록 우리 수령님은 민족의 어버이이시고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영원히 간직되리라는 생활의 진리를 절절히 새겨안게 한다. 인민의 가슴속에서 슬픔의 격랑이 고래치는 것은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귀중한 철리를 밝힌데 금수산기념궁전전설들이 가지는 형상적의의 하나가 있다.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2)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과 예지로 빛나는 령도의 현명성을 감명깊게 이야기하는 전설들이 적지 않게 실려있다. 그 가운데서도 전설 《토기마을전설》, 《영원히 풀수 없는 수수께끼(2)》 등은 단편적인 이야기에서 인민의 수령, 탁월한 군사가로서의 어버이수령님의 특출한 위인상을 실감있는 형상으로 인상깊게 보여 준다.

전설 《토기마을전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은파군 초구리에 있는 토기마을에 찾아오시여 앞으로 큰물이 나면 마을이 피해를 입을수 있으니 산기슭으로 옮기라고 가르치심을 주신 때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주체84(1995)년 여름에 무서운 홍수가 나서 100여채의 살림집이 있던 마을자리를 형체없이 쓸어갔다는 이야기를 기본줄거리로 하고있다.

이 전설은 천문지리나 천기에도 예지로우시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지니신 인민의 어버이이시기에 30년후에 닥쳐올 대홍수의 무서운 재난도 미리 막아주시였다는 뜻깊은 사상을 밝혀주고있다.

실재한 사실인것으로 하여 실화성이 강하면서도 신비한 이야기로 널리 전해지고있는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를 전하여주는 전설 《영원히 풀수 없는 수수께끼(2)》는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소부대활동으로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준비해가고있던 1940년대 초에 있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황구령치기부근에서 활동하던 사령부소부대는 변절자의 밀고로 적들의 물샐틈없는 은밀한 포위진에 걸려들게 된다.

총탄이 비발치듯 날아드는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두 나를 따르라!》고 웨치며 내달리시였다. 거기는 적들의 총성이 가장 요란하고 화력이 집중되어있는 곳이었다.

소부대성원들은 사령관동지를 따라 달렸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한명의 부상자도 없이 포위망을 너무도 쉽게 벗어난것이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부대가 빠진 그곳이 총소리만 요란하였지 적들이 얼마 없는 공간구역이라는것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대단한 용단을 내리셨던것이다.

이러한 내막을 두고 전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술로 신빙성을 더해준다.

《리해할수 없는 일에는 억측이 생기고 그것은 환상을 낳기마련이다. 수령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무비의 담력은 우리의 상상이 가닿지 못하는 높은 경지에서 전설로밖에 더 설명할수 없는것이다.》

전설 《장군님께서 여신 문》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토지정리와 농촌기계화를 실현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뒤떨어졌던 우리 농촌을 살기좋은 곳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령도업적을 전하는 작품이다.

혁명전설의 발굴정리에서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업적에 깊은 관심을 돌린것은 수천년력사에서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맞이한 령도의 거장, 세계정치원로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전설에 사실 그대로 옮기려는 옳은 창조적자세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앞으로도 적극 장려되어야 할것이다.

혁명과 전설을 이끌어나가는 수령은 우선 령도에서 위대하다. 그럼에도 전설의 특성을 실린다고 하여 이어의 신비한 이야기에 치중하면서 령도선을 놓친다면 위인전설에서는 큰 공백이 생기게 될것이다.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2)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적품모를 지니시고 숭고한 사랑과 의리로 한평생 인민들과 전사들을 위해 바치신 은정과 헌신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전하는 전설들이 많이 수록되어있다.

《이민위천》을 정치리념으로, 위인의 인생철리로 삼아오시였기에 국호에도 인민, 기념비적창조물들에도 인민이라는 이름을 정히 새겨주시며 국사들의 논하신 우리 수령님, 명절과 생신날, 휴식일에도 인민들속에 계시는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락으로 여겨오신 수령님이시다. 우리 수령님 한평생 인민을 위해, 동지들을 위해 바치신 그 헌신 얼마이시랴.

전설 《수령님의 생활비》는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를 담고있는 전설이다.

1960년대초 어느날 공제한것이 너무 많아 수령님의 생활비봉투가 텅 비어있었다는 이야기... 출판물대, 부조, 공급, 현지지도의 길에서 어느 한 농촌소년에게 사주신 신발값, 댁에 찾아왔던 손님들을 치르느라고 쓰신 돈...

토지개혁을 한 그해 가을엔 평안남도에도 현지지도를 나가셨다가 농민들이 준비하여드린 소박한 식사를 드시고는 호주머니가 비어있어 급기야 부관을 평양에 보내어 가져오게 하신 돈을 주인집에 주시고서야 떠나신 이야기...

보좌일군이 난감하여 수령님의 생활비를 올리게

한 사실을 두고 수령님께서서는 그 일군을 엄하게 타 이르고 생활비를 올린 액수를 반납하도록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가 높아지고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이 더 넉넉해질 때에 내 생활비도 높여주도록 해주오.》

한없이 소박하면서도 한없이 위대한것을 깨우쳐 주는 가슴뜨거운 이야기이다.

일군들이 수령님께 휴식을 위해 올린 록음기조차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자료연구수단으로 리용하신 내용을 담은 전설 《수령님의 록음기》 아버지수령님의 건강을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정해드리신 이른 아침의 산보시간에조차 인민의 행복을 위해 금수산의사당(당시)이 정원에서 일군들과 긴요한 사업을 토의하곤 하신 사실을 담은 전설 《로천사무실》, 금수산의사당 구내길보수용자재를 현지지도가가셨던 산간학교의 도로포장용자재로 보내주도록 하신 사연을 담은 전설 《증지당한 구내길보수공사》 등도 인민의 아버지로서의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전해주는 작품들이다.

한생토록 인민들과 전사들속에 계신 아버지수령님 이시기에 그이의 인민적품모와 관련된 혁명전설은 무수히 발굴정리될수 있는 생활적전제를 가지고있다.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2)에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 수령님의 건강과 그이의 영생을 바라는 내용의 전설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감동적인 화폭으로 수록되어있다.

금수산기념궁전은 민족의 아버지이시며 만민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며 수령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주체의 최고성지이다. 최고성지에 깃든 전설은 마땅히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정의 송가로 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훌륭히 대답을 준것이 전설 《록저이야기》, 《보이지 않는 돌절구》, 《꿈에 만나보온 수령님》, 《감방에서 그린 그림》, 《하늘땅에 나타난 십장생》 등이다.

전설 《록저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돌절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다함없는 흠모와 순결한 충성심을 가슴뜨거이 전해주는 작품들이다.

력사에 널리 알려진 가장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전기간 배양에 흠을 넣고 그속에 사슴뼈를 묻어서 지고다니며 기름을 뺀 다음 갈고 쓸어 온갖 정성을 다 들여만든 록저 한조를 아버지수령님께 올리셨다는 기적같은 사연을 담은 전설 《록저이야기》는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보여주는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사들로부터 절대의 신뢰와 보호를 받으신 위인이심을 절감하게 한다.

항일혁명투쟁이 간고한 나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호주머니에 들어갈만큼 자그마한 돌절구》를 가지고다니시며 강냉이를 알알이 가루내시어 그것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국수를 대접해드리곤 하셨다는 사연을 전하는 전설 《보이지 않는 돌절구》도 김정숙동지께서 수령님께 바치시는 티없이 순결하고 열렬한 충정을 뜨겁게 이야기하여 준다.

이처럼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2)은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보여주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어버이수령님과 께관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과 김정숙동지의 위인상을 칭송하여 보여주는대로 지향함으로써 이 전설집이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실록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집으로 되게 하였다.

전설 《하늘땅에 나타난 짐장생》과 《감방에서 그린 그림》은 우리 인민과 혁명전사들이 심혼을 다바쳐 어버이수령님의 건강과 영생을 간절히 바라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감명깊은 작품들이다.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2)에는 희세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 진보적인사들로부터 절대적 신뢰와 존경을 받으신 인류의 스승이시라는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주는 감명깊은 작품들도 실려있다.

전설 《금수산의 종소리》는 도이첼란드의 저명한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가 한생토록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리상사회를 찾다가 마침내 조선에 와서 평생 바라던 리상경을 목격하였고 진짜 하느님을 보았다고 감격해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그는 독실한 카톨릭교신자였던것이다.

루이저 린저; 하느님은 바로 주석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 《하느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 인민입니다.

인민을 하늘로 믿고 그들에게 복무하는것이 나의 인생관입니다.》

전설 《<나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에서는 캄보자국왕 노로돔 시하누크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형님》, 《나의 하느님》 이시라고 격찬하게 된 사연을 전하고있다.

위인전설들이 전하는 내용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것을 신비감에 침취될 정도로 숭고하고 위대하고 비범한 실재적이야기들로 설득시켜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2)은 특이한 형상으로 주체문학의 보물고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될것이다.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은 위인전설이야말로 수령형상을 위한 위력한 문학형태라는것을 결실있는 창조적성과와 귀중한 경험으로 힘있게 확증하여 주었다.

## 진실성-신비성

사실주의문학에서 진실성은 생명이다. 수천년을

헤아리는 서로 다른 력사적시기와 정치제도하에서 창작된 작품들도 하나의 문학사권내에서 함께 묶여지는것은 력사의 진실, 생활의 진실을 이야기하였기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발굴정리하는 혁명전설, 금수산기념궁전전설은 자주시대,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에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하여 력사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인민대중이 창조한 더없이 귀중한 주체문학유산이다.

금수산기념궁전전설들의 형상적특징은 실재한 사실을 소재로 한 실화성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열렬히 칭송하고있는것이다.

전설은 신비하다. 범상치 않은 이야기이기에 인민들속에서 두고두고 전승되는것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신비의 세계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속에서 신비의 세계를 펼치는것이다.

전설 《목저이야기》, 《보이지 않는 돌절구》, 《토기마을전설》, 《감방에서 그린 그림》, 《꿈에 만나뵈온 수령님》, 《수령님의 생활비》, 《하늘땅에 나타난 짐장생》, 《영원히 풀수 없는 수수께끼(2)》 등은 불가사의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실록에서의 어느 한 갈피에 실재한 사실의 일단을 실화적인 필치로 자연스럽게 펼쳐보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감명깊은 전설로 전해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사색세계가 너무도 숭고하고 위대하며 비범한 통찰력과 인민사랑, 동지사랑으로 충만되어있어서 평범한 사고로는 상상이 쉽사리 가닿지 못할 신비의 세계를 불러일으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것은 숭고성과 위대성, 비범성과 남다른 인간미도 신비의 전제로, 바탕으로 된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금수산기념궁전전설들의 형상적특징은 또한 전통적인 환상수법의 다양한 활용에 의하여 신비의 세계를 펼치고있는것이다.

환상은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활동을 벗어난 특수한 정신활동과정이다. 바로 정신활동에서의 이 특수성이 사람들을 신비의 세계에 이끌려가는 효과적인 특질로 되고있다.

혁명전설들에서 환상의 계기설정과 해명과정은 꿈이나 환각에 의하여 실현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전설 《꿈에 만나뵈온 수령님》에 등장한 녀성관리위원장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기뻐만 하신다면 한몸이 그대로 논밭의 거름이 되어도 아까울것이 없다는 이악한 마음으로 수십년세월 땅을 가꾸는데 녀과 육체를 깡그리 바쳐온 충신이며 실농군이다. 그러한 그였기에 꿈에 세벌농사를 시험하는 감자밭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그 걸음으로 시험포전에 달려가 현지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는다.

이 사연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수령님께서 영생하신다는 믿음을 더더욱 확고히 간직하게 한다. 그것은 수령님 계시던 포전에 장군님께서 계시었고 수령님을 간절히 그리는 마음을 헤아리신듯 장군님께서 현실적으로 찾아오셨던 것이다.

언제나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살며 일하는 충신에게는 십분 가능한 현상이다. 이 신비한 현상이 엄연한 현실인것으로 하여 전설이 생겨난것이다.

대를 물리며 600여년이나 보관했던 왕씨가문의 족보를 그 후손들이 아버지수령님께 삼기 올린 이야기를 반영한 전설 《고려왕실가문의 족보》, 이 전설에서는 전씨가 송악산의 울음소리를 듣는 환각에서 신비의 세계를 펼치고있다. 왕건왕실의 후손으로서 《송악3호 요전청》 (송악산이 세번 올면 대월의 앞날이 좋아진다는 뜻)이라는 시구대로 송악산이 우는것은 틀림없는 길조라고 생각해온 전씨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왕건릉을 현지도하신 날 저녁 송악산의 울음소리를 듣는것이다. 이 환각이 계기가 되어 전설적이야기의 전말이 펼쳐진다.

전설 《꿈에 만나뵈온 수령님》에서 녀성관리위원장의 꿈, 《고려왕실가문의 족보》에서 송악산 울음, 《두마리의 새끼곰》에서 80고령 할아버지의 천상꿈, 《령혼이 안식을 찾다》에서 교도소공동묘지의 밤울음소리 등의 꿈과 환각은 레외없이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매혹과 다함없는 흠모, 절절한 그리움, 그이의 위인적품모를 생활적기초로, 현실적바탕으로 하고 그와의 밀착속에서 신비의 세계가 펼쳐졌다가 현실적인 진실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혁명전설의 수집정리에서 중세기적환상수법을 잘 다루는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신중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환상의 외피속에 묻힌 과학적진리, 현실적진실을 둔구어주지 못할 때에는 건실전반을 믿을수 없는 허황한것으로 생각할수 있기때문이다. 금수산기념궁전전설들에서는 이 측면에서도 긍정적창조적경험을 보여주었다.

전설 《금수산의 종소리》에서 루이저 린저는 매번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수산에서 올린 종소리를 듣고 평양으로 달려왔다고 그에게 말씀드린다. 독자들은 그것이 독실한 카톨릭교신자이며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그의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에 비친 환각이라는것을 가늠하게 된다.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겸허한 말씀이 친근무게로 울린다.

《그날이 선생의 생일이어서 그런지 선생생각이 몹시 낫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올려보았습니다. 참으로 맑고 부드러운 종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소리가 어떻게 머나먼 로마에까지 들려갔겠습니까. 아마 선생의 마음속 생각이었겠지요.》

이리하여 환상은 현실로, 신비성은 진실성으로 전환되어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세계에 자연스럽게

끌려들어가게 한다.

전설 《감방에서 그린 그림》에서는 비전향장기수가 감옥에서 꿈에 천국의 도사의 계시를 받아 《송학도》를 완성한다. 사실은 그림을 그려본 경력이 없는 그로서 고심참담한 사색의련속속에 떠오른 령감이었던것이다. 이를 두고 전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있다.

《창작성력감에 빠지면 환각이 일어난다더니 이것이 바로 이런 현상일가?...》

《때없이 나타나 자기를 붙들여 일으켜세워주기도 하고 오묘한 리치로 꺼져가는 생명의 등불을 둔 구어주기도 하던 그 도사는 어디 먼 나라에서 온 신선이 아니라 아버지수령님의 영생을 바라고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축원하는 자신의 절절한 마음이었다.》

그러니 꿈의 계시로 자기가 그린 그림은 바로 제 마음이었다.》

혁명전설들에서 환상의 계기설정과 해명과정은 신비한 현상들에 의하여 실현되는것이 일췌이다. 때로는 그것이 자연현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사회현상이기도 하다.

아버지수령님의 서거와 관련하여 창조된 전설 《금수산의 학》에서 난데없이 금수산에 날아든 백학의 무리, 《백두산의 무수해》에서 갑작스레 시들어버린 무수해, 《금수산의 천둥》에서 요란한 천둥과 폭우, 전설 《새별과 달이 합치다》에서 《금성합달》 현상, 전설 《로천사무실》에서 아버지수령님의 야외집무장소에 한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다는 두마리의 새, 전설 《빛을 잃은 해와 달》에서 영결전날과 당일의 《일월무광》 (해와 달이 빛을 잃음), 전설 《천기조화》에서 수령님 정해주신 날, 정해주신 곳에서의 예상외로 화창한 날씨, 전설 《다시 살아난 소나무》에서 금수산기슭을 감돌아 흐르는 맑은 물을 주자 싱싱히 소생한 락동강기슭의 로송, 전설 《하늘땅에 나타난 십장생》에서 수령님서거 석달이 될무렵 강동군 삼등리에 나타난 십장생 등등 이례적인 자연현상들은 신비경에서 현실로, 현실적표상에서 다시 아버지수령님의 위인상을 우러러 경모케 한다.

전설 《울음홀》에서 대리석바닥에 연방 내동은 물방울, 전설 《수령님의 록음기》에서 장군님께서 시동단추를 누르시여야 동작한 록음기, 전설 《장군님께서 여신 문》에서 새로 받은 프락포르의 열리지 않던 문이 장군님께서 당기시자 열린 사연, 전설 《빛을 뿌리는 통일지도》에서 비전향장기수가 서울 서대문구치스의 담벽에 맨손끝으로 그려놓았건만 30여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통일지도, 전설 《베오그라드의 추억》에서 생전에 정지와 후퇴를 모르던 찌포대통령의 령구가위대한 수령님앞에 스스로 멈췄다가 수령님의 위로의 말씀끝에 움직인 기이한 사연 등도 사회현실에서 흔히 대할수 없는 것이어서 신비의 세계를 펼치며 아버지수령님과 경

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감동을 금할수 없게 한다.

평범한 사색으로 가슴이 가지 않을 때에도 신비경에 처하게 되지만 무심히 대하던 신기한 현상도 위인과 결부될 때에는 신비감을 불러일으키기마련이다. 금수산기념궁전전설은 위인이 거룩하고 비범하기에 생겨난 신비의 세계인것이다.

혁명전설들에서는 환상의 계기설정과 해명과정도 특색있게 실현하고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전설 《금수산의 종소리》와 《나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이다.

전설 《금수산의 종소리》에 등장하는 도이철란드의 저명한 녀류작가 루이지 린저는 머나먼 이탈리아 로마의 자기 집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울리시는 종소리를 듣고 매년 평양에 달려왔다는것이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매혹과 존경심, 한시도 잊지 못하는 그리움에서 오는 환각이겠지만 그가 독실한 카톨릭교신자라는 전제로부터

매우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안겨온다. 이로부터 **김일성** 주석님은 《하느님》 이시라는 그의 격찬과 주석님은 영생하신다는 그의 확신이 독자들에게 불변의 진리로 감수된다.

전설 《〈나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에 등장하는 감보자국왕 노로돔 시하누크도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상과 은총에 탄복하여 세계정치사에 류레드물게 그이를 《만형님》으로 모셨고 평양쪽을 향하여 《나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심중의 고백을 더뜨렸던것이다. 전형적인 불교도인 그의 이 격찬은 몇천마디의 말을 대신하여주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신자들의 체험세계와 시점에서 활용된 환상은 우리 독자들에게 아무런 무리도 없이 신비의 세계를 진실로 체득하게 한다.

이처럼 《금수산기념궁전전설》(2)은 높은 사상 예술적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철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게 한다.

## 노을 고운 땅에서

채동규

우리 분조 모내기 말끔 끝낸 초저녁  
수로물에 노을풀어 나는야 손을 씻네  
이제 선동원 옥이가 내곁으로 다가올거야  
그리고 고옹게 오래오래 앉아있겠지

나와 옥이 눈동자에 그윽히 비칠거야  
온 종일 땀을 바친 논머리에  
감나무 줄을 선 마을 동구길에  
고옹게 퍼져가는 저 노을 저 노을...

제대된지 몇달새에 벌써 정이 든  
이 풍경 이 생활... 이 땅의 모든것!  
흙내 거름내에 푸근히 걸어 살며  
어린 모 한대 한줌의 흙과도  
천만가지 이야기 다 나누고싶은걸

어서 장가들라는 이웃들 성화에도  
나는 히죽 속웃음만 짓고 마네  
이 가슴에 새록새록 움터나는 첫 사랑  
나한텐 일 잘하고 착실한 옥이가 있는걸

이제 옥이가 내곁에 와 앉으면  
싱싱한 그 얼굴 정겨웁게 마주보리

그 얼굴에 웃음피면 내 눈가에도 웃음피고  
그 얼굴에 노을타면  
내 가슴에도 노을이 불불고...  
난 옥이가 제일 고와!

나의 옥이를 두고  
우리 분조 탐진 버모들을 두고  
이 땅에 저리도 붉게 비끼는 노을을 두고  
난 왜 자꾸  
꼭다는 말로 표현하고싶을가

아 병사시절 총대로 지켜낸 땅  
오늘은 깨끗한 땀으로 이랑이랑 걸구어가며  
숫저운 사랑도 예서 꽃피우고  
인생의 열매도 예서 참되게 무르익혀가거니  
이 땅의 모든것은 말 그대로 고옹다!

그 무슨 새 소식 안고왔나  
저기 저 수로뚝을 가로 질러  
옥이가 걸음총총 나한테로 달려오누나  
옥이의 온몸에 휘감기는 노을이 끊기도 하지  
그래, 난 옥이가 정말 고와  
정든 이 땅이 정녕 고와!

## 구름우의 지휘처

푸른 가지 실실이 내리드리운 큰 버드나무밑에 마을사람들이 모여앉아있었다.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모두 자못 흥겨운 기색이다. 대통을 문 한 로인이 입과 코로 연방 담배 연기를 내뿜며 체법 고저장단을 맞추어 흥겹게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김일성** 장군님은 하늘이 낸 천하용장이시오. 그러기에 쪽발이 왜놈들이 대낮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도 몇천놈씩 무리로 녹아나군 하지요.

축지법에 승천입지, 둔갑장신, 못부리시는 조화가 없으니 듣는 말마다 놀라울뿐이외다. 얼마전에는 김장군님부대가 평양과 원산, 함흥을 동시에 들이쳤는데 왜놈들은 이리 물러가고 저리 물러가다가 그만 떼죽음만 당했지우다. 장군님은 구름우에 지휘처를 정하시고 거기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지휘를 하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웬까.》

로인의 말은 점점 더 신비한 전설의 세계로 들어갔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화전민들의 궁핍한 생활에 밝은 희망을 안겨주고 기쁨을 안겨주었으니 이런 때면 모든 시름을 다 잊곤 하였다.

그 로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여기에 옮겨본다.

## X

맑고 푸른 하늘아래 한때의 흰 몽계구름이 떠가고있었다.

마치 파도를 헤가르며 대양을 달리는 돛배마냥 가없는 하늘로 거침없이 날아가는 그 구름우에는 사람들이 타고있었다.

웬 사람들일까? 어떻게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가?

보는 사람들은 모두 의혹에 찬 눈들이다.

구름은 어느 높은 산마루를 스칠듯말듯 날아 지나더니 이윽고 큰 소나무가지에 걸렸다. 아니, 부러 그 나무가지에 걸어놓은것이다.

구름우에 타고있던 사람들이 나무줄기를 타고 땅에 내렸다. 그들은 모두 체구가 장대하고 눈은 광채를 뿜는데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쿵쿵 땅이 울린다.

모두 장수들이다. 장수들중에도 웃어른되는 장수가있으니 바로 그들을 거느리고 내리신 그이가 백두산의 장수 **김일성** 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산봉우리에 오르시여 동서남북을 두루 살피시였다.

꽃향기 풍겨오는 산봉우리들과 맑은 물 흐르는 강과 기름진 논밭이 장군님을 우러러 달려와 품에

안기는듯 싶었다.

장군님께서 한손을 들어 숲을 가리키시자 갑자기 초목들이 총을 멘 군사가 되어 그이앞에 준비하게 정렬했다.

장군님께서는 구름을 함께 타고 온 부하들중에서 세 장수를 부르시더니 명령을 내리셨다.

《이제 곧 부대들을 이끌고 평양과 함흥 그리고 원산으로 출동하여 차후 나의 명령을 기다리라.》

그러자 세 장수는 구름을 타고 갔는지 아니면 바람을 타고 갔는지 눈깜짝할사이에 모두 부대들을 이끌고 사라지고말았다.

장군님께서는 남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다시 구름우에 타시더니 창공높이 날아오르시였다.

구름은 산과 들을 훨훨 날아 지나갔다.

아름다운 조국산천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볼수록 더더욱 그리워지는 조국산천이요, 그리울수록 나라를 빼앗은 쪽발이 왜놈들을 쳐부실 마음이 더더욱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장군님이시였다.

드디어 장군님께서는 한칼을 번쩍 쳐들고 평양에 내보낸 부대에 명령을 내리시였다.

《왜놈들의 병영을 들이치고 불살라버리라!》

쨍쨍쨍 장군님의 목소리가 온 산천을 뒤흔들었다.

삼시에 삼단같은 불길의 왜놈병영들에서 치솟아 올랐다.

왜놈들은 손쓸새없이 모두 불에 타죽었다.

항일유격대가 평양에 쳐들어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제우두머리놈들은 눈이 뒤집히여 와글와글 끓으며 평양에 술한 병력을 끌어들었다.

하늘의 지휘처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시며 이번에는 함흥에 내려간 부대에 명령을 내리시였다.

《왜놈들의 병영을 들이치고 불살라버리라!》

함흥에 등지를 뜬 왜놈들은 앉은 자리에서 얻어맞고 너부러졌다.

일제우두머리놈들은 또 부랴부랴 함흥에 체놈들의 병력을 끌어들이는 소동을 피웠다.

그러나 김장군님부대에 얻어맞은 함흥시내는 왜놈병졸들의 시체로 한벌 쪽 깔렸다.

장군님께서는 이때 또 원산에 나간 부대에 명령을 내리시였다.

《경찰관주재소들에 불을 지르라!》

일시에 주재소마다에서 검붉은 불길이 타래쳐올랐다.

일제우두머리놈들은 전화통을 쥐고 아우성을 치

며 술한 병졸들을 또 원산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평양과 함흥, 원산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제놈들이 련이어 녹아났다는 보고뿐이었다.

일제우두머리놈들은 정신이 아찔해지고 앞이 캄캄하였다.

이때 구름우의 지휘처에서 장군님의 엄하신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려왔다.

《쪽발이 왜놈들아, 듣거라! 당장 조선땅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한놈도 목숨이 붙어있지 못할줄 알아라!》

그러자 왜놈들은 우두머리건 졸병이건 할것없이 모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손을 하늘높이 쳐든채 맞비비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그놈들이 아무리 빌어도 절대로 용서치 않으셨다.

몽게구름은 장군님을 태우고 또 남쪽으로 날아갔다.

구름우의 지휘처가 옮겨지는 곳마다에서 왜놈들이 무리로 녹아났다.

## 《지원》에 대한 생각

서진명

《지원》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시작도 끝도

나라의 독립을 위한 길에

헌헌히 바치신

김형직선생님

애국의 그 마음입니다

《지원》이란 무엇입니까

눈속에 더욱 푸른 청솔과도 같이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기어이 나라를 찾고야 말리라

폭압의 세찬 눈보라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시던

불굴의 그 혁명정신입니다

일찌기 만경대고향집

키낮은 사립문을 나서신 선생님

그 누가 등을 떠밀어

타향에서 타향으로

낮설은 산천

낮설은 마을을 찾으셨겠습니까

무엇을 바래

허기지면 생 눈을 삼키시며

힘이 진하면 지팡이를 짚으시며

거듭되는 악형과 동상으로

병이 깊어지신 몸으로

력사의 새벽길을 걷고 걸으셨겠습니까

갈길몰라 헤매는 가슴가슴을

민족자주정신으로 깨우쳐

나라찾는 그 길에

한명이라도 더 묶어세우는것이

선생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걸음걸음 사선을 헤쳐가는 길에서

광복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면

못다 걸은 그 길우에

아들과 손자를 세워서라도

인민이 잘사는 복락사회를 세우는것이

선생님의 념원이었습니다

아 것처럼 바라시던 광복의 날을

끝내 보지 못하셨어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남기신

그 불멸의 공헌으로 하여

선생님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오늘도 살아계시거니

《지원》이란 무엇입니까

짓밟힌 땅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그처럼 뜨겁고도 열렬하게

한몸을 불태우며 사신

빛나는 그 한생만이겠습니까

그 원대한 뜻

대를 이어 꽃피어나는 이 강산

우리 장군님 가리키시는

강성대국 높은 령마루 향해

선생님처럼 쉽없이 즐기치게

애국의 발자국, 신념의 발자국을 찍어갈

우리의 불타는 마음인줄 압니다

# 내 나라, 내 조국과 더불어 영원할 《애국가》

김려숙

새날의 아침이다. 청신한 새벽공기를 헤가르며 《애국가》가 은은히 울려온다.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아 그리도 절절히, 숭엄하게 울리는것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주시려고 오늘도 전선길에 계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젖어 저리도 뜨겁게, 장중하게 울려퍼지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내 나라는 김일성민족이 사는 주체조선을 의미하고 내 조국은 사회주의조국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애국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노래, 주체조선,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의 찬가이다.

우리 나라는 노래가 많은 나라이다. 노래로 혁명을 시작했고 노래와 함께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한 우리 혁명이기에 우리에게는 백두산장군들이 사랑하는 노래,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노래가 참으로 많다. 《애국가》는 우리 민족이 마음합쳐 부르는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노래들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우리 나라의 국가이다.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의 국가 《애국가》도 우리가 제일 사랑하며 심장으로 부르는 우리 수령님의 노래, 우리 장군님의 노래가 있기에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의 상징으로 그렇듯 긍지높이 울려 퍼질수있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체득한 인민이다. 우리에게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없었더라면 우리 어찌 《애국가》를 가진 오늘의 우리 조국을 생각할수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은 지난 민족수난의 시기 자기의 애국가를 가질수 없었다. 일제에게 나라를 통체로 빼앗긴 식민지민족의 설움과 울분으로 몸부림치던 우리 인민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고향과 조국에 대한 애뜻한 정마저 빼앗기고 자기 민족과 나라를 자랑하며 사랑하는 노래를 지을수도 부를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여 우리 인민은 진정한 자기 조국의 노래를 가질수 있게 되었고 미제국주의자들이 모진 광풍을 몰아오며 우리에게서 《애국가》를 빼앗으려고 날뛰는 때도 총대로 《애국가》를 지켜냈고 세기와 세기를 넘어 온 세상에 더 높이 더 장중하게 울려퍼지게 하였다.

참으로 《애국가》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 위대

한 령도자를 모신 나라만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상징하는 참된 국가를 가질수 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준다.

우리의 《애국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가》이며 주체건국위업에 바치신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주는 **김일성**민족의 《애국가》이다.

우리의 《애국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그 창작을 맡기하시고 지도하시여 제정해주신 《국가》이다.

이것은 우리의 《애국가》가 창작경위와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그 생명력에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국가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특성을 띠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 력사에도 국가가 그 나라 령도자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밑에 창작완성된 실례는 찾아볼수 없다. 오직 우리의 《애국가》만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지도밑에 창작완성된 국가이다.

강도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광복직후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새 조국의 《애국가》를 안겨주시기 위해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반만년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꿈같이 희한한 새 세상, 인민이 주인으로 불리우는 광복된 새조국을 통체로 안겨주시고도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애국가》를 주시려고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 정녕 한평생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지니시고 혈전만리도 헤치시였고 위대한 창조의 새 력사도 펼치신 우리 수령님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애국가》가 울려나온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부르는 《애국가》 가사의 구절구절에 담겨진 내용과 가사전반을 관통하고있는 양상적특성, 시적표현과 시적구성에서의 독특성 등은 전적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된 우리 인민은 참다운 자기의 《애국가》를 부르고싶어한다고 하시면서 《애국가》에는 우리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이며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것이 잘 나타나게 하며 일제침략자를 반대하여 장기간의 항일혁명투쟁을 벌려 마침내 조국을 광복한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자부심, 광복된 인민이 나라의 주인된 공지와 자부심, 새 민주조선건설의 주인으로서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를 건설하고 세세대대행복하게 살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 인민의 나라를 대대손손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와 엄숙한 맹세를 담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가르치심을 시화하여 《애국가》의 가사가 되었으며 몸소 《애국가》의 노래를 들으시고 우리 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번만 부를수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이란 시행부터 그 아래는 반복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음악상조화도 잘될뿐아니라 한결 더 장중해지고 민족적 긍지감과 자부심이 넘쳐나는 《애국가》가 완성되었다.

일찌기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애국의 노래,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를 지으시여 비통의 정서가 흐르던 1920년대를 주체혁명의 닦을 울려 참된 애국의 사상감정과 혁명적락관의 밝은 정서로 물들인 우리 수령님,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그 이름도 조선인 우리 나라, 간악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하며 왜놈도 지주도 모두 없는 인민의 새 나라를 우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우려는 애국의 걱정을 《조선의 노래》에 담으시었던 우리 수령님,

정녕 우리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사상감정은 백두의 밀림을 울리며 광복의 퇴성이 되었고 새 조선의 《애국가》에 넘쳐흘렀다.

《애국가》의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 사랑하는 우리 조국, 아름다운 강산과 반만년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인민의 공지와 자부심, 새로 건설할 인민의 나라에 현신할 결의가 격조높이 노래되고있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역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백두산 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 온 세계 앞서나가기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가사의 1절에서는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이라고 광복된 새 조선에 대한 환희의 걱정을 터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세워주시 새 조선을 몸과 맘 다 바쳐 길이 받들어나갈 굳센 결의와 의지를 노래하고있으며 2절에서는 백두의 혁명전통을 이어 받은 주체조선의 기상과 위용, 끝없이 부강번영할 조선을 길이 빛내일 드높은 열정과 억센 신념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우리의 조국 주체조선은 반드시 온 세계에 앞서나갈것이며 영원히 부강번영하리라는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혁명적락관을 사상정서적기초로 하고있는 《애국가》는 조국의 모든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조국을 길이 받들고 빛내이기 위해 헌신하려는 애국의 걱정을 전 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폭넓게 터치고있다.

주체조국의 건설로정과 영원무궁성도 **김일성**민족이 사는 영원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건국위업에 있음을 세월과 더불어 더 더욱 뜻깊게 새겨주는 《애국가》.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아버지수령님 영생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우리의 《애국가》는 영원불멸하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열어나가신 선군혁명의 길을 따라 《애국가》를 더 높이, 더 자랑스럽게 부를것이다.

선군의 성스러운 역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애민의 사상과 위업이 빛나게 계승되어온 역사일뿐아니라 민족의 존엄과 긍지 드높이 《애국가》가 불리워진 역사이기도 하다.

일찌기 룡남산마루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어 조선을 빛내이고 떨치실 역사의 맹세를 다지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선군장정의 준엄한 길을 헤치시며 《애국가》를 조국수호의 노래로, 강성대국건설의 노래로 울려퍼지도록 하시었다.

오늘 선군시대는 선군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가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선군을 사랑할 때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이시며 우리 민족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애국가》를 영원히 부를수 있는 강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민족의 슬기와 기상이 펼쳐지고 찬란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가 대대손손 이어지고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 따라 나갈 때 조국번영의 새 역사가 펼쳐지고 우리의 《애국가》는 선군강성대국의 영원한 애국가로, 사랑의 메아리로 울려퍼질것이다.

## 절 정

김진경

## 1

뽕잎하나를 손에 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환하게 웃고계시었다. 그이를 환호하듯 크고 기름진 잎사귀들이 연한 가지를 흔들며 살랑살랑 춤을 추고있었다.

도의 농업부문 책임일군인 김현숙은 자꾸만 눈곱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멀리 있는 자식일수록 살림이 어려울수록 더욱 관심을 돌리고 돌봐주는것은 부모의 심정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해마다 자강도에 찾아오시어 농업부문을 지도해주신다. 이렇게 험한 뽕밭에 오르내리신것만도 벌써 몇번째인지 모른다.

《많은 일을 해놓았소. 가는데마다 자랑거리가 있거든...》

그래 또 자랑할것은 없소?》

김현숙은 가슴이 부푸는것을 느끼었다.

《그런 농장이 있긴 한데...》

《그럼 가봅시다... 하하, 미안한 모양이군. 괜찮소. 나는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무엇이나다 보고싶소. 그런데 시간이 허락치 않으니 한개 농장만 더 보고 갑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차있는 쪽으로 앞장서 걸으시었다. 그이의 신발굽도리에 진흙이 묻은것이 눈에 띄이였다. 순간 가슴이 뜨끔했다. 눈물이 솟구칠듯 목이 짹 메여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차는 원평농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다.

김현숙은 원평이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을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이 산골에서 보기 드문 넓은 벌과 뒤산에는 뽕밭, 과수밭이 있고 시내에서 멀지 않은데다가 길옆에 위치하고있어 남부럽지 않게 살고있는 원평리사람들이였다.

그들의 첫째 자랑이 벌자랑이다. 원평벌은 고산벌, 중강벌과 함께 자강도의 3대벌의 하나로 불리우고있다.

원평쌀이라고 하면 사람들속에서 앞지대 쌀 못지 않게 일러주고있었다. 그러니 도의 자랑일수밖에...

장군님께서서는 마을어구에서 내리시었다. 한쪽의 그림과도 같은 마을전경을 바라보시며 말씀이 없으시였다.

김현숙은 장군님을 논버시힘포전으로 안내해드

리였다. 거기엔 수십종의 벼품종들이 보기좋게 배열되어있고 생육기일과 그 특성을 적은 말뚝들이 차례차례 꽂혀져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두팔을 엇걸으신채 여전히 말씀이 없으시였다. 그러시다가 현숙을 돌아보며 빙그레 웃으시였다.

《자강도에 와서 논농사구경을 하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지 않을가. 어떻소?》

둘러섰던 일군들이 가볍게 따라웃었다.

김현숙은 자기의 실책을 깨달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자강도농업의 본보기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농장을 보고싶어하신다. 그런데 도에 몇개밖에 안되는 이런 농장을 내세우려하다니. 별방홍내까지 내면서...

그러는데 장군님께서서는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시며 저기에 들어가보자고 하시였다.

《저건 토끼우리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들어가보지요.》

어느새 그이께서는 활달한 걸음으로 토끼우리에 들어서시였다.

토끼놀이터는 회의장같이 너렁청한 방에 꾸려놓았는데 거기엔 군데군데 기묘한 《바위산》이 있는가 하면 알락달락하게 색칠한 《무지개다리》에다 《정각》 까지 세워져있어 마치 아동영화의 《토끼동산》을 방불케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김현숙에게 물으시였다.

《토끼들이 알락달락하게 색칠한 곳에서는 더 잘 자라오?》

일순 굳어졌던 김현숙은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 씀드리였다.

《동물이나 식물이 음악을 들으면 빨리 자란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토끼가 알락달락한 색깔을 좋아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말은 맥없이 잦아들었다.

《하하, 그것 보오.》 장군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토끼우리야 토끼가 잘 자라게 하자는거지. 구경거리야 아니지.》

너그럽게 하시는 말씀이었으나 허례허식에 대한 명백한 질책이시였다.

계다가 이 산간오지에까지 찾아오신 장군님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현숙의 가슴은 마구 졸아드는 듯 했다.

장군님께서 쉬이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는지 차일을 거닐고계시었다.

장군님께서 문득 일군들쪽으로 돌아서시었다.

《내 얼마전에 한 농촌집에 들린적이 있는데 염소만 해도 대여섯마리 가지고있었소.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그것으로 젖을 내고 고기로 식량을 보태여 여섯식구가 살았다고 하오.

그래 염소종자를 어디서 가져왔는가고 물으니 바로 삼덕농장이라고 하지 않겠소.》

현숙은 인차 그이께 말씀드렸다.

《삼덕농장에서 축산을 잘하고있습니다.》

《그렇소?! 오래전에 만나본 그 농장 관리위원장 생각이 나는구만. 그때에는 젊었었는데 그 동무도 이젠 나이가 켜 들었겠구만?》

《예순넷입니다. 아직도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리위원장을 하고있단 말이요?》

장군님께서 자못 감회가 깊으신듯 먼 산발을 바라보시었다.

《그러니 그를 만나본지도 서른여섯해가 되었구만.

많이 변했을테지....

그 동무이름이 한선화인가?-》

《웁습니다. 한선화입니다.》

《그래.》

김현숙은 놀랍기만 하였다. 세월의 두터운 락엽에 묻혀있는 한 일군의 이름과 나이까지 기억해내 시다니.

장군님께서 깊은 정을 담아 말씀하시었다.

《참 소박하고 열정적인 동무였소. 그가 아직도 거기에 있다?》

현숙동무, 이 길로 삼덕에 가보는것이 어떻겠소?》

김현숙은 얼른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삼덕리는 원평과는 달리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하고있어 길이 험했다. 특히 축산반이 자리잡고있는 삼채골은 어구에서도 15리나 더 들어가있었다. 그야말로 심산계곡이었다.

그런 곳에 장군님을 모신다는것이 죄되는 일로 여겨졌다. 그리고 한선화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심심산골에서 본것없고 들은것 없어서인지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통 듣지 않았다.

오직 자기 손끝으로 해놓은것을 제일로 생각하는 녀자였다.

오죽하면 《고집불통》, 《치마입은 남자》 라고 하겠는가.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는게 아니요?》

장군님께서 자애깊이 물으시는것이였다.

《사실 저-》 현숙은 두손을 맞비비었다.

《그곳은 길이 너무 험해서...》

《우리가 언제 좋은 길로만 다녔소? 자, 어서 갑시다!》

장군님께서 앞장에 서시는것이였다.

(왜 한선화를 꼭 만나시려고 할가?)

그러면서도 한 일군을 위하시는 그이의 고결한 인품앞에 머리가 숙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 2

차는 달리고있다. 차창밖으로 푸르싱싱한 수림과 현대적인 문화주택들, 마산의 뿔발들이 흘러가고있었다. 여기저기 노랑고 파란 지붕을 해썬 잠실들도 보이였다.

런면하게 흘러간 산발들도 류다른 정을 안고 다가드는듯 싶으시었다.

장군님께서 생각을 더듬으시었다. 작금년간에 벌써 세번째로 오시는 고장이였다.

작년에 두차례나 읍농장을 다녀가시었다. 여기서 두벌농사, 세벌농사의 본보기가 창조되였다.

읍농장과 삼덕은 앞뒤집이였다. 그러니 읍농장에 올 때마다 《뒤집》에 사는 삼덕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해했겠는가. 특히 한선화관리위원장은 또 얼마나...

갑자기 목이 메여오시었다. 한선화관리위원장이야 말로 아버지수령님께서 애지중지 키우신 일군이요.

아직도 그때 일이 눈에 선하시였다.

강계시주변농장을 돌아보신 아버지수령님의 안색은 몹시 흐리시였다.

아직도 우리 농민들의 생활이 넉넉치 못한 처지에 있었던것이다.

수령님께서 우리는 우리가 오래동안 혁명을 해왔는데 아직도 인민들의 생활이 높지 못하다고, 일군들이 이악하게 노력하지 않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밤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시였다.

수령님을 수행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이 아프시였다. 그이께서는 밤을 새우시며 도내농사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러시다가 산골 맨 막바지에 있지만 현금수입이 다른 농장에 비해 비교적 높은 농장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 농장이 바로 삼덕농장이였다.

비결은 축산을 잘하고있는데 있었다.

장군님께서 그 농장관리위원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나이는 28살, 관리위원장사업년한 4년, 두 딸을 가진 어머니, 일은 남자들도 혀를 찰 정도로 걸썩게

하고...

장군님께서는 그를 부르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수령님앞에 내세워주시었다.

《그래, 축산이 그렇게 재미있더라 말이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띄우시고 녀인을 바라보시었다.

《재미납니다.》

자주색저고리에 깡장치마를 입은 녀인은 마치 아버지앞에서처럼 허물없이 말씀드리었다.

《꿀짜기에 칙산을 한 100정보 마련해놓으니 꽤지는 그저 무럭무럭 큼니다. 양, 염소, 토끼... 무엇이나 다 잘됩니다.》

양털로는 시집가는 처녀들에게 첫날이불을 해주고 염소젖을 짜서는 탁아유치원에 보내줍니다. 올해엔 농장아이들모두에게 토끼털외투를 해입히자고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너무 기쁘시여 그의 어깨를 두드리주시며 엄지손가락을 펴보이시었다.

《장하오. 장해! 이악하거든... 동무같은 일군이 때 농장에 한명씩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녀인은 귀밀을 살짝 붉히었다.

《전 그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일했을뿐입니다.》

《참, 창성련석회의가 있은뒤 그곳에도 제일 먼저 갔었다면서?》

《예, 창성은 저의 고향입니다.》

녀인은 보조개를 그리며 방그레 웃었다.

《그래 부모님들은 계시오?》

방글방글 웃던 그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녀인은 고개를 수그리며 저고리고름을 매만지었다.

《광복전 아버지는 지주놈의 등쌀에 못이겨 화평에 산다는 먼 친척을 찾아 밤중에 술가도주하겠다고 합니다. 화평에 들어와 화전이라도 일구어볼가 해서 말입니다.》

그때 세살난 저는 아버지의 지계에 얹혀 이사길에 올랐습니다. 가던 도중 로자마저 떨어져 물러앉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삼덕땅입니다.

그후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고 세 동생을 저에게 맡기고 품팔이를 떠났던 아버지마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녀인은 울고있었다. 그러나 인차 눈물을 거두었다.

《저는 그때 창성에서 돌아오면서 결심하고 또 하였습니다. 우리 삼덕땅을 꼭 창성처럼 꾸리리라! 하고 말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사랑어린 시선으로 보시며 머리를 끄덕여주시었다.

《꼭 그렇게 하리라고 믿소, 앞으로 걸린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이야기하라구.》

한선화가 일어서려고 할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어깨를 눌러앉히시었다.

《그 면에서 급히 오느라고 목이 마르겠는데 시원히 배라도 들고 가라구.》

수령님께서는 배를 들어오도록 하시고 손수 칼을 들어 깎으시었다.

《자, 어서 먹으라구.》

배를 받아든 녀인은 고마움에 젖은 눈길로 수령님을 우러르더니 그것을 달게 먹기 시작하였다.

그 모양을 기쁘게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또 한알을 깎으시었다.

《수령님, 저...》

《괜찮아. 어서!》

녀인은 그 때까지 손에 들었다. 배를 램스럽게 베 물어먹던 녀인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까만 눈을 깜빡이며 둘러보다가 얼굴을 빨강게 물들이며 따듬 따듬 변명조로 말하였다.

《우리 고장엔... 돌배밖에 없어서...》

동에 닿지 않는 변명이었다.

《하하하...》 수령님께서는 통쾌하게 웃으시었다.

《돌배가 어떻다구 그러오. 향기롭고 뽕으면서도 별맛이지. 돌배맛을 보려 동무네 농장에 한번 가아겠구만.》

《정말이십니까?》

환희와 기쁨에 넘쳐 벌떡 일어난 한선화는 두손을 꼭 모아쥐고 간절히 아뢰었다.

《수령님! 우리 마을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습니다. 피로도 푸실겸 꼭 한번 오십시오!》

《가야지. 가구말구.》

마치 딸자식의 요청을 너그러이 받아주는 친아버지 모습 그대로이시었다....

장군님의 입가에 웃음이 실리시었다.

시원시원하면서도 농사군의 푸수한 냄새가 그대로 느껴지는 소박하고 진실한 녀인의 모습이 자꾸 얼른거리시었다.

그가 산골 맨 막바지에서 40년간을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고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감득되시었다.

그는 수령님을 받들어 많은 일을 하여온 일군이다. 지나친 고집으로 파오를 범한적도 있으나 그것은 욕에 티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삼덕리에서는 여전히 풀먹는 집집승을 많이 길러 식량분배와 현금수입을 높이고있다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한선화를 만나보고싶으시었다. 축산부문을 추켜세우자는데도 있지만 보다는 그의 한생을 알고싶으시었다. 그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애오라지 수령님을 기다려 한생을 다 바쳐온 그의 소원도 풀어주고싶으시었다.

한편 저도 모르게 결멋이 들어 산골농사에서 기

본을 놓치고있는 김현숙의 생각을 바로잡아주어야겠다고 작정하시였다.

그래서인지 차의 속도가 더디게만 느껴지시였다.

### 3

관리위원회가 바라보이는 길우에 한 녀인이 서있었다.

색날은 작업복에 흰 타올수건을 움켜쥔 녀인은 송골송골 내뿜은 땀방울도 흠칠념 하지 않고 강계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그가 바로 한선화 관리위원장이였다.

그는 방금전에 도에 갔다온 사람으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계에 또 오시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들었다.

가슴이 막 뛰었다. 우리 농장에도 오시지 않을가 하는 행복한 기대도 가져보았다.

그러나 곧 도리머리를 저었다.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계시는 우리 장군님이신가.

하지만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하여 망연히 강계쪽만 바라보고있었던것이다.

마을쪽에서 오고있던 한무리의 조무래기들이 한 선화를 보자 《관리위원장할머니다!-》 하더니 와!- 달려오는것이였다.

《에그, 넘어질라.》

달려온 아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린다. 크고작은 물병들이 허리춤에서 흔들거렸다.

《너희들 어디 가는 길이나?》

샘물집 손자녀석이 코를 훌쩍거리며 빼기였다.

《배나무에 물주러 가요!》

관리위원회 마당앞에 있는 세그루의 배나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아마 장수샘이라고 소문난 그 물을 떠가지고 온것 같다.

《너석들 기특하기란!》

한선화는 종이를 꺼내 그 애의 코를 뺨 문질러주었다.

코밀이 빨개진 녀석이 또 종알거린다.

《이건 맹물이 아니예요. 씨!-》

그 녀석의 물통을 열어보니 정말... 달짝지근한 냄새가 나는 우유였다.

그러니 자기도 먹지 않고... 코끝이 찌르르해졌다.

그는 아이들의 물통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짝장은 영미는 빨간 물병에 꿀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왔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꿀같은 배들이 달릴 거라고 했어요.》

《그래그래...》

한선화는 눈곱이 저려와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파랗게 열린 하늘에서 해빛이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어린것들도 장군님을 그리워하는구나!)

쿵 솟구쳐오르는 뜨거운것이 금시 속눈섭을 헤치

고 밖으로 나올것만 같았다. 정말이지 장군님을 만나뵙고싶었다. 멀리서라도 그 모습을 한번 뵈을수 있다면 한이 없을것만 같았다.

그는 한발한발 걸음을 내짚었다. 저도 모르게 양어장쪽으로 향하였다. 출근길에 양어장의 돌담이 무너진것을 보았던것이다.

그는 감탕을 밟으며 무너진 자리에 적당한 돌을 골라 하나하나 쌓아나갔다. 돌에 손이 찢기여 피가 흐르는데도 아픈줄을 몰랐다.

생각은 강계에 가있었다.

(지금쯤 어느 공장을 돌아보고계실까?)

문득 작년여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그는 관리위원회마당에 들어서다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읍농장을 다녀가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정신없이 달려갔다. 읍농장 감자포전에는 아직도 차바퀴자리가 또렷이 찍혀져있었다.

가슴이 텅 비여진것 같았다. 그다음... 그는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샘솟듯 하는지. 하긴 수십년세월 쌓이고쌓였던 그리움이 아니었던가.

아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을 농장에 모시는것은 그의 필생의 소원이였다.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얼마나 가슴을 치며 몸부림을 쳤던가.

그때부터 그는 자나깨나 경애하는 장군님을 농장에 모실 그날만을 그리며 살아왔다. 그 희망이 없었다면 것처럼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 열번도 넘게 쓰러졌을것이다.

그러나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났다. 이제라도 문득 장군님께서 우리 농장에 오시면 어찌라 하는 생각으로 디디고 일어나 마음을 가다듬곤 하였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제 집뜨락에 오신 장군님을 만나뵙지 못하다니- 가슴은 그대로 미여지는것 같았다.

그때로부터 몇달이 지나간 작년가을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또다시 읍농장을 다녀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날밤 한선화는 돌배나무아래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그 배나무들로 말하면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뵙고 온 날 앞산을 다 뒤져 제일 좋은것으로 떠다심은것이였다.

그 애어린 나무가 이젠 거목이 되었다. 풍성한 가지를 치고 해마다 열매를 맺었다. 지금도 들크무레한 향기와 함께 손을 벌리면 잘 익은 돌배알들이 푹푹 떨어져내릴것만 같다.

이 나무를 어떻게 가꾸어왔던가 아버지수령님께서 농장에 오시면 향기로운 돌배맛을 보시게 하자

고 온 마을이 떨쳐나서 정을 쏟아부었었다.

바람에 넘어질세라 번침대도 세워주고 너인들은 정가로운 샘물을 부어주고 아이들마저 어찌다 별식이 생겨도 가지고 와서 나무옆에 묻어주었다. 가을이면 그 열매를 집집에 나누어주었다.

사람들은 수령님 생각에 목이 메어 돌배광주리를 오래오래 건사해두고 바라보곤 하였다.

그 돌배가 또다시 익어 이렇게 향기를 풍기는데 야! 장군님을 우리 마을에 한번 모실수는 없단 말인가.

그러던 한선화는 조용히 머리를 가로 저었다. 배나무를 정히 쓰다듬었다.

(장군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장군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 하늘에 닿으나 바쁘신 어버이께서 어찌 이 구석진 곳에 있는 너인의 심정까지 다 들어줄수있겠습니까.)

제 비록 외진 곳에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장군님 곁에 두고살겠습니다!)

그는 글썽해진 눈으로 별무리비낀 밤하늘을 이윽도록 올려다보았다...

한선화는 팔소매로 눈곱을 짖어냈다. 그리고는 또 돌을 안아올려놓았다. 이젠 잔돌을 채우고 떼장을 떠서 옮겨놓으면 그만이다.

이제 다 애들이 한 장난이다. 양어장주변에 와서 놀다가는 가끔 이렇게 일을 치곤 했다.

그러나 밋지 않다. 그 애들을 위해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음껏 놀아라. 이 땅의 재부는 모두 너희들의 것이 아니냐! 너희들을 위해 더 힘껏 일하련다. 우리 장군님께서도 너희들을 위해 그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것이 아니냐. 장군님생각이 또다시 간절해졌다.

문득 오래전의 일이 생각났다. 수십마리의 양을 죽이고 해임되게 되었을 때이다.

...너렇청한 방에 몇명의 일꾼들이 앉아있었다. 그앞에 한선화가 서있었다.

그의 눈에는 책상다리밖에 보이지 않았다. 자기의 다리가 가볍게 떨고있다는것이 알리었다.

그는 해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삼덕리를 뜨게 된것이 가슴아파 안절부절 못하였다. 사람들속에서는 그가 이웃농장으로 조동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한선화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이 농장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고 또 수령님께서 우리 농장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가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난 가지 않겠어! 절대로...)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타났던것이다.

《저를 삼덕리농장으로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굳

건한 결심을 가지고있었다.

《선화동무! 마음을 진정하오. 그렇지 않아도 급히 동무를 찾으려던 참이었소.》

우에서 내려온 일꾼이 하는 말이었다.

그 일꾼의 말에 의하면 양들이 죽은 사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알고계신다는것이였다.

한선화는 죄의식에 머리를 들수 없었다.

수령님과 장군님께 기쁨만을 드리겠다던 내가 이제 무슨 꼴이란 말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선화동무에 대하여 말씀이 계시었습니다.》

선화는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죄지은 자식을 욕할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동무는 일을 하자는 동무라고 하시면서 양 몇마리보다 당정책을 관철하자고 아글타글 애쓰는 그 마음이 더 귀중하다고 하시였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당은 한선화동무를 믿는다고, 이번 사고는 모르는데로부터 더 커진것이니 그 동무를 해임시킬것이 아니라 당분간 대학에 편입시켜 공부를 시키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장군님!》

한선화는 두손을 모아잡으며 입귀를 실룩거리었다.

세상에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나같은것이 뭐라고...

그가 어깨를 들먹이는데 일꾼이 가까이 다가왔다.

《선화동무, 어서 농장으로 가보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시는 종자양과 염소가 곧 도착하게 될거요...》

그날 수십마리의 양과 염소를 받아안고 한선화는 너무도 감격하여 그것들을 붙잡고 흐느끼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후터워진다. 온 한생 비치고 바치여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우리 후대들이 농장의 대를 곳곳이 이어가게 해야 할텐데-)

우유며 꿀물이 든 물병을 안고 서있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관리위원회 쪽을 바라보았다.

이때 뒤에서 둔덕길을 뚫아오르는 승용차소리가 났다. 돌아보던 한선화는 너무도 놀라와 두눈을 크게 떴다.

마을길로 까만 승용차대렬이 올라오고있었다.

일순 번개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았다. 눈앞이 보이지 않는것이였다.

순수한 어둠뿐만아니라 순수한 광명앞에서도 인

간은 볼수 없는 모양이다.

한선화는 굳어진채 망두석같이 서있었다.

《선화동무!》

호방하고도 활달하신 음성이 고막을 켜- 울리었다.

순간 그는 정신을 차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고계시었다. 양어장과 잇닿은 오솔길로 햇빛같은 웃음을 지으시며 오시는것이였다.

《장군님!-》

허둥지둥 길에 올라선 한선화는 건어울렸던 팔소매도 채 내리우지 못한채 그이앞으로 달려갔다. 돌부리에 걸쳐 넘어질뻔 하였다.

《선화동무, 천천히... 천천히.》

장군님께서 팔을 벌리고 마주 오시었다. 그의 앞에 다달았을 때에야 한선화는 자기 옷주제가 말이 아니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몸돌바를 몰랐다. 두손을 맞잡고 어떻게 할지 몰라 얼굴만 붉히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었다.

《일을 하고있었구만. 내 여기로 오면서 어쩐지 일하고있는 선화동물 만날것 같더라니까. 허, 손이 다 찢겼구만...》

얼마나 따뜻하게 말씀하시는지 한선화는 오랜만에 헤여졌던 아버지를 만난듯 안정감이 들면서 기쁨이 샘솟는것이였다.

《글쎄, 장난꾸러기들이 양어장돌담을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허허, 그 애들도 이 농장 관리위원장이 부지런한줄 아는 모양이요.》

가벼운 웃음소리가 터졌다. 한선화는 자기가 장군님앞에서 웃고있다는것이 꿈같이 여겨졌다. 정말 눈을 뜨고 꿈을 꾸는것은 아닐가?

#### 4

김현숙은 한선화의 감람발린 작업복을 보는 순간 눈이 딱 감기였다. 손도 말이 아니었다.

혹시 장군님께서 강계에 오셨다는것을 알고 마을 어구에 나와 기다리고있을지도 모른다던 기대감이 여지없이 깨어졌다.

장군님께서는 한선화의 그 험한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었다. 더없이 반가와하신다.

《이자 오면서 보니 정말 이 안에 농장이 있긴 있을가 하고 생각되더라 말이요.》

녀인은 조용히 웃었다.

《우리 농장은 골짜기에 깊이 들어와있습니다. 세계의 큰 돌돈덕을 넘어야 마을이 있다고 하여 삼덕이라고 부른답니다.》

《삼덕이란 말이지.》

장군님께서는 둘러선 크고작은 산발들을 바라보시었다.

김현숙은 속이 상하였다. 눈에 보이는건 산뿐이요 길은 온통 둔덕길이다.

장군님을 언제까지 이런 험한 길로 모셔야 한단 말인가. 원평에서 간절히 청을 드리지 못한것이 후회되였다.

《선화동무, 이야기는 차를 타고 가면서 합시다. 곧장 풀판으로 가봅시다!》

장군님께서 차에 오르시었다. 두 녀인도 뒤좌석에 나란히 앉게 되였다.

강냉이밭들이 옆으로 지나갔다. 김현숙은 저르기 긴장한 눈길로 차창밖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김 하나, 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강냉이대가 넘어질세라 새끼줄도 꿈꿈히 쳐놓았다.

(돌투성이땅에서 그 많은 돌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오른쪽 산기슭에 열댓호가량 되는 살림집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그런데 오래전에 지은 집들이여서 현대감이 없고 또 돌올타리까지 둘러 고치가 났다.

(올타리만이라도 고치라는데 안고치더니 저게 뭐람.)

현숙은 한선화의 고집을 돌려세우지 못한 자기의 처사를 후회했다.

장군님께서도 그 집들을 보시었다.

《저 집들은 언제 지은거요?》

한선화는 현숙을 결눈질해보며 약간 주눅든 목소리로 말씀올렸다.

《오래... 되였습니다. 60년대초에 창성에 갔다와서 처음으로 지은것들입니다.》

《으-음.》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실뿐 다른 말씀이 없으시었다.

김현숙은 은근히 속이 바재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원평에서처럼 또 걱정하시게 한다면...)

낮을 들것 같지 못했다. 원평이 지나치게 화려하였다면 삼덕은 지내 텅텅하다. 관리위원장 차림새부터 이 모양이니... 현숙은 작업복차림의 한선화를 흘깃 바라보았다.

그러면서도 《창성마을》이요, 《맹산마을》이요 하면서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붙여놓고...

언젠가 그는 삼덕리관리위원회앞에 차를 세운적이 있었다.

《관리위원장을 불러와요.》

《발에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원처녀의 말이였다. 알고보니 관리위원회일꾼들이 몽땅 발에 나가고 이 처녀 혼자서 집을 지키고있었던것이다.

(한심하군.)

잠시후에 나타난 한선화는 급하게 뛰어온 모양인지 헉헉 숨을 몰아쉬고있었다. 그런데 차림새가 촌아낙네 그대로였다.

소매끝이 닳아버린 색날은 작업복에 머리에 올려놓았던 흰 타올수건, 먼지오른 편리화, 가막사리가 잔뜩 달라붙은 바지가랭이...

(가막사리나 뜯고 올것이지.)

어쩐지 갱충머리없는 여자처럼 보이였다.

현숙은 쌀쌀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올라타리를 교체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 돌올타리를 두르고사는 집이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세멘트가 없으면 염소 몇마리 주고라도 바꾸어오세요. 올라타리도 고치고 회관도 현대감이 나게 외부장식을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경치좋은 곳엔 전망대도 세우고.》

한선화는 받아들일 잡도리가 아니였다.

《그렇지만 우리 농장사람들은 돌올타리를 좋아합니다. 이 지방에 흔한것이 돌이 아닙니까...》

《관리위원장이 이러니 농장이 언제야 때뻬이를 하겠어요?》...

그때 좀 더 잡아챌뻬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것이 아닌가. 현숙은 입술을 잘근잘근 짓씹었다.

한선화는 여문 감자알같은 동그스름한 얼굴에 웃음을 피우며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시니 사기가 났다. 그 녀인이 철없이 여겨져 현숙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차는 삼덕천기슭을 따라 달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차창을 내리우시였다. 불어오는 바람에 그이의 수수한 옷깃이 팔락이였다.

《현숙동무, 저길 좀 보요!》

장군님께서서는 손을 들어 가리키시였다.

골짜기들이 흘러내리는 강 양안에 2미터 가량높이로 쌓은 제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였다.

제방을 막돌로 일매지게 쌓았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밭에 돌이 하나도 없다 했더니 다 여기로 흘러나온것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해하시였다.

《얼마나 보기 좋소! 확실히 자강도사람들의 일본새가 다르단 말이요.》

김현숙은 앞에 뻗어간 도로를 바라보았다. 별로 넓지는 않아도 땅이 고르롭고 탄탄하여 포장도로 못지 않았다. 사람들의 발길이 덜 닿는 심심산골에 이런 멋쟁이도로가 있다는것이 놀라왔다.

여러번 이곳을 지나다니면서도 왜 보지 못했을까? 김현숙은 자기가 차창밖의 세계를 내다보려고 하지 않았다는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그러니 유리벽 하나 뚫지 못하는 눈길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진정을 들여다볼수 있었겠는가.

보니 한선화는 손끝이 여문 녀자였다. 눈앞의 모든것이 말해주고있었다.

곧게 퍼진 강줄기, 저수지와 발전소, 꽃밭처럼 꾸러진 포전들 그리고 알뜰하게 쌓아올린 제방둑... 별로 화려하진 않아도 어느것이나 실속있고 아담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있었다.

이것이 한선화의 진모습이 아니겠는가. 김현숙은 곁에 앉은 그를 바라보았다.

농촌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녀성이였다. 방금전 양어장에서 돌담을 쌓고있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농장 구석구석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자그마한 돌부리 하나, 풀 한포기에도 자기의 사랑을 바칠줄 아는 인간이 진짜가 아니겠는가.

한선화가 아름답게 생각되였다. 아름다운 인간은 그 어떤 장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실지 《때뻬이》를 해야 할 사람은 자기라고 느껴졌다.

어느새 차는 삼채골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여기에 풀판작업반이 자리잡고있다.

둔덕에 있는 아담한 집집승우리들이 바라보이였다. 그 너머로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 당의 구호가 또렷이 안겨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현숙을 돌아보시였다.

《저 구호를 보요! 한때 창성을 따라배우자고 어디 가나 저 구호를 내걸었댔소.

최근엔 찾아볼수가 없었는데 여기 오니 보게 되는구만.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저 구호가 내리워지지 않은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요! 여기에 온 보람이 있소.》

김현숙은 생각이 깊어졌다.

일찌기 창성련석회의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산을건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과 함께 많은 농장들에서 집집승마리수가 줄어들고 풀판은 뻬기밭들로 변하고 말았다.

삼덕리에서만은 풀판을 지켜냈다. 여전히 축산을 잘하는 농장으로 남아있다.

문득 돌올타리를 돌렸던 마을이름이 떠올랐다. 창성에 갔다와서 지은 집들이라고 하여 《창성마을》. ...그러니 1960년대의 그 마을이 오늘까지 그대로 불리워지고있는것이다.

한선화는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던 20대의 그 꽃나이부터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까지 오직 당의 축산정책을 받들어 성실히 일해온 일군이다.

이런 일군이 보고싶으시여 우리 장군님 일부러 시간을 내시여 여기로 향하신것 아닌가. 그리고 그가 해놓은 일이 그리도 만족하시여 저리도 기뻐하

시는것 아닌가. ... 현숙은 크나큰것을 받아안은듯 가슴이 막 울렁거리는것이였다.

여러개의 집집승우리와 젓가공시설들을 돌아본 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밖으로 나오시였다.

때마침 산으로 오르던 염소들이 무슨 기미를 알아차렸는지 하나같이 이쪽으로 머리를 돌리는것이였다.

《하하, 저것보오! 염소들이 우릴 보고 <영접들어 충!>을 하고있소.》

장군님의 호탕한 목소리에 일꾼들도 웃고 풀판도 반겨 설레이는듯 하였다.

《장군님, 저 염소들이 바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염소들의 후손들입니다.》

한선화가 자랑스레 말씀드리자 장군님께서도 반기시는 낯으로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산등판으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저기 양떼가 흐르는구만. 우리 올라가봅시다!》

김현숙은 속으로 꿈쩍 놀래였다.

(장군님을 더이상 험한 길로 모셔서는 안된다!)

그는 굵이굵이 치달아오른 풀판도로를 바라보며 단단히 결심을 하였다.

이때 한선화가 한발 먼저 앞으로 나서는것이였다.

《장군님! 풀판으로 올라가는 길이 험하고 높습니다. 이젠 그만...》

김현숙은 어찌면 그의 마음이 자기 마음과 꼭 같은지 속으로 손뼉을 쳤다.

장군님께서서는 한선화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시였다.

《선화동무, 동문 한생 저 길을 오르내렸을텐데 내가 한번 올라가는것이 뭐 그리 힘들겠소.

그러지 말고 어서 올라갑시다.》

인자하게 하시는 그이의 말씀에 한선화는 대번에 눈물이 글썽해지는것이였다.

김현숙도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라 말없이 입술만 깨물었다.

승용차는 그 가파로운 길을 따라 산마루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현숙은 참고있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조용히 눈굽을 적시였다.

(장군님! 여기가 어디라고 예까지 오르십니까. 저도 아직 이 높은 곳에는 올라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그 로고를 어느 누가 다 알수 있단 말입니까.)

장군님의 신발굽도리에 진흙이 묻었던 생각이 떠올라 더욱 걱정이 치밀었다.

그는 눈을 습벅이며 밖을 내다보았다.

주위의 모든것이 눈부시게 안겨왔다. 수천수만가닥의 햇빛줄기가 푸른 등판을 적시자 은빛금빛의 물방울들이 령롱하게 반짝인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풀잎들이 재롱을 부린다. 함뿍 취하도록 풍겨오는 풀향기, 꽃향기...

한선화도 행복의 수레를 타고 똥똥 떠오르는듯 기쁨에 함뿍 젖은 얼굴이였다.

어느덧 해발 700미터정점에 올라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풀판을 내려다보시였다.

크고작은 봉우리들에 개암나무, 싸리나무가 숲을 이루고 칙렁쿨이 산을 덮었다.

흰 구름이 피어난듯 양떼, 염소떼가 흐른다. 그것들이 몸을 비비며 올라오는 소리, 맛나게 풀썩는 소리가 들리는듯 싶다.

산아래엔 푸른 주단우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살찐 젃소들, 구성된 영각소리, 방목공처녀의 노래소리...

그뿐인가. 골짜기에 건설한 소형발전소며 양어장, 산기슭의 파수밭, 젓가공품을 싣고 마을길을 달리는 탱동차...

장군님께서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정말 좋구만! 산에는 짐승떼가 흐르고 강에는 발전소가 서고 마을엔 아담한 집들이 줄지어서고... 이자 오면서 보니 돌올타리가 아주 토색적이면서도 산골경치에 잘 어울리더라 말ियो...》

김현숙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었다. 그이의 호방한 음성이 귀전에 울려왔다.

《결국 산덕, 물덕, 돌덕을 다 보는셈이요. 이 돌투성이 삼덕이 세가지 덕을 보는 복받은 삼덕으로 되였다니까! 하하...》

이게 바로 산골농장의 본보기요!》

김현숙은 쿵 마쳐오는 생각으로 하여 머리를 들고 그이의 모습을 우러러 보았다.

환히 웃으시는 장군님, 무한한 사랑과 열정으로 빛발치는 눈빛, 천하를 쥐락펴락하실 활달한 몸가짐...

우리 나라가 하나의 큰 《삼덕》과 같이 보다 살기 좋은 락원으로 되었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랴.

문득 그이의 음성이 젖어들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이걸 보실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결에서 흐느낌소리가 들렸다. 한선화가 울고있었다. 것처럼 드세찬 녀성이 지금은 연약한 소녀처럼 입을 가리우고 어깨를 들먹이였다.

(수령님생각이 나서...)

김현숙도 목구멍이 뜨끈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선화의 곁으로 다가오시였다.

《그만 하오. ...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소.

그 손을 다시 좀 잡아봅시다. 아까 보니 손이 다

찢겨졌더구만.》

장군님께서는 너인의 손을 잡으시고 앞뒤로 뒤집어 보시였다.

《이 자그마한 손으로 마을을 꾸리고 축산도 하느라 멍이 다 박혔구만. 너자의 손이 돌덩이가 되였소. 동무들도 보시오.》

그이께서는 일군들쪽으로 돌아서시였다.

《오죽 일을 했으면 이렇게 되였겠소. 일밖에 모르는 동무요. 한생 일로 늙어온 관리위원장이란 말이요....

이 동무처럼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를 맞아주는 일군들을 볼 때가 제일 기쁘오!

이런 일군이 바로 애국자이고 영웅이요. 영웅의 자격이 있소!》

순간 흐느낌소리가 커졌다. 한선희는 북받치는 오열을 참지 못하고 《장군님!-》 하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눈굽을 지저주는 이 광경앞에 김현숙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행복에 대한 그 어떤 새로운 철리가 가슴에 안겨지는것이였다.

(한생을 이 산골막바지에서 자기의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조국을 받들어온 저 녀인, 진실은 눈에 보이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것이 아닐가. 생의 시작과 마감을 연결시킬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것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닦아진다. 자기의 귀중한 땀방울을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바

칠줄 아는 사람만이 이렇듯 행복의 절정에 오를수 있는것이 아닌가!)

그렇수록 그 삶을 찾아 빛내여준 어버이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품에 눈시울을 적시였다.

태양이 비치여 산속의 풀 한포기마저 처리도 빛나는것이 아닌가!

진정 자연의 구석은 있어도 장군님의 품엔 자그마한 구석도 없는것이다.

김현숙은 다가가 한선희의 손을 꼭 그러쥐였다. 자기의 보드라운 손에 감촉되는 그 녀자의 굳은 손이 전류처럼 찌르르 느껴졌다

한선희가 장군님앞으로 나서며 한가지 청을 드리였다.

《장군님! 이제 두달만 있으면 돌배가 익게 됩니다. 돌배가 익는 계절에 우리 농장에 또 오십시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소박하고 진실한 녀인을 바라보시며 즐겁게 웃으시였다.

《돌배맛을 보러 꼭 오겠소! 산천이 변해도 돌배맛이야 변할수 없지....

김현숙의 눈앞에는 한그루의 돌배나무가 떠올랐다.

번화한 도시나 길옆이 아니라 외진 산기슭 척박한 땅에 뿌리박고있지만 그 열매는 달고 향기로운것이다.

한선희의 한생도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던가.

1960년대도 1970년대도 그리고 오늘도...

##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공화국영웅 리수복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 선군의 총소리

오영재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날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왔던가

아이들은  
이제 해가 바뀌면  
한살을 더 먹게 될  
그것으로 그저 기뻛고

어른들은  
살아온 날과 달을 더듬으며  
자부도 있고 후회도 있어  
생각이 깊었고

조국은  
한해의 가지가지 사변들과  
이룩해놓은 그 많은 재부를 두고  
력사앞에 자기를 총화하며  
래일의 희망으로 가슴부풀  
그런 날이었다

이런 날엔 의례히  
가는 해를 조용히 바래우며  
깨끗한 흰눈이 내렸고  
세월의 바람결은  
사람들의 가슴을 가벼이 쓰다듬고  
조국의 옷자락을 흔들어주는  
그런 다감하고 유정한 날이었다  
이날까지 이 땅에서 맞고 보낸  
한해의 마지막날은

×

하건만 유구한 이 나라 력사에  
이런 때는 없었다  
1994년 이해의 7월은  
하늘도 푸른빛을 잃고  
우리의 가슴속에서 태양이 꺼진  
캄캄한 달이었다

땅우엔 피눈물이 흐르고  
상실의 아픔에 터뜨리는 곡성은  
하늘에 닿았거니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인민  
일어설 힘조차 없었다

원썩들은

위대한 수령을 잃은  
우리 사회주의조선의 종말을 떠벌이며  
우리를 질식시키려  
단말마적인 발악을 가해온 해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인민이  
이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앞길을 열어가야 할것인가  
오직 우리 장군님만을 우러르며  
안타까이 몸부림쳤던 1994년

그해의 마지막날은 결코  
조용히 해가 바뀌는  
유정하고 다감한 날이 아니였거니  
그날에 소문없이  
그이 가신 곳은  
그 어디였던가

×

대구경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그이의 사격소리가 사격장에 울렸다  
12월의 마지막날에  
하늘땅을 뒤흔드는  
총소리... 총소리

온 조선이 몸부림치고  
지구가 흔들렸다  
우주는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그 총성의 울부짖음을  
메아리로 받아 뻬쳤다

기관단총의 탄창을 다 푸시고  
그것도 성차지 않으신듯  
다시 기관총을 잡으시고  
련발로 방아쇠를 당기시는  
그이의 총소리  
사격을 끝내지 않으실듯  
긴 시간을 이어 터치시는  
우리 장군님의 총소리

민족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해를 보내는  
력사의 울부짖음이런가  
허나 그것은  
온 인민의 아픔을 함친것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이 쌓이신

그이 아픔의 터치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총대만이  
수령님의 위업을 이어가실수 있고  
수령님의 조국을 수호할수 있음을  
오직 총대만이  
쓰러진 인민을 일으켜세울수 있고  
민족을 구원할수 있음을

오직 총대만이  
원썬을 무찌르고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수 있음을  
온 세상에 선언하시는  
그이의 확고한 철의 의지  
철의 결심의 폭발이었다

×

1995년 새해  
생존의 모습 그대로이신 수령님앞에서  
그이 비장한 각오를 안고  
새해인사를 드릴 때  
이 총성은 울리고있었다

피눈물의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답게  
힘차게 일해나가자고  
인민에게 보내신 그이의 인사에도  
이 총성은 울리고있었다

수령님께 인사드린 그 길로  
다박술초소를 찾아가실 때에도

## 가사

아침마다 출근길 다그칠 때면  
약속한듯 만나는 의젓한 동무  
군인기상 넘치는 씩씩한 걸음  
어느새 내 걸음도 빨라지지요

어려운 일 언제나 앞장에 서는  
제대군인 그 정열 나는야 좋아

그 길을 이어  
철령을 넘으시고  
오성산과 1211고지에 오르실 때에도  
이 총성은 울리고있었다

인민의 심장을 틀어잡고  
온 세계를 진감시킨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이  
어찌 조용히  
조용히 시작될수 있었을것인가

수령결사옹위  
육탄자폭정신으로  
사생결단의 이 길을 따르며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조선의 위력  
조선의 존엄  
조선의 신념을 안고  
장군님 따라 우리가 택한  
선군의 한길로 역세계 나아가는  
우리의 가슴속에  
오늘도 울려가는  
그날의 총소리 총소리

오직 승리만을 안아오며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진리로 력사에 새겨가는  
위대한 선군장정의 그 길에  
끝없이 울려가리  
아 총소리 총소리...

## 나는야 좋아

김창호

말 한마디 나눈적 따로 없어도  
어느새 그 일숨씨 따라가지요

장군님의 영원한 병사로 사는  
몸에 배인 그 습관에 반했는가봐  
나도 몰래 끌린 맘 부끄러워도  
군인품성 닮아가니 나는야 좋아

## 대동강의 아침

리영환

대동교로부터 련광정까지... 이것이 나의 산책길이다.

오늘 새벽에도 나는 대동강반으로 나갔다.

부지런한 낚시군들은 벌써 여기저기에 주련이 얹어 낚시대들을 들어올리며 탄성을 질러댄다. 낚시군들한테 뒤질세라 산뜻한 체육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사람들이 서둘러 유보도로 달려나온다.

삽시에 대동강기슭은 사람들로 가득찼다. 늙은이, 젊은이, 아이들... 심지어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도 있고 첫 걸음마를 떼여주는 아기엄마도 있다.

그들은 신이 나서 아침운동을 시작한다. 걷는 사람, 뛰는 사람, 물동체조, 태권도동작... 가만히 서있는 사람은 없다. 쪽쪽 내뿜치는 팔과 다리에는 새힘이 용솟음치고 환희로운 얼굴마다에는 상쾌하고도 즐거운 미소가 차흐른다.

오고가는 인사말들은 또 얼마나 정다운가?

《밤새 안녕하셨어요?》

《국장동진 요새 더 젊어지는것 같습니다.》

《아이, 박사할머님도 나오셨군요.》

《새벽공기는 장수의 1등보약이라는데 나도 몸단련을 잘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할게 아니요.》

그들의 인사말을 갑자기 나타난 꼬마들의 달리기 행렬이 삼켜버렸다. 꼬마들은 입을 모아 《강성대국》, 《강성대국》 하고 힘차게 웨치며 강반을 따라 달렸다. 아이들의 웨침소리에 놀랐는지 새떼들이 꽃보라처럼 날아올랐다.

참으로 대동강의 아침은 볼만 하다. 강으로는 물이 흐르고 유보도로는 사람들의 물결이 흐른다.

모두들 웃고 떠들며 아침체조를 했지만 그들과는 달리 나의 마음은 가뭇질 못하다.

...어제저녁 딸애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김형직선생님 탄생 110돐을 맞으며 공장청년동맹에서 웅변모임을 하는데 제가 읊을 웅변글을 좀 써주세요.》

차마 뿌리칠수 없는 딱한 부탁이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고민에 빠졌다. 웅변글을 써본 적도 없거니와 몇페이지도 안되는 원고지에 선생님의 혁명업적을 노래하자니 아름답기만 했던것이다.

글머리가 신통히 잡히지 않아 밤새껏 뒤척거렸다.

그 정신적고충은 이 아침까지 나를 괴롭혔다. 벼한자를 짜자고 해도 틀은 틀대로 차려야 한다고 어떤 글이든 험한것이란 없다.

어떻게 써야 하는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사색은 출로를 찾아 모대긴다. 아무리 정신을 집중하고 머리를 쥐어짜도 글머리는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호랑이가 쥐를 잡자고 해도 혼신의 힘을 다모아야 하는것처럼 손바닥만 한 글을 쓰재도 온넛을 다 집중해야 하오.》라고 즐겨외우던 한 로작가의 말이 이 아침 새삼스레 가슴을 친다.

일순 강반에는 고요가 깃들었다. 물안개 피여오르는 물결우에는 오리들이 동동 떠가고 이따금 비늘을 번쩍거리며 물고기들이 뛰어오르곤 한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오자 실실 늘어진 버들가지에서는 이슬들이 듣는다.

《철썩》, 《철썩-》 물결은 석축을 때리며 흘러가건만 나에게서는 대동강의 물결이 무심히만 보이질 않는다. 대동강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유서깊은 강이다. 이 강을 따라 내려가면 만경봉이 나지고 선생님께서 교편을 잡으셨던 순화학교에 가닿게 된다. 또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학당골사적비가 있고 물결을 거슬러 강동으로 가면 맥전나루에 이르게 된다.

진정 대동강 굽이굽이에 어려있는 선생님의 발자취를 더듬고싶어 내 여기 유보도로 나온것은 아닌지?

그래서인지 귀전에는 선생님이 지으신 시의 구절 구절이 쟁쟁히 들려오는듯 싶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내 마음은 저도 모르게 몽클해온다. 그렇더라.

눈속에서도 굴함없는 소나무의 장한 모습이야말로 선생님의 기상이고 의지이다. 선생님은 그 소나

무의 신념으로 력사의 새벽길을 헤치며 조국광복의  
러명을 안아오시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  
한 지도자이신 선생님의 거룩한 영상이 대동강의  
흐름과 함께 우리앞에 다가서는듯 싶다.

《평-》，《평-》 종소리가 울려온다.

나는 머리를 들어 종소리가 울리는 인민대학습당  
쪽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저 종소  
리가 울리는 인민대학습당쪽으로 가보면 김형직  
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신 학당골에  
가닿게 된다.

그날에 학당골에 울려퍼지던 선생님의 웨침이 종  
소리가 되어 이 가슴을 두드리는듯...

그날 선생님께서는 조선의 독립은 외세의존이나  
청원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 인민이 무기를 잡  
고 민족자력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략을  
내놓으시였으며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다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주체6(1917)년 3월 23일 《조선국민회》를 조직  
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원》의 사상을 꽃피  
우시기 위하여 험난한 투쟁의 새벽길을 앞장에서  
걸으시였다. 그 길은 광복의 러명을 불러 한목숨 서  
슴없이 바쳐야 하는 참으로 간고한 시련의 길이었  
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일제교형리들의 거둬드는  
체포와 박해속에서도 걸음마다 신변의 위협을 당하  
면서도 육신을 지탱하기 어려운 병마에 시달리면서  
도 순간도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후대교육사업과  
독립운동대렬의 통일단결과 무장투쟁을 위하여 생  
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견인불발의 의지로 싸워오시  
였다.

정녕 그이의 한평생은 《지원》의 사상을 구현하  
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일관된 열렬한 애국자,  
결출한 혁명가, 위대한 선구자의 한생으로 빛나고  
있다.

바야흐로 동녘하늘이 휘뽀히 들리고 별거우리하  
게 노을이 피어났다. 그러자 만물은 새로운 활력에  
넘친듯 즐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멀리에서 배고동소리가 울리고 비둘기떼가 날아  
온다.

방송에서 울려퍼지는 노래소리에 발맞추어 사람  
들은 더 신나게 체조를 한다. 온 유보도가 움쉴움쉴  
춤을 추는것 같다. 보느니 모든 사람들의 얼굴마다

엔 기쁨이 넘치고 래일에 대한 환희로움으로 가득  
차있다.

옥류교우로 줄달음치는 빠스며 승용차들, 덩달아  
신바람나게 달려가는 자전거 행렬...

대동강기슭의 고층살림집들에서는 행복의 창문  
을 열어제끼고 거리는 평화로움에 미소를 짓고있다.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대동강의 아침풍경은  
나에게 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아름답고 행복한 대동강반에서 우리의 인  
민이 세상에 부럼없이 웃음짓고 서있으니 불수록  
장쾌하기만 한 대동강의 아침이 어디서 밝아왔으며  
어떻게 빛나는지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알고있는  
지?

과연 오늘의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단  
말인가?

추억도 많은 대동강은 그것을 우리에게 속삭여준  
다.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노래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있다. 우리의 행복, 우  
리의 평화는 《지원》의 러명에서 밝아왔다고...

옳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원》의 사상, 3  
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을 위  
대한 수령님께 유산으로 물려주시였다.

이 귀중한 유산으로 우리 수령님께서 혁명의  
초행길을 헤쳐오셨으며 우리의 장군님께서 수령  
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신  
다.

이렇듯 《지원》의 사상은 백두산혁명가문의 총  
대혈통과 더불어 민족의 녀으로 곳곳이 이어져 오  
늘은 선군의 노래로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는것이다.

바로 이 선군의 러명이 있는것으로 하여 오늘의  
평화가 있는것이다.

나를 찾아나온듯 대동교쪽에 팔애가 나타났다.  
나는 가슴속에 차오른 걱정을 터놓고싶어 바빠 그  
에게로 다가갔다.

드디어 ... 불끈 해가 솟아올랐다.

그러자 대동강물은 일시에 붉게 물들어 끓어번졌  
다.

# 역사의 새벽길에 울려 퍼진 혁명적시가들에 구현된 민족자주정신

조선화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멀리 흘러간 세월, 역사의 새벽길에 높이 울려 퍼진 혁명적시가 《남산의 푸른 소나무》!

위대한 선군태양의 빛발아래 민족자주의 리념이 빛나게 구현되고있는 오늘 이 시의 깊은 세계를 다시금 새겨보느라니 걱정으로 가슴이 설레인다. 하다면 어찌하여 근 한세기의 역사가 흐르는 오늘에도 이 시가 것처럼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이처럼 큰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는 것인가.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어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을줄  
동포야 믿어다오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온갖 옥중고초를 겪으시다 나오시여 또다시 새로운 투쟁의 길을 떠나실 때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뜨거운 심중의 토로인 이 시는 조국과 민족앞에 다지는 엄숙한 맹세였고 인민대중을 반일항전으로 부르는 열렬한 호소였다.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우려는 투철한 의지와 신념,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기어이 광복의 새봄을 안아오고야 말려는 굳은 의지가 얼마나 절절히 안겨오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련관시켜보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몸서슴없이 바치려는 참다운 혁명적인생관을 보게 된다.

몸이 찢겨 가루된다고 해도 대를 이어 싸워서라

도 기어이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고야 말리라는 김형직선생님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강毅한 의지는 민족자주정신의 숭고한 발현으로 된다.

바로 이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시대와 혁명의 고귀한 진리를 밝힌 명시의 생명력은 영원하다.

민족자주정신!

인간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자주정신이 없는 인간의 생이 어찌 사람다울수 있으며 자주정신이 없는 나라와 민족의 존재를 어찌 생각이나할수 있겠는가.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그렇다! 민족자주정신이 없다면 어찌 오늘의 사회주의조선이 있고 우리의 존엄높은 삶이 있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김형직선생님의 시들에서는 민족자주정신이 백박치고있다.

선생님의 시들에 표현된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한 숭고한 애국의 걱정과 반일투쟁정신은 나라의 독립을 《외세의존》과 《청원》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모든 반일애국력량이 단합하여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 고귀한 진리로 인민들을 깨우치였다.

해는 솟아올라도 빛을 느낄수 없었고 봄은 찾아와도 봄을 즐길수 없었던 그 세월. 왜적의 최사술에 칭칭 휘감긴 이 나라 강산에 피눈물만 흐르고흐르던 그때 역사의 새벽길을 걸으신 김형직선생님.

《지원》의 애국사상을 지니시고 명신학교를 세우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주체5(1916)년 3월 20일 뜻깊은 개교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으시였다.

락락장송 큰 나무도 깎아야만 동량이 되고  
공부하는 청년들아 너의 직분 잃지 말자  
새벽달은 넘어가고 동천조일 비쳐온다

깊이 잠든 이 땅을 흔들어 깨우며 이 나라에 광복의 려명을 불러오시던 김형직선생님의 뜨거운 목소리 여기서 울린다.

발벗은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서 해빛같은 조선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얼어들던 이 나라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재생의 더운 숨결을 넣어주시며 교육사업에 심혼을 바치신 김형직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이 시에서 어둠이 가시고 동녘하늘에 태양이 비치 오듯이 조국광복의 그날은 기어이 올것이라고 확신 하시면서 청년들은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열심히 배워야 하며 나라의 기동감으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깊은 뜻을 밝혀주시었다.

아가야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  
아가야 자장자장 잘두 자누나  
친척에는 화목동 부모님겐 효자동  
사랑있다 장중보옥 능할하 자장

아가야 자장자장 얼른 소학교  
아가야 자장자장 벌써 중대학  
박사동이되여라 영웅동이되여라  
우리 나라 광복사업 능할하 자장  
(가요 《자장가》)

여기서 귀하신 아드님에 대한 김형직선생님의 사람은 한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의미를 담고있으며 나라의 광복을 이룩할 민족의 영웅이 되시기를 바라는 크나큰 념원으로 불타는 민족의 기대와 잇닿아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 지어부른 자장가들이 주로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가정윤리적계선에서 노래하는데 머물렀다는것을 놓고볼 때 이 가요의 세계는 얼마나 높은것인가.

어찌 《자장가》 뿐이라.

삼천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학도야  
원대한 뜻을 품고 지식배양 분발해  
동터오는 새 조선을 영원무궁 지나도록 길이 받  
드세

가요 《명신학교교가》에서도 《지원》의 원대한 뜻을 품고 지식배양에 분발하여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몸바쳐 나섬으로써 광복된 새 조선을 영원무궁 길이 받들어나가자는 사상이 힘있게 노래되고있다.

여기서 《명신학교교가》는 당시에 유행되던 《교가》들과는 달리 한 학교, 한 교정의 테두리를 벗어나 조국광복을 무대로 하여 펼쳐지고있으며 학습의 목적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와 같은 심각한 고 포괄적인 문제로 확대시켜 보여줌으로써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조국광복을 기어이 이룩하여야 할 시대적의무를 자각하게 하였다.

바로 여기에 이 시의 철학적심도가 있고 시적일반화의 높이가 있는것이다.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시가문학은 억눌려 신음하는 겨레의 가슴속에서 민족자주의 녁을 불러일으

켰을 뿐아니라 민족자주를 실현할 실제적인 길을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더더욱 큰 감화력을 가진다.

굶주리는 민중아 슬퍼말어라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관가리싸움에 이 몸 바치니  
사나이 총검이 분노에 운다

무도한 왜적들을 쳐물리치고  
동주성 완월루에 다시 올라서  
목청껏 독립만세 높이 부르자  
무산민중 새 사회 세워나가자

김형직선생님께서 청수동회의에서 밝히신 새로운 무산혁명방침과 그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견결한 의지가 격조높이 노래되고있는 시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이 시는 당대사회의 시대적본질과 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무장으로 일제식민지통치체도를 뒤집어엎고 무산대중이 주인이 된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사회를 건설할때 대한 심오한 사상을 밝혀주고있다.

굶주리고 혈투는 무산대중이 한사람같이 일어나 단합된 힘으로 원쑤와 싸워야 한다는 혁명적단결의 사상, 총검을 틀어쥐고 원쑤격멸의 성전에 떨쳐나서자는 불같은 열정과 무산민중 새 사회를 세우자는 절절한 호소로 일관된 시형상의 밑바탕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견결한 반제혁명사상, 총대중시사상이 놓여있으며 그것은 민족자주정신의 빛나는 구현이다.

시의 후반부에서 적극적인 무장투쟁으로 호소하는 전투적정서는 전반부에서 축적된 감정을 전제로 하여 자연스럽게 안겨온다.

시는 앞부분에서 구봉산기슭에 배사공의 구슬픈 노래소리만 메아리치고 왜놈의 학정아래 달빛도 산천도 빛을 잃은 현실, 일제식민지통치의 죄사슬에 얽매어 신음하는 겨레의 비극적운명과 수난당한 조국의 모습을 먼저 제시해줌으로써 슬픔을 분노로 바꾸어 관가리싸움에 몸바치며 손에 무장을 잡고 압제자들을 맞받아 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필연적귀결로 사상감정을 이끌어가고있다.

절승경계를 자랑하며 높이 솟은 철봉산에서 아름다운 조국광을 굽어보며 망국노의 《설음안고 떠나간이》들이 반일항전의 《큰뜻 품고 돌아》왔다 고하면서 《독립군의 총소리》 높이 울리자고 열렬히 호소한 시 《철봉산》, 옛날 선조들이 외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창검을 버리고 군사를 키우던 곳인 통군정에 올라 선조들이 슬기와 용맹을 떨치던 기백으로 애국청년들을 선발하여 군사를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백일원 넓은 뜰에 군사를 길러》, 《압제자들 구축하고》, 《무산자 새사회를 건설》

하자고 호소한 시 《통군정의 노래》에서 선생님의 열렬한 반일애국사상, 무장투쟁사상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와같이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시가문학은 손에 총을 잡고 일제와 싸워 나라를 찾고 새 사회를 건설하자는 무장투쟁사상, 총대철학사상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세찬 격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민족자주정신이 맥박치는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시가문학의 사상정서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감정과 민족생활의 구현, 치밀하고 간결하며 폭이 있는 시적구성과 민족적색채가 짙은 시어구사 등 완벽한 시형상에 의하여 더 훌륭히 펼쳐지고있다.

매개 민족은 심리와 정서, 언어와 풍속에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그것으로 하여 자기나름의 미감과 예술적취미를 가지게 된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대바르고 강의하며 정의감이 강하였을뿐아니라 밝고 명랑하고 낙천적인 생활을 즐겨왔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은 우리 인민의 이러한 민족생활감정을 반영하여 밝고 명랑하고 은근하면서도 씩씩한 맛을 주는 민족적정서로 일관되어있다. 이러한 정서적특징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생활정서에 깊이 발붙이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을 진실하게 구현한데서 얻어진것이다.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시가문학은 《자장가》나 《명신학교교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별적대상

에 국한된 감정정서가 아니라 삼천리 온 강토,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운명, 조국의 앞날과 같은 거대한 시적대상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시적화폭의 폭이 넓고 장중하다. 그러면서도 추상적인 뜬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적감정을 치밀하게 짜인 구성을 통하여 펼침으로써 형상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다.

선생님의 시가문학은 상징비유 등 여러가지 수법을 리용하여 호방하고 웅심깊으며 정서적색채가 짙은 시적형상을 펼쳐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시가문학은 당대의 사회력사적 현실, 무산민중이 요구하는 절박하고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들을 세련된 예술적형식으로 깊이있게 밝힌것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적시가문학의 귀중한 터전으로 된다.

참으로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시가문학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당시 짓밟힌 동포들의 가슴가슴에 민족자주의 념을 심어주고 천만심장을 반일항전으로 불러일으킨 투쟁의 화불, 멸적의 총창이었으며 오늘도 선군의 기치따라 계속혁명앞으로 전진하도록 고무추동하는 혁명적기치로 된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남기신 두자루의 권총을 토대로 하여 시작된 우리 혁명은 백두의 푸른 기상 떨치며 총대와 함께 힘차게 전진하여왔거니 선군조선의 자랑찬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울려퍼지라, 광복의 려명을 불러오며 력사의 새벽길에 높이 올린 투쟁의 노래, 혁명의 노래여!

## 돌아오다

박래설

전선에 아들을 떠나보내며  
어머니는 말했더라  
《애야 부디 이기고 돌아오너라...》

아들의 모습 사라진 뒤에도  
오래도록 언덕길에 서서  
다시금 입속말로 조용히 외웠더라  
《이기고 꼭 돌아오렴 내 아들이...》

아들은 어머니의 당부를 잊지 않았다  
련이은 행군길에서도  
총포탄의 울부짖음속에서도  
어머니의 사랑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어머니는 기다렸다-

전쟁의 기나긴 나날을  
조국과 더불어  
어렵고 시련에 찬  
그 모든 괴롭 이기며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쓰러졌더라 전장에서  
사랑하는 조국땅을  
두팔벌려 안고...

그는 스스로가 불뿔는 적화구에  
가슴을 내대였거니-

어머니에게로 돌아오기 위하여  
어머니의 영원한 아들로 안기기 위하여!

가사

## 사진을 찍네

박두천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에서  
사람들 누구나 사진을 찍네  
어버이수령님 못잊는 마음  
따뜻한 그 품 그려 사진을 찍네  
아 사진을 찍네

수령님 자애론 그 손길인듯  
사립문은 언제나 열려져있네  
오늘도 정답게 품어주시는

그 품에 안기여 사진을 찍네  
아 사진을 찍네

수령님 모습으로 빛나는 만경대  
조선의 모습으로 영원하여라  
세월이 흐를수록 그 품 못잊어  
온 세상이 달려와 사진을 찍네  
아 사진을 찍네

##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리호일

하늘끝이 어딘지?  
강물끝이 어딘지?  
유구한 두만강은 바다같이 설레이는데  
룡당나루 물결을 타고  
지금도 쟁쟁히 들려오는 목소리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한자루 총을 위하여  
돌도 없는 청춘을 바친  
항일투사의 절절한 념원이 깃들어  
지금도 그의 마지막부탁이  
파도소리높이 울려오는가

푸르디푸른 물결을  
붉디붉은 피로 물들이며  
동지를 떠메고 헤엄쳐 건너간 투사  
자기 한몸은 깊은 물속에 빠지면서도  
총을 높이 쳐받들며 웨친 그 목소리  
기슭을 치네, 가슴을 치네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받았노라, 우리는  
투사들의 손에서 손으로  
천백배 원수의 머리우에 불벼락 퍼부은  
그러한 총과 총으로부터 오늘에로 이른  
피어린 백만의 총검을-

우리들이 지금 혁명의 초소에 서서  
한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다른 한손에 총을 쥐고 만질 때에도  
후더운 심장에 룡당나루 물결이 출렁이거니

받았노라, 우리는  
자랑도 혁명의 한길에서  
영예도 조국을 위한 한길에서 빛내며  
오직 혁명을 위해 동지를 위해  
서슴없이 목숨을 바칠줄 아는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간악한 원수들은  
스스로 총을 놓지 않거니  
총을 쏜 원수들과의 판가리싸움은  
총을 쥐고 끝장을 내야 한다는 진리를

그러기에 우리의  
새 교대자들에게 모든것을 넘겨줄 때에도  
혁명동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더불어  
우리는 소리높이 물려주리라  
-동지들, 이 총을 받아달라!

주체56(1967)



## 절세의 위인, 운명의 태양을 우러르며

비전향장기수 박문재

위인이 있어 력사가 빛나고 민족은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떨친다.

위대한 수령이 있고 참다운 조국이 있을 때 민족도 빛나고 개인의 운명도 영예도 빛나는 법이다.

내 한생 마음의 하늘에 높이 모시고 우러러 따름 삶의 위대한 태양, 나의 곡절많은 운명을 지켜주고 참된 길로 이끌어주었으며 끝없이 빛내어주신 절세의 위인, 운명의 태양을 우러러 나는 소리높이 노래 하련다. 나에게 통일애국투사의 고귀한 삶과 값높은 생, 인간이 누릴수 있는 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신 생의 위대한 운인, 삶의 영원한 아버지를 우러러 내 심장의 목소리를 터친다.

### 하늘같은 은총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생명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다. 조국과 민족을 떠나 인간의 참된 삶이란 있을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떠난 개인의 운명이란 있을수 없다. 조국과 민족이 수난의 운명에 처하면 개인의 운명도 그 수난을 면할수 없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인 동시에 내가 한생을 통해 피로 새긴 교훈이기도 하다.

삼천리조국땅에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나는 《카프》 작가였던 박팔양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우리 겨레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던 그 암흑의 시기에 식민지시인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과 슬픔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수난의 그 세월 날더러 진달래꽃을 노래하라 하십니까, 이 가난한 시인더러 그 적막하고도 가냘픈 꽃을, 이른봄 산골짜기에 소문도 없이 피었다가 하루아침 비바람에 속절없이 떨어지는 꽃을 무슨 말로 노래하라 하십니까 하며 애닦고도 외로운 진달래꽃을 불안고 울던 나의 아버지 박팔양, 아버지와 더불어 나도 방황과 류랑의 길에서 불행한 유년시절과 소년시절, 청년시절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내가 자라난 곳은 고향 개성에 있는 나의 외가집이었다. 세살때 아버지와 헤어져 어머니의 행처조차 모른채 나는 부모사랑이라고는 못받아보고 외로이 외할머니손에서 자랐다. 나는 열두살 어린 나이에 외할머니가 짜준 수수엿을 품고 고향을 떠나 홀로아버지가 가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그때부터 고

달뜨기 그지없는 타향살이에 몸을 내던졌다.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유명한 시인이 될것을 꿈꾸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고학을 할 때에는 시도 좀 써보았다. 한때는 철학가가 되려고도 했었다. 허나 그 모든것은 갈 곳이 없어 이국의 황량한 거리를 헤매이는 나라잃은 사나이의 비참한 처지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너무도 순진한 꿈에 지나지 않았다.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이리저리 버림받으며 피어린 방황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식민지청년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나의 머리에는 점차 혁명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어두웠던 하늘에 솟은 위대한 태양의 빛받은 아버지와 나에게도 비쳐졌다. 백두산에서 높이 울리는 조국광복의 총소리는 일제식민지명예를 쓰고 짓밟히며 우는 2천만 동포와 더불어 아버지와 나의 가슴에도 힘차게 메아리쳐왔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봄이 왔다며 《승리의 봄》을 웨치던 아버지. 그것은 그대로 백두산호랑이, **김일성**장군님의 항일혁명투쟁에 고무된 식민지시인의 걱정의 터침이었다.

절세의 영웅, 조선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는 이 식민지청년의 설음쌓인 가슴에 광복의 희망을 안겨주고 새힘을 북돋아주었다. 그때는 아직 혁명이 뭔지도 몰랐던 나였지만 일제를 반대하여 그 무엇인가 해보고싶은 충동이 울컥 울컥 치밀어오름을 억제할수 없었다. 그러던 때에 《학도병》에 걸리자 나는 몰래 달아나 고향으로 나왔다. 거기에서 반일학생독서회에 참가하였는데 밀정의 밀고로 형무소에 붙잡혀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가 바로 조국이 광복되던 해 4월경이었다.

망국의 고향은 나라없는 이 청년에게 감옥밖밖에 준것이 없었다. 반일도 혁명도 똑똑히 해보지 못한채 나는 몇달동안 감옥신세까지 지고 결국은 형무소에서 광복의 날을 맞이하였다.

외롭고 쓸쓸했던 유년시절, 소년시절부터 시작된 고달픈 이국살이, 눈물겨운 고학과 막로동, 중세기적인 형무소생활, 이것이 광복전 나에게 차례진 운명의 전부였다.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다. 망국노의 설음은 나의 가슴에 너무도 한많은 상처를 남기었다. 그것은 정녕 나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비참한것이였다.

광복의 날 형무소문을 부시고 나온 나는 개성시가를 발이 닳도록 돌며 목이 터져라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김일성** 장군님의 개신 연설내용도 그곳에서 알게 되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김일성** 장군님의 말씀은 망국의 상처로 피멍이 든 이 20대 청년의 가슴을 순간에 깨끗이 가셔주었다.

그후 나는 평양으로 올라왔다. 광복후 조국에 나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로동신문》의 전신인 《정로》 편집국장으로서 일하던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아버지에게 마련해주신 살림집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모든것이 꿈만 같았다.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옥백미 다섯가마니도 놓여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보는 위대한 태양,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은 수난의 세찬 바람에 시달려온 이 청년의 거칠어진 가슴을 걱정해 젖게 하였다. 나는 후날 남녘의 감감한 감옥에서도 그때를 잊지 않고 계속 회상하곤 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마음껏 배우며 참된 삶을 누리였다.

언젠가 한번은 아버지가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다.

《예, 문제야 오늘 나는 영광스럽게도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한낱 나약했던 시인에 불과한 이 못난 애비에게 하해같은 신임과 사랑을 부어주셨다. 나는 장군님사랑이 너무나 고마와 흐느껴 울었다. 내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하해같은 은혜에 보답할수 있겠니?...》

그날은 아버지도 나도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와 울었다.

나는 4월남북련석회의가 진행된 해 5.1절행사때 주석단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처음으로 뵈을수 있었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풍당당하면서도 자애에 넘치신 모습을 우러러 나는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아! 저분이 바로 백두광야를 주름잡으시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하시던 전설적영웅 **김일성** 장군님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아버지와 나에게 참된 생을 안겨주신 위대한 태양, 생명의 은인이시구나....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환하신 모습을 심장깊이 새기고 또 새겨안았다.

참으로 절세의 위인,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참된 행복을 누린 광복후의 그 꿈같은 나날, 그것은 후날 내가 수십년간 모진 악형과 참기 어려운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고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킬수 있게 한 정신적원천으로, 힘으로 되었다.

## 드물지 않는 신념의 뿌리

세상만물은 하늘의 태양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태양은 무한대한 빛으로 어둠을 가시고 광명을 주며 뜨거운 열로 만물을 키워주고 보호해준다. 하기에 예로부터 사람들은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신성한것을 태양에 비겨왔다.

지난날 약소민족, 일제식민지노예의 민족으로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긍지와 존엄을 지닌 태양민족으로 되게 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인민은 만물에 빛을 주고 열을 주는 태양에 비겨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따르고있다. 정녕 하늘의 해없인 살수 있어도 마음의 해님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는것이 우리 인민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나는 남녘땅에서 피는물나는 고생을 다 겪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위대한 태양, 운명의 태양이 소중히 간직되어 밝은 빛을 뿌리었다. 그 위대한 태양의 찬란한 빛발이 있었기에 나는 것처럼 기나긴 세월 세찬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신념과 혁명적량심을 잃지 않았으며 어머니조국의 품에 다시 안길수 있었다.

내가 공화국북반부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 서울로 왔다.

《그래 아버지는 기어코 북으로 가시렵니까?》

그가 두번째로 나에게 하는 질문이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기약할수도 없는 순간이었다. 작별의 눈물을 흘리는 자식의 측은한 얼굴을 바라보는 내 심정 역시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자식을 붙안고 나는 눈물을 쏟지 않을수 없었다.

《창완아, 나의 공화국생활은 광복직후 고작 3년이었다. 그리고 남조선에서의 생활은 감옥살이, 바깥살이로 50년이 넘지. 내 인생에서 공화국생활 3년은 사람다운 참된 삶이였고 남조선에서의 50여년은 생각만 해도 몹시리쳐지는 시련과 고역에 찬 생활이었다. 나는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겼던 그 꿈같은 3년을 위해 50여년을 서슴없이 바쳤고 그 3년을 지켜 50여년을 꿋꿋이 이겨왔다. 시련의 50여년 세월 내가 한시도 잊지 않은 품이 있다. 그 품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나의 삶의 전부이다 나는 그 품을 찾아가는것이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과 헤어져 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수십년세월 내가 그토록 절대적으로 믿고 우러르며 자나깨나 그리고 또 그런 위대한 태양의 품, 그 품은 그 어떤 역경과 시련도 맞받아 뚫고나가게 해주고 나의 신념과 량심을 언제나 붉게 해준 마음의 역센 기둥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의 필승의 신념이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수령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그것은 억년 드물지 않는 신념을 굳건히 자래워주는 마음의 깊은 뿌

리이며 그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신념과 지조를 버리지 않게 해주는 한없이 순결하고 진실한 것이다.

어느해 적들에게 체포된 나는 살인과 고문의 소굴로 악명떨친 악마의 도살장 남산지하실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악형을 당하였다. 교형리들은 나 하나를 놓고 여러명의 취조관들을 교대로 들여보내면서 숨돌릴 사이도 없이 밤낮으로 취조를 했다. 웅근 8일동안 나를 순간도 재우지 않고 립체적인 《마라손 취조》를 했는데 9일째 되는 날 나는 끝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때 놈들의 각목에 맞고 나는 한쪽 눈이 멀고 뒤머리가 갈라져나가기까지 했었다. 놈들은 살인재판을 벌려놓고 나에게 사형을 선포하였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두번째로 되는 사형 선고였다. 하지만 나는 재판정이 떠나갈듯이 《김일성동지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김일성동지 만세!》, 그것은 내가 사형을 당하는 최후에도 부르고싶었던 심장의 웨침이었다. 나는 옥중에서 같이 싸우던 동지들의 영웅적인 최후를 수많은 목격하였다. 그들은 사형장에서 《김일성동지만세!》를 마지막힘을 다해 소리높이 부르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하였다. 동지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어버이수령님을 마음의 태양으로 간직하고 싸웠으며 자기 수령에 대한 혁명적신념을 조금도 버리지않았다.

사형을 선고받고 해빛 한점 없는 2중철창속에서 나의 머리에 언제나 떠오른것은 백두산이었다. 당국의 그 세월 백두산의 하늘에 높이 솟아 2천만 동포에게 광복의 희망과 새힘을 안겨주던 조선의 태양, 수난에 찬 운명의 길에서 헤매이던 나와 아버지를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은혜로운 빛을 주고 새삶을 안겨준 삶의 위대한 태양, 나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 태양의 하늘같은 은덕을 저버릴수 없었다.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의 모습으로 깊이 간직되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내가 사형선고앞에서도 웃으며 태양만세를 높이 부르며 한것이다.

나의 피어린 옥중살이에는 무서운 악형만 있지 않았다. 사형집행을 눈앞에 두고 감방안으로 뜻밖에도 안해의 리훈수숙장이 날아들어왔다. 아들 둘, 딸 하나 키워오며 그 모질은 세파앞에서도 나의 감옥경력을 두고 언제 한번 낯색을 흐려본적 없던 안해였었다. 나는 격분에 치를 떨었다. 것처럼 순하고 성실하며 아이들의 다심한 어머니였던 안해를 리훈장까지 쓰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 악마같은 원수들에게 나는 결코 무릎을 꿇을수 없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 수표했다. 혁명가는 배신을 모른다는것을, 나의 가정까지도 파괴하며 전향을 강요하는 가증스러운 너희들에게 전향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것이라는것을 뚝뚝이 보여주고싶었다.

사형수에 대한 전향공세는 끊기지 않았다. 담당계장이 흉물스러운 상판대기를 해가지고 내앞에 나

타났다.

《북조선에서 <카프> 시인이던 당신의 아버지 박팔양을 처단했다고 한다. 아버지를 처단한 북조선에 이제 더 미련을 가질게 있는가? 어리석게 북조선의 사상에 심취되어있지 말고 이제라도 생각을 고쳐먹는것이 좋을거다.》

내가 무기형을 받은후에도 그들은 아버지가 처단되었다는 허위자료들을 꾸며가지고 지꼈게 나를 괴롭혔다. 아버지가 정말 처단되었단 말인가? 아니다, 절대로 그럴수 없다.

나의 눈앞에는 경력에 문제가 있던 아버지를 믿어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랐다. 어느새 나의 입가에서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절절하게 흘러나왔다. 심장에서 나와 심장으로 흘러든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힘있는 선율은 그 어떤 고통과 시련앞에서도 나의 신념이 무너지지 않고 더 백배로 굳세도록 하여준 내 신념의 숨결로 되었다.

## 출옥후 뒤달 지나

내한생 가장 슬픈날을 맞게 될줄이야 어이 알았겠는가. 수십년세월 나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간직되어 밝은 빛을 뿌리며 나에게 그 어떤 풍파와 고난도 꺾기지 이겨나갈수 있도록 힘을 주고 신념을 주던 위대한 태양, 그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천만뜻밖에도 서거하셨다는 비통한 소식이 나에게도 전해졌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나는 그것을 확인해보려고 읍에까지 나갔었다. 하지만 그것은 믿고싶지 않아도 믿지 않을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나는 줄지에 주저 않고 말았다.

이게 웬일인가? 태양이 꺼지다니?

하늘이 통채로 무너지고 땅이 꺼져내려 앉는것만 같았다. 남녘의 그 세찬 바람속에서도 오로지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마음의 태양, 마음의 기둥이 한순간에 꺼지고 통채로 무너지는것만 같은 심정이어서 나는 먹고 자는것을 아예 잊고말았다.

하지만 우리 운명의 태양이 계속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우리 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이 세상 어느 위인도 견줄수 없는 걸출한 사상리론가 이시며 탁월한 령도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인민은 반만년력사에 처음으로 되는 대국상을 당하고서도 쓰러지지 않고 일떠섰다.

나도 일떠섰다. 백배, 천배로 용기를 냈다. 나는 백두의 기상과 담력, 뛰어난 지략과 령군술로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시며 만능의 보검인 위대한 선군정치로 주체조선의

위력을 온 세상에 펼치시고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는  
희세의 천출위인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음속으로 끝  
없이 우러르고 또 우러르며 희망과 신심을 안고 꽃  
곳이 살아갔다.

드디어 온 민족을 것처럼 들끓게 한 《6. 15 열  
풍》이 남녘땅에 몰아쳐왔다. 그것은 곧 경애하는  
장군님 열풍이었다. 어버이장군님의 위풍당당하고  
거룩하신 위인의 모습이 텔레비존으로 방영되어 온  
남녘땅이 환희로 들끓었다. 다른 고장들과 마찬가지로 부산의 거리거리, 골목골목, 집집마다에서 사람  
들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불러주  
시는 력사적인 6. 15 북남공동선언에 접했을 때 나  
는 꼭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것처럼 위대하시고 사랑  
과 의리가 깊으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태양의 품, 꿈  
속에서 안겨보던 그 따사로운 품이 못내 그리워 잠  
을 이룰 수 없었다. 하루라도 빨리 그 품에 안기고 싶  
어 바재이는 마음에 잠을 설치며 날과 날이 흘렀다.  
살아서는 감옥문을 나서리라고 생각 못했던 나의  
운명을 지켜준 그 품, 모진 악행을 당하고 피눈물나  
는 고생을 하면서도 어느 한시도 잊은 적 없고 그리  
고 또 그리며 힘을 얻고 희망을 찾던 그 태양의 품,  
그 품이 나를 손저어 부른다고 생각하니 높뛰는 마  
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

내 정녕 그 태양의 품에 안긴단 말인가. 내 평생  
이런 행운도 있는가.

바람세찬 남녘땅에서 이제는 영락없이 죽음의 신  
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이 몸을 우리 장  
군님께서 불러주시니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  
으로 나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마음은 청춘  
의 힘과 용기를 받아안아 동실동실 구름을 타고 어  
버이장군님 계시는 북으로 달리고 또 달리었다.

## 위대한 은인, 삶의 영원한 어버이

마침내 그날은 왔다. 나의 인생에 가장 기쁜 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품에 안기는 꿈같은 날이  
드디어 왔다. 장장 수백리 연도에 펼쳐져 설레이는  
환영의 꽃바다, 꽃물결을 헤치며 50여년 세월 그치  
럼 그리고 그리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나는 안기었  
다.

나는 고려호텔에 도착하여 다부작예술영화 《민  
족과 운명》의 《카프》작가편을 보았다. 그 시절  
《카프》작가들이 나오는 영화이면 행여나 그 어느  
모퉁이에서나마 아버지의 이름이라도 언뜻 비쳐지  
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요청했던 것이다. 그  
런데 영화에서 《처단》되었다고 하던 아버지를  
보게 될 줄이야 내 어이 알았겠는가. 거의 반생이나  
나의 가슴을 불안하게 해주던 아버지가 영화에 비  
쳐지고 있었다. 망국의 설움을 안고 복잡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아버지, 한때 시단에서 따돌림을 받고

죄책감으로 주눅이 들어있던 아버지를 어버이수령  
님께서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고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시는 화면앞에서 나는 눈물이 앞을 가리워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아버지가 80이 넘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시기까지 어버이수령님과 위  
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창작활  
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가슴 한껏  
격정이 북받쳐올라 온밤 잠들지 못하였다. 복잡한  
운명의 길을 걸어온 아버지를 넓은 사랑의 한품에  
따뜻이 품어주시고 어지러운 과거를 백지화해주시  
여 보람찬 생을 안겨주시었으며 인민의 추억속에  
남아있게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정녕 수령님과 장군님은 우리 가정과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며 운명의 어버이이시다.

나는 얼마나 위대하고 자애로운 품이 나를 지켜  
주었으며 얼마나 다심하고 그 따뜻한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있었는가를 미처 다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조국의 품에 안겨 열이틀째 되던 날 위대한 장군님  
께서 마련해주신 옷을 입고 식당으로 내려가야 한  
다고 하기에 나는 넓은 식당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식당문으로 들어서니 낮익은 일꾼들과 동지들이 모  
두 박수갈채로 나를 맞아주는 것이 아닌가. 한 일꾼  
이 나를 향기로운 꽃뭉치와 갖가지 음식들이 놓여  
있는 식탁중심자리로 안내하였다.

《오늘은 선생님의 생일날입니다. 축하합니다.》

그제야 나는 그날이 수십년 세월 까마득히 잊어버  
렸던 나의 생일인 것을 알게 되었다. 순간 울컥 목이  
메이고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내 자신조차 잊어버렸던 생일, 수십  
년 감옥살이속에 파묻혔던 나의 생일을 이렇게 잊  
지 않으시고 축하해주니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고마  
움이 가슴한가득 고여올랐다.

한 일꾼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저에게 뜨거운 은정과 믿음을 베풀  
어주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이야기해주었다.

나는 오열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어린애처럼 영  
영 소리내어 울고 또 울었다.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께 걱정만을 끼쳐드린 이  
박문제가 무엇이라고 그렇게까지 하늘같은 은정 늘  
부어주십니까? 저는 반세기가 넘도록 남녘땅에서  
오직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싸워  
왔습니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계셨기에 제가 원  
썬들의 악랄한 고문과 모든 회유기만도 다 이겨내  
고 신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원썬들에 의해 다 죽  
었던 이 몸을 이렇게 조국으로 불러주신 장군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저때문에 걱정을 하시며 저의 운  
명을 지켜주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셨  
으니 그 사랑, 그 믿음을 제 이제 눈에 흠이 들어간  
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장군님, 정말 고맙습  
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장군님께 이렇게 아뢰고 또 아  
뢰었다.

위대한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은 인생말년에 나에게 지옥에서 낙원으로의 극적인 운명전환을 가져다 주었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은 정녕 끝이없다.

수난과 슬픔, 시련과 고통으로 가득찬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온 나를 운명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영광과 행복의 상상봉에 올려 세워주시었다. 진정 고목에도 꽃을 피우시고 다 죽었던 몸도 되살려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사랑, 대를 이어 뜨겁게 이어지는 그 하늘같은 은정과 믿음을 내 이 세상에 백번 다시 태어나 갇은들 어이 다 갇을수 있으랴.

위대한 어버이의 품에 안겨 이 세상의 모든 영광

과 행복을 다 누릴수록 남녘땅에 두고 온 자식들 생각이 나군 한다. 나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았을 때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속에 학원복을 입고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원아들을 보며 남조선에 두고 온 자식들 생각을 하였다.

어버이장군님 품에서 한생 상상도 할수 없었던 행복을 누리는 나의 이 모습을 남녘의 자식들한테 보여주고싶은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것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통일이 이룩되어야 한다.

인생은 마무리를 잘하여야 빛이 난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며 삶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며 받들어나가는 그 길이 바로 내가 인생의 끝까지 걸어갈 길이다.

## 나의 시

진춘근

나는 오늘도  
시가의 붓대를 총대처럼 비껴들었다  
백악관을 겨누어  
미제를 향하여

다섯살난 내가  
다시는 엄마품에 안기지 못하게 하려  
50년대 그때 내 고향마을에  
줄폭탄을 퍼부은 미제  
그 간악한 원썬놈들때문에  
어머니는 숨지고  
나는 두손을 쓸수 없는 불구로 되었다

하지만  
두세기를 호홉하며  
나는 살아있다  
오로지 복수하기 위하여  
최후승리의 그 아침을 마중하기 위하여  
의수를 한 손에 붓대를  
총대처럼 틀어잡았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이 가슴속에 더 세차게 피끓는 복수의 용암  
그 불물에 붓을 적시어  
나는 오늘도 시가의 글줄을 엮어간다

나의 시는  
자자구구 피가 흐르는  
50년대 그날의 아픔

식어가는 어머니 젖가슴을 허비던  
나의 피울음

나의 시는 언제나  
초소로 먼저 날아갔다  
병사들의 총대에 총탄으로 채워지고  
추켜든 포신에 포탄으로 장약되기 위해

대양진너 멀리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  
전쟁광중에 미쳐날뛰는  
너 오만한 미제침략자들이  
나의 시는 네놈들의 머리에  
번개의 칼로 번쩍이리라

그렇다 전화의 그날  
나의 고향을 불태우고  
나의 두손을 빼앗은  
네놈들과 결산할것이 많은 나기에  
오늘도 증오의 시를 쓴다  
복수의 시를 쓴다

나의 이 시는  
엄마잃고 두손잃은  
어제날 소년의 피울음이 아니다  
네놈들을 복수하기전에는  
눈조차 감을수 없는  
이 나라의 분노를 재운  
멸적의 폭탄이다

## 가사

# 장군님의 그리움속에

김재룡

조국의 초소를 찾으시여도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도  
장군님 제일먼저 가보신 곳은  
수령님 사적비 빛나는 글밭  
아 언제나 장군님의 그리움은  
인민위한 그 길에 함께 계신 수령님

넓어진 새땅을 걸으실 때도  
지하의 절경을 보실 때에도  
장군님 간절히 하시는 말씀

수령님 여기에 모시였으면  
아 언제나 장군님의 그리움은  
한평생 인민위해 바쳐오신 수령님

쪽잡에 단꿈을 펼치실 때도  
전선길에 새날을 맞으실 때도  
장군님 바라신 소원은 하나  
수령님 높은 뜻 꽃피워가리  
아 언제나 장군님의 그리움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실 수령님

# 웃놀이

김정철

반공중에 오락가락 날리는 꽃잎인가  
이 하루 그네터는 각시네들 차지요  
강변의 씨름터는 남정네들 판이라  
남녀로소 한데 모여 수리명절 즐기는데  
아무렴 웃놀이 그이상 더 있을가

런거퍼 세번씩이나 모를 친 저 색시  
틀림없이 룡해공군 삼태자 태줄이다  
좋은 세월 한생을 다시 살고픈  
할머니의 남모르는 그 진정  
웃가락이 먼저 알아 아쁠싸 후뜰

새파란 풀판우에 웃가락이 짜그르르  
새파란 풀판우에 웃음도 짜그르르  
모야! 개야! 풀이다! 걸이다!  
가락마다 그 이름 그지없이 소박해도  
그속엔 내 민족의 력사가 있어라

모난 돌을 집어들고 들짐승 쫓던  
태고적 유년기부터 이 땅에서 살며  
그 터전우에 씨뿌리고 짐승길러

짐승마다 제나름의 이름을 붙이며  
문화를 이룩해온 슬기로운 우리 조상

풍속을 잃어버리면  
5천년을 잃게 되는 목숨같은 우리것  
세상에서 제일인 우리것을 지켜  
이 땅에 애국자도 영웅들도 있었다  
선군의 총대도 번쩍이고있다

그처럼 어려운 때 손달구지 끌면서도  
웃가락을 울리며 밝게 웃던 녀인들  
그 모습에서 민족의 슬기론 력사를 보시며  
그리도 기뻐하신 우리 장군님  
아, 그 미소에 피어난 아름다운 풍속이여

봄명절 눈부신 해빛속에  
대쪽같은 웃가락이 튀어오른다  
총대로 검은 구름 걷어낸 하늘가에  
승리의 축포처럼 터지는 환희여  
-모야, 개야, 썩, 걸이야!...

## 1950-1953

-한 전쟁참가자의 일기에서-

김형준

### 단풍나무 푸른 잎새

전선으로 떠나며  
전사는 품고 갔네  
고향의 언덕에 설레이던  
아름다운 단풍나무 푸른 잎새  
  
승리하고 돌아오라  
고향처녀의 부탁 담긴  
수첩갈피에 소중히 간직한  
처녀의 마음 단풍나무 푸른 잎새

원췌의 폭격에  
고향은 불탔어도

언제나 마음속에 설레이던  
고향의 모습 단풍나무 푸른 잎새

그 잎새 숨쉬는 가슴으로  
전사는 적진 향해 기여갔네  
고향의 단풍나무도 함께 갔네  
승리한 언덕의 단풍나무 푸른 잎새

전사는 돌아오지 못했네  
고향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더운 피로 물들여진 붉은 단풍잎  
영생의 금별로 빛났네 단풍나무 푸른 잎새

### 전승메달이야기

전쟁의 3년세월  
지나온 마을 들린 고장에서  
전선에 자식과 남편을 보낸이들  
우리 얼마나 많이 만났던가

우리가 들린 길가집 어머니들  
전선에 나간 아들소식 물을 때  
하많은 병사중 우리 어찌 알라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였지

-우리가 왜 그를 모르겠나요  
전선신문에 소개된 정찰병을  
지금쯤 어머니의 아들은  
부대적으로 제일 큰 훈장을 받았을겁니다...

발머리에서... 우물가에서...  
우리가 만난 녀인들

남편과 애인의 소식 물을 때면  
우리는 큰소리로 말해주었지

-원 참, 우리가 그를 모르다니  
사단적으로 소문난 저격수를!...  
지금쯤 아주머니 남편의 가슴엔  
메달이 철렁거릴겁니다...

아, 이것은 후방의 어머니와 애인이  
우리의 소식을 묻거든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전선병사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었던가

그래 정녕, 우리가  
거짓말을 하였던 말인가  
그래 정녕, 전승병사 훈장많은 가슴에  
전승메달이 빛나지 않았단 말인가?!...

### 농민병사

열세번째로 달려드는  
원췌를 물리친 전호가에  
한 전사 땅을 그려안고있다  
입가에 웃음을 피워문채...

승리의 기쁨을 땅과 나누는듯  
땅을 그려안은 전사  
그의 가슴에선 피가 흐르고있다  
상처입은 땅에 자기 피를 수혈하듯

그는 장군님 주신 땅에  
이름 석자 새긴 패말을  
삶의 뿌리로 깊이 내리고  
생의 꽃을 피운 농민병사

그는 이렇게  
삶이 흐르는 피로써  
땅과 영원한 사랑의 연분을 맺은  
평범한 농민병사였다

## 꽃강냉이

분대장과 분대원  
매복근무 나갔다  
배고플 때 먹으라고  
소대장이 뒤여준 꽃강냉이 한이삭

나어린 분대장도  
아바이 분대원도  
백날장마에 후방은 멀어져  
한끼 식량은 꽃강냉이 한이삭

분대장의 귀속말  
-아바이, 참 이상도 하지요  
명령은 내려만 지는 명령!  
-그래서 명령은 집행만 있거든!

분대장은 아바이손에  
꽃강냉이 쥐여주었다  
그것은 내려만 지는 명령!  
전호가에 고향을 이어준 꽃강냉이 한이삭

아바이대원의 귀속말  
-분대장 참 이상도 하지  
사랑은 내려만 지는 법이니  
-그래서 받기만 하는것이 사랑이라 하지요

아바이대원 말없이  
분대장의 손에 쥐여주었다  
그것은 내려만 지는 사랑!  
전호가에 아버지를 불러준 꽃강냉이 한이삭

근무를 교대하며 그들은  
적정과 함께 넘겨주었다  
몇교대를 넘겨가며  
그들의 배를 불러준 꽃강냉이 한이삭

아, 꽃강냉이 한이삭은  
장군님 찾아주신 고향땅을 안고산 전사들  
그 땅을 전호가에 잇고 씨뿌려 가꾼  
전승식량의 천만이삭 꽃강냉이였다

## 《전승다리》

돌격구령이 내렸다  
적진 향해 달리던 전사들앞에  
막아선 가시철조망  
한 전사 그우에 몸을 덮었다  
-동무들! 나를 딛고 앞으로!

전사들 그를 딛고 넘어  
고지우에 공화국기를 날렸다  
철조망우에 었드린 전사의 모습은

1950-1953년세월이 교각이 된  
《전승다리》!

아, 1950-1953년을 거머쥔  
이음표같은 무수한 《전승다리》 위로  
전승의 대오와 세월은 흘렀다  
1950년 전쟁에서...  
1953년 전승으로!

## 열쇠

아들이 전선으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손에 쥐여주었네  
고향집 자그마한 하나의 열쇠

그리고  
아들에게 말하였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날  
내가 발일에 나갈수도 있으니...

그 전사 3년세월  
열쇠를 품고 싸웠네  
습격의 칼벼랑도 지뢰밭도  
장참 승리의 길만을 열어준 열쇠

그 전사  
열쇠를 품고 싸웠네  
원췌에게 죽음만을 열어준 열쇠  
원췌에게 한치의 땅도 열어주지 않은 열쇠

고향에 돌아온 전사  
어머니 발일에 나간 집에서  
깊은 잠 들었네 열쇠를 손에 쥔채  
승리자만이 간직하고 싸운 고향집열쇠

어머니는 보았네  
총뭇이 박인 줄안에 있는 열쇠  
고향집도 있는 조국의 큰집문을 지켜  
아들이 품고 싸운 신념의 열쇠 전승의 열쇠



## 태양과 별

태양이신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하늘의 별인가  
금별의 영웅메달

전승광장 높은 단상에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수령님  
하늘같은 넓은 가슴에  
별처럼 빛나는 영웅메달

영웅메달 빛을 뿌리니  
승리의 광장은  
위훈의 별바다  
그 별 땅우에 흐르는 전승은하수

조국광복의 그날  
수령님의 가슴엔  
3천리강토가 피워올린 꽃다발  
그 꽃다발은 광복된 조선

전승의 오늘엔  
온 강토, 온 민족이  
금별의 영웅메달이 되어  
수령님 품에 안겼나니

수령님 계시여  
승리를 펼친 민족  
수령님 품에 안겨  
빛을 뿌리는 조선

오! 수령님 가슴에 빛나는  
금별영웅메달은  
수령님 품에 안긴 영웅조선이었다  
수령님 품어주신 영웅인민이었다

태양이신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하늘의 별인가  
영웅의 금별메달

## 나의 인간결산서

박호범

나는 더 오래 살아야 한다  
인간의 총화도 앞에 있고  
인간의 최후결산도  
눈앞에 두고있지만

맨발로 고향의 거리를 뛰어다니며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던 이 가슴에  
미제라는 말이 기여든 그날부터  
어느 하루도 내 몸에서  
복수라는 말이 떠난적이 없다

그렇다  
제대배낭을 메고  
어머니없는 빈집에 들어서던  
그날의 눈물을 가슴에 묻어둔채  
내 어찌 결산을 서두를수 있으랴

고난의 찬바람이 창문에 얼어붙던 때  
귀여운 손자손녀들에게  
죽마저도 배불리 먹이지 못하던  
그 아픔은 어느날에 가서 풀어야 하는가

나를 키운 어머니조국을  
그렇게도 악착스레 괴롭히는  
원썹을 이 세상에 남겨둔채 간다면  
조국이며, 그대가 키운 아들중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사람이 죽는다면  
머리말에 약봉지를 쌓아놓고 죽으랴  
나를 부르라 어머니조국이며  
나의 인간결산은  
미제와의 결산  
그 무자비한 돌격전에  
이 아들을 세워달라

나는 조국앞에 혁명앞에  
인간의 마지막결산서를  
미제와의 판가리결전  
그 전호에서 쓰리라  
여기서 미제와 마지막전쟁을 끝냈다고

(유고작)

## 58 년전 이야기

송병준

## 1

바다기슭을 따라 뻗은 포장도로위로 몇대의 대형 버스들이 달리고있었다. 남조선에서 오는 고향방문단을 맞이하기 위해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었다. 길 옆의 바다우에서는 무수한 갈매기들이 자유분방하게 날아댄다. 그것들은 끼룩끼룩 서로 화답하면서 마치도 남녘동포들을 환영이라도 하는듯 흰 날개를 펼럭이였다. 버스에 탄 사람들도 그 정경을 바라보며 환희에 넘쳐있었다. 다만 차창결에 앉은 한 로인만이 깊은 상념에 잠겨 창밖에 시선을 던지고있었다. 그는 황해남도 연선지대에서 사는 80고령인 서일범이란 로인이였다. 며칠전에 관계부문 일꾼이 그의 집에 찾아와 남조선에서 친척되는 사람이 오게 되니 금강산으로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던것이다. 그때 서로인은 어리둥절했었다. 로친이나 자기의 집안에는 남조선에서 살고있는 친척이 한명도 없었던것이다. 혹시 이름을 착각리지나 않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를 만나러 올 사람이 없었다.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번에 그는 고향에 있는 누이의 묘소도 돌아보고 매부인 로인님을 만나 꼭 전할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일꾼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매부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인은 어이가 없었으나 한편 호기심이 동해물었다.

《태두남이라고 합니다.》 《태두남?...》

기억에 없는 이름이였다. 로인은 두눈을 지그시 감고 추억의 문고리를 더듬었다. 어디선가 듣던 이름같기도 했다. 태두남이라! 서로인의 얼굴에 한줄기 의혹의 빛이 어리였다. 드디어 그의 입에서 《아!》 하는 웅글은 소리가 울려나왔다. 끝내 추억의 쪽문을 열어제낀것이다. 그의 눈앞에 불현듯 고등에 주근깨가 다문다문 널려있고 턱 왼쪽에 까만 김이 박힌 소년의 오돌찬 얼굴이 떠올랐던것이다. 그렇다. 그애의 이름이 분명 두남이였다. 젊은 시절 그의 약혼녀인 두손의 남동생이였다. 열두살이었던 두남이가 서일범이와 정을 나누던 누이의 쪽지편지를 나르며 편락병노릇을 했던것이다. 아, 그런데 그애가 찾아오다니?! ... 차창밖의 바다에서는 푸른 파도가 흰갈기를 날리며 기슭으로 밀려온다. 어느덧 그의 눈앞에는 광복된 그해 가을날이 파도를 타고 안겨왔다.

초가을의 선들바람이 황포바다의 해조냄새를 싣고 살랑살랑 불어온다. 그때마다 탐스럽게 여문 버

이삭들이 바람의 희롱에 못이겨 하느적하느적 고개를 흔든다. 그러면 버메뚜기들도 이삭에 매달려 재롱을 피우며 그네를 뿜다. 이따금 살찐 뚱뚱기들이 목을 빼들고 사방을 두릿거리다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다. 그 버나락속에서 때오른 무명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인 옷말 서일범이 걸싸게 버를 베고있다. 아직은 가을을 할 때가 안되었지만 한가위에 쓸 올 버를 먼저 베는중이다.

그는 마음이 사뭇 흡족했다. 나라가 광복된데다가 농사도 잘되었으니 복이 쌍으로 온셈이다.

일범은 낫질을 하다 말고 허리를 폈다. 서느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누렇게 물든 들판이 늑실늑실 물결친다.

이때 마을앞으로 흐르는 버들천 내가에서 아이들이 왁작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일범은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발가숭이 아이들이 내가에서 길길이 뛰며 새된 소리를 질러댔다. 황포바다에서 솟어떼가 거슬러오른 모양이다. 어느새 집집의 문이 확 열리며 사람들이 버들천으로 하얗게 모여든다. 들판에서 버를 베던 젊은이들도 손에 낫을 든채 상사말 뛰듯 달려온다. 금시에 버들천은 사람사태가 났다.

해마다 봄이 오면 버들천은 승어잡이로 밤을 밝히군 했다. 국수봉에서 시작되어 황포바다로 흘러드는 이 내천으로 온 겨울 깊은 바다에서 동면하고있던 승어들이 눈석이물을 먹으려고 오르기때문이다. 민물을 먹어야 승어의 눈까풀이 벗겨여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수봉밑의 아래웃마을 사람들은 승어잡이철이 오면 해불을 마련하고 삼지창, 작살이며 톱, 몽둥이를 준비한다. 그랬다가 승어떼가 까맣게 기여오르면 일시에 내가로 쏟아져나와 때려잡군 했다. 그런데 올해는 때아닌 가을철에 승어떼가 오른 모양이다. 일범이도 마음이 급해 손에 낫을 든채 내가로 장달음을 놓았다. 뽕안 물보라, 웃음소리, 《찢러라!》, 《때려라!》 하는 고탈소리...

《흐흐... 좌상집 어르신네두 나오셨소?》

어느새 아래말 문서방이 팔뚝같은 승어를 두손으로 잡아들고 마을좌상인 태웅렬령감을 보고 아는체를 했다. 체면때문에 내물에 들어서지 못하고 방축우에 서서 구경을 하던 좌상령감이 머리를 끄덕였다.

이때 등허리가 검실검실한 승어떼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일범의 앞에 나타났다. 일범은 금시 온몸에 걸잡을수 없는 흥분이 솟구쳐올랐다. 그는 낫등으로 승어떼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큍》 하는 마찰음과 함께 배패기가 허연 승어 한마리가 물위에 비스듬히 떠올랐다. 일범은 전신을 휩쓰는 통쾌감을 억제하지 못하며 연방 승어를 타격했다. 삽시에 물위에는 낫등에 얻어맞은 승어들이 기우뚱거리며 떠올랐다. 여기저기서 《잡았다.》 하는 환희로운 웨침이 연방 터졌다. 이쯤되면 사람들은 반정신을 잃게 된다. 등때기가 거뭇거뭇한 승어들이 썩! 소리를 내며 떼를 지어 눈앞에 나타날 때면 사냥군이 짐승을 보았을 때처럼 전신의 피가 솟구쳐올라 렵기적인 쾌감으로 고향이 터지고 늙은이도 젊은이같은 혈기를 뿜치게 한다. 이런 형편에서는 우아재를 가릴 경향이 없어진다. 언젠가 옷마을 장서방의 아들이 아버지가 승어무리를 놓쳤다고 결집에 《저런 동신같은! …》 하고 소리쳤다가 마을의 좌상령감한테 불기를 맞은적도 있었다.

승어떼는 낫이나 몽둥이세례를 받으면서도 용하게 사람들의 발목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달아난다. 이때 옷쪽에서 빨래를 하던 처녀들이 짜그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급해맞은 승어들이 무작정 내친 옷목으로 기어오른 모양이다. 거기서도 빨래방치로 물장구를 치며 처녀들이 법석 끓었다.

《두순동무, 우에서 내리쫓으라구!-》

일범이 그쪽에 대고 고향을 질렀다.

《애개개, 두순이보고 동무래?…》

처녀들은 기겁을 하며 깔깔거렸다. 광복이 되어서 처음으로 듣는 동무라는 말이 신기스러운 모양이다. 《히-야, 광복이 좋긴 좋구나. 규방처녀인 두순이가 동무란 말을 다 들으니!…》

턱밑에 노랑수염이 다보록한 문서방이 몽둥이를 던지고 내가의 풀밭에 털썩 주저앉으며 사뭇 회한해 했다. 《자, 이제 그만들하세. 그것들도 새 세상을 구경하자고 이 가을철에 온것 같은데 다 잡으면 인사불성이 아닌가. 허허…》

방죽우에 서서 승어잡이를 구경하던 태웅렬이 이렇게 말하며 절절 옷자 모두들 손들을 씻고 기슭으로 나왔다. 내가의 풀밭에는 그들이 잡은 승어들이 해빛에 하얀 비늘을 반짝이며 아가미를 간신히 벌름거리린다. 사람들은 줄줄이 휘늘어진 방축의 고리버들그늘밑에 앉아 담배쌈지부터 풀었다. 그곳에는 서늘한 기운이 돌고 습한 땅에서 자라난 싱싱한 풀향기가 알싸하게 풍겼다. 《여보게, 그 옷이야 빨아줄 사람이 있는데 뭘 그리 주접을 떠나?》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보이는 알가슴을 풀어헤친채 굴뚝처럼 담배연기를 내뿜던 문서방이 한쪽에서 바지가랭이를 쥐여짜던 일범을 보고 시까슬렀다.

《원 아저씨두.》 근육이 울퉁불퉁한 건장한 어깨를 쉴룩거리며 옷을 짜던 일범은 사뭇 점찍스러워하며 등식한 얼굴을 붉혔다. 그는 아래말 태웅렬의 외동딸인 두순이와 약혼을 한 사이였다.

《저것 보지. 색시소리만 나와도 너무 좋아 입이 귀밑까지 켜지는걸. 일범이, 너무 으시대지 말게.

말거미같은 내 너편네두 소시적엔 눈깔 새까맣고 앵두같은 입술에 허리 잘록한 미인이었어. 흐흐…》 문서방은 제깅에 흥이 나서 물에 젖은 노랑수염을 연신 흔들어대며 너털웃음을 쳤다.

《하긴 그래, 꿈보만 아니래두 문서방 마누라야 천하절색이지.》 누군가 한쪽에서 악의없이 빈정거렸다.

《개살구도 맛들일 탓이야.》

문서방이 천연스럽게 대꾸를 하자 고리버들밑에서 폭소가 터져올랐다.

태웅렬도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띄우고 사위가 될 일범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흑단고불통을 빼금 빼금 빨았다. 장대한 기골에 시커먼 구레나룻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범접하기 어려운 위엄이 풍기었다.

《실없는 소리는 그만두고 한잔 마시자구. 저기 우리 두순이가 오네그려.》

태웅렬의 말에 모두 웃음을 멈추고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논둑길로 두 여인이 머리에 결참광주리를 이고 부지런히 걸어온다. 앞에 선 몸매 체소한 여인은 태웅렬의 안해인 성녀이고 그뒤에 자그마한 토기방구리를 머리에 인 처녀가 바로 일범의 약혼녀인 두순이다. 처녀는 흰 적삼에 잠장치마를 입고 하얀 앞치마를 둘렀는데 몸매가 퍼그나 날씬해보였다. 그들앞에는 막내인 어린 두남이가 회초리로 풀대를 후려치며 최쪽에 매놓은 염소처럼 짹짹뛰어온다.

《허, 들판에서 마시는 술맛이란 돌이 마시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니까.》

보리밭옆을 지나가도 취한다는 애주가인 문서방은 벌써부터 턱밑의 울대뼈를 꿈틀거리며 군침을 흘렸다. 일범이 얼른 뛰어가서 땀을 철철 흘리며 오는 성녀의 머리우에서 결참광주리를 냉큼 들어 안고 왔다. 어느새 문서방도 뛰어나가 두순의 술방구리를 받으며 일범인 뭇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나무그늘밑에서는 또다시 즐거운 웃음이 터졌다. 그 바람에 두순은 낮빛이 홍시처럼 붉어져 어쩔바를 몰라했다.

《애개개…》 성녀는 풀밭에 하얗게 깔려있는 팔뚝같은 승어를 보며 탄성을 질렀다.

《아주머니, 승어를 잡은김에 두순이 잔치술을 아예 마시자구요.》 문서방이 신명이 나서 소리쳤다.

《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광복이 났는데 승어나 놓고 잔치를 하겠나요. 난 소를 잡고 보란듯이 하겠어요. 안그런가? 이 사람아.》

문벌의 엄한 통제밑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온 성녀도 오늘날은 기분이 흥떠서 사위가 될 일범에게 통을 다 걸었다.

《어머닌 참.》 광주리에서 음식그릇을 꺼내놓던 두순의 귀밑이 또 단풍잎처럼 된다.

《쫓쫓… 무슨 말이 그리 다사한가 빨리 승어회를 치고 두순인 청주사발을 돌려라.》

눈꼬리에 주름을 짓고 빙그래 웃고있던 태웅렬은 안해에게 짐짓 꾸중을 하면서도 딸에게만은 애정을 감추지 못했다. 두손은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 얼른 청주방구리를 기울여 사발마다에 가득가득 부었다. 밥알이 동동 뜬 젓빛술에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물씬 코를 찔렀다.

《어서 문서방부터 올려라.》

태웅렬이 딸에게 귀뜸하자 문서방은 펄쩍 뛰며 무슨 당치 않은 말을 하시느냐고 손을 뻗어 저었다. 《허허… 그러지 말게. 로친네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못사는 문서방이 아닌가.》

태웅렬은 찔찔 웃으며 어서 올라와라 했다.

《고맙소이다. 두손아, 이 다음에 아들딸 많이 낳고 부디 복 많이 받으라.》

문서방은 사뭇 격해져서 이렇게 말하며 술사발을 단숨에 쭉 비웠다. 그리고 나서 노랑수염을 쓰다듬으며 의례히 나오는 명답을 했다.

《아, 이래서 인생은 좋고 천하 또한 내것이로다!》 그 누구보다 지지리 못사는 문서방이지만 술을 마신 다음에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간으로 자부하는 그였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모두 웃어버리지만 가슴을 찌르는 눈물겨운 부르짖음을 느끼곤 했다.

《문서방 말이 옳네. 왜놈들을 죽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우리같은 백성을 위해 좋은 정사를 펴실 것이네.》

술사발을 들이킨 웅렬이도 취기가 올라 감개무량해졌다.

일범은 불현듯 감격의 그날이 눈앞에 떠올랐다. 발고랑에 앉아 김을 매고있던 마을 청년들은 나라가 광복되었다는 꿈같은 소식을 듣고 호미자루를 집어던진채 만세를 부르며 읍으로 달려갔다. 뒤이어 경찰서가 불에 타고 살기둥둥하여 조선사람들을 못살게 굴던 왜놈순사들을 요정냈다. 면에는 인민위원회가 서고 가대기군이던 사람이 위원장이 되었다.

참으로 세상은 꿈같이 달라졌다. 정용과 《보국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해주세멘트공장에서는 로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 되어 총을 들고 지킨다고 한다. 정녕 우리 세상이 온것이다.

《이제부터 올해 난알을 건어들일 잡도리를 잘하세. 그리고 가을걷이나 끝난 다음에는 두 동네가 달라붙어 황포바다기슭에 동을 막고 갈밭을 개간하여 땅마지기도 더 마련하고 마을에 학교를 세워 아이들 공부를 시키자구.》

희망에 넘친 태웅렬의 말이다.

《그렇게만 되면야 얼마나 좋겠소이까.》

《좌상집어른이 이 일을 주관해주신다면 우린 밭벗고 나서겠시다.》 두 동네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아서 어쩔줄 몰라했다.

《그리고 햇곡식을 빨리 쪼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 두 동네가 모여서 한가위명절을 잘 쇠보자

구. 우리 집에서 가을에 잔치를 하겠네.》

웅렬의 말에 사람들은 또다시 좋아서 그렇게 하자고 떠들어댔다. 일범의 마음은 더욱 흥그려워졌다. 생활에 웃음이 있다는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지금껏 우리 백성들은 캄캄한 세상을 살아오느라고 기를 펴지 못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동네를 리상촌으로 꾸리고 자식들을 시집장가보내면서 오손도손 의종계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락이 어디 있으랴. 이 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백성의 권리라고 일범은 확신했다.

어느덧 서컨하늘에 락조가 비끼기 시작했다. 노을빛은 한량없이 부풀어오르는 일범의 마음인양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퍼져갔다.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국수봉밀에 의종은 형제처럼 이마를 맞대고 자리잡은 두 마을, 마을의 지붕마다 널려있는 푸른 박과 빨간 고추 등, 두 동네사이에서 물구슬을 날리며 돌아가는 궁치방아, 주절대며 흐르는 버들천의 빨래방치소리!...

일범은 오늘따라 이 모든 정경이 소중한고 정당게 안겨왔다.

## 2

다음날 해질무렵이었다. 일범이가 마당가에 쭈그리고 앉아 낫을 갈고있는데 뜻밖에 두남이가 혈떡거리며 나타났다.

《형, 이리 와.》

이마에 땀방울이 뽀얗게 돋은 두남이는 무엇때문인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일범을 한쪽으로 불러냈다. 일범은 영문을 몰라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애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왜 그러니?》

《이거.》

두남이는 무슨 보물이나 꺼내듯 안주머니에서 종이로 접은 쪽지를 꺼내주며 눈웃음을 쳤다.

《뭘데?》 일범은 우정 모르쇠를 했다.

《읽어봐. 누나가 썼어.》

두남이가 여전히 생글거리며 소곤거렸다. 일범은 얼른 종이쪽지를 펼치었다. 눈에 익은 도글도글한 두손의 글씨였다. 달이 뜨면 궁치방아간으로 나온다는 것이었다. 일범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누나한테 알려라. 알겠대구.》

《꼭와야 해.》 그 애는 제법 일범에게 다짐을 한다.

《알겠다는데. 그런데 그건 뭐니?》

일범은 두남의 손에 쥐여진 번쩍거리는 물건을 보며 호기심이 동해 물었다.

《칼이야. 장도칼!》

두남이는 빼기면서 칼집을 쭉 뽑아보이였다.

《멋있구나. 어디서 났니?》

손잡이까지 은세공을 한 값진 장도를 보며 일범은 눈이 둥그래서 재차 물었다.

《누나것이예요. 할머니가 대추 한섬 주고 산거래.

녀자한테는 자기 몸을 지키는 이런것이 있어야 한다. 누난 내가 아무리 달라구 해두 구경도 못하게 했어. 이것두 형한테 심부름가라는걸 안가겠다고 하니까 좀 빌려줬는데 뭐. 형만 봐. 비밀이야.》

코등에 주근깨가 다문다문 박힌 두남이는 불만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디 좀 보자.》

가슴이 후터워진 일범은 두남에게서 은장도를 받아 들고 석양빛에 이리저리 비쳐보다가 두남에게 다시 주었다. 두남은 열린 장도칼을 안주머니에 넣고 아래말쪽으로 고무공처럼 퐁퐁 뛰어갔다. 처남이 될 두남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식!》 하고 중얼거리는 일범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날밤 일범은 달뜨기전부터 궁치방아간의 오리 나무아래에서 두손을 기다리고있었다. 국수봉마루에는 늦대야같은 둥근 달이 떠올라 마을과 별판과 바다를 대낮처럼 비추었다. 무척도 은근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이따금 황포바다기슭의 갈숲에서 짝을 부르는 물오리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안타깝게 소리를 질렀다. 외양간의 소들도 안절부절못했고 개들도 살찐 달을 쳐다보며 멍하니 짖어댔다. 그래서인지 일범은 이 밤 더욱 가슴이 설레었다. 한해전 두손이와 약혼을 했으나 언제 그와 조용히 몇번밖에 만나보지 못한 일범이었다. 그런데 이 밤에 두손이가 먼저 일범을 부른 것이었다.

이때 어둠속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두손이가 종종걸음으로 급히 뛰어오는것이 달빛에 보였다. 일범은 기쁨이 솟구쳐올라 오리나무밑에서 나오며 《두손이!》 하고 나직이 불렀다.

《어마나!》 두손은 깜짝 놀라 비명같은 소리를 가늘게 지르며 그 자리에 폴짝 주저앉았다.

(이런 땡땡이같은것!)

일범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두손이가 답답하여 그에게로 다가가며 입을 열었다.

《나야. 일범이야.》 그제야 두손은 일범을 알아보았던지 안도의 숨을 호하고 내쉬고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다린지 오래였어요?》

《응, 방축으로 가자구.》 일범은 두손의 손목을 덥석 잡고 끝었다. 외팔 놀란 두손은 뒤를 돌아보며 겁질린 목소리로 애원했다.

《나요. 누가 보면 어쩔려구.》

《보면 어쩔단 말야.》

《아이참, 잔치두 안했는데...》

두손은 울상이 되어 일범의 억센 손아귀에서 자기의 가느다란 손목을 뺏으려고 헛되이 애썼다.

그러거나말거나 일범은 두손의 손목을 잡고 실버들이 늘어진 방축으로 끝었다. 방축우에 선 둘은 그냥 후들후들 떨었다. 그러다가 일범이가 먼저 고리버들밑에 쭈그리고 앉았다. 했으나 두손은 처녀의 본능으로 사방을 한번 조심스럽게 돌아볼뿐 그대로 서있었다. 한손으로 버들가지를 잡고 다른 한손으

로 치렁치렁 땡아내린 소담하고 윤기흐르는 까만 머리태를 매만지며 고개를 떨구었다. 달빛에 물들고 부끄러움에 젖어 은근하고 귀염성스럽게 빛나는 얼굴, 물기가 그렇게보이는 눈빛, 깔끔한 성미를 보여주듯 야무지게 다물려진 입귀... 일범은 무슨 말인가 해야겠으나 혀가 얼어붙은듯 입이 열려지지 않았다.

《앉으라는데!》

이윽고 일범은 두손의 손목을 와락 끌어당기며 어성을 높였다. 그 소리에 처녀는 흠칫 놀라며 일범의 곁에 마지못해 앉았다.

일범은 처녀의 손목을 잡은채 우정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다.

《날 왜 만나자구 했어?》

두손은 물기먹은 눈길을 들어 일범의 얼굴을 피곳 쳐다보더니 다시금 고개를 떨굴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일범은 펜스레 발치의 풀잎을 뜯어 달빛을 담고 조잘거리며 흐르는 내물에 던졌다. 어디선가 밤고기튀는 소리가 《쩍뽕》 하고 들렸다.

《뭐, 별루!...》

이윽고 두손이가 유난히도 정겨운 눈길로 일범을 마주 쳐다보며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별로 할 말은 없었지만 그리워서 일범을 만나자고 한 것이었다. 순간 그 부드럽고 정에 사무친 음향으로 하여 일범의 가슴은 찢어졌다.

《나두 보고싶었어. 두손이가 꿈속에서도...》

일범은 두손에 대한 애정이 북받쳐올라 더듬더듬 자기의 마음속을 헤쳐보였다.

《알아요. 그 말을 다 알아요.》

고개를 떨구며 입속말로 속삭이는 두손의 고운 얼굴에는 감출래야 감출수 없는 따뜻한 정이 은근한 달빛처럼 흐르고있었다. 순간 행복의 맑고 따스한 물결이 그들의 몸을 휘감는듯 하였다. 일범은 그만 억제할수 없는 걱정이 북받쳐 두손을 와락 그리안고 부르짖었다.

《두손이, 잔치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두손은 일범의 품에 몸을 맡긴채 행복에 겨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푸른 공간우에 떠있는 둥근달이 아낌없이 빛을 뿌려 그들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들은 오래도록 그렇게 굳어져있었다...

얼마후에 두손은 일범의 가슴에서 고개를 들고 빠금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서울에 미군놈들이 들어왔다는게 사실이에요?》

《들어왔다구 하더군.》

일범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왜 왔대요?》

《허, 그놈들이 우리 나라를 광복시켰다고 한다더군. 하지만 그건 알자 거짓말이야.》

일범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둘째오빠두 안심치 않은가 봐요.》

《그간놈들이 도대체 뭐야. 주인은 조선사람이란

말야.》 일범이도 큰 소리를 쳤지만 왜 그런지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난 어쩐지 걱정스러워요.》

《내가 있는데 뭘 그래.》

일범은 두손의 둥그란 어깨를 꼭 그러안으며 또 다시 흰소리를 치면서 꺾꺾 웃었다.

### 3

황포바다에서 그물그물 피어오르던 해무가 걷히자 마을은 흥성거리기 시작했다. 기다리던 한가위 날이 온것이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하얗게 산으로 올랐다. 꿈무늬에 낫을 차고 지적통구리를 어깨에 멘 남정들이 한발 먼저 산에 올라 한해 여름 길길이 자란 풀들을 벌초하느라 묘결에 앉아있고 녀인들은 제사를 지낼 음식들을 짜리팡주리에 담아 이고 땀을 철철 흘리며 걸음을 재촉한다. 제사를 지낼 산소가 있건 없건 남자들은 친척이 아니면 친구를 따라 모두 산으로 올랐다.

일범이도 부지런히 아버지를 따라 산소로 올랐다. 올해따라 한가위가 이채로왔다. 벌써 먼저 산에 오른 축들은 제사를 지내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우리도 빨리 제를 지내자.》

벌초를 끝내자 아버지가 서둘렀다. 버들천 놀이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것이다. 산소에 제를 지낸 다음 두 마을이 모여 씨름경기를 하기로 약속이 되었던것이다. 바다기슭의 넓은 풀판에서는 어석소를 탄 아이들이 무슨 소타기경기를 하는 모양인지 와와 떠들어댔다.

이때 갑자기 둔중한 발동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사방을 두리번거리었다. 웅진쪽 길에서 이쪽을 향해 군용차 한대가 누런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풍같이 달려오고있었다. 일범은 깜짝 놀라 두눈을 홑떴다. 차우에는 철갑모를 쓴 미군놈들이 가득 탔는데 어깨에 멘 총들이 해빛에 살기를 뿜으며 번쩍거리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일범의 어머니가 와들와들 떨며 공포에 질려 물었다. 그러나 일범은 입을 꼭 다물고 맹렬하게 달려오는 차를 지켜볼뿐이었다. 산에서 제를 지내던 사람들이 황급히 제상을 거두고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큰길로 오던 군용차는 급기야 마을쪽으로 꺾어들었다.

《저런, 동네로 들어오는게 아니야?》

누군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사나운 기세로 미칠듯이 질주해오던 군용차는 버들천 나무다리근방에서 시커먼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땅을 물어뜯듯 밟아섰다. 개들도 그 위세에 겁을 먹고 꼬리를 사타구니에 끼쳐 쩡쩡거리며 뜰안으로 숨었다.

《미군놈들이 아니야?》

누군가 일범의 곁에 와서 낮은 소리로 물었다.

일범은 말없이 놈들의 거동을 지켜보기만 했다.

차우에 탔던 미군병졸들이 와르르 쏟아져내렸다. 운전칸에서 장교인듯 한 놈이 천천히 내리더니 여기저기 모여선 마을사람들을 거만한 눈길로 훑어보았다. 그동안에 놈들은 무슨 말뚝같은 나무토막들을 와락와락 부리고나서 앞가슴에 총을 건채 한줄로 늘어서는것이였다. 여차하면 무시무시한 총구에서 흉탄이 날아올것만 같았다. 장교놈이 뭐라고 하자 몇놈은 국수봉쪽으로 올라가고 다른 놈들은 취야로 통하는 큰길방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나머지 놈들이 남아서 다리옆에 땅을 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웅성거렸다. 도대체 놈들이 하는짓을 알수가 없었다. 땅을 다 파자 놈들은 쇠메로 말뚝을 광광 내리박았다. 그 말뚝박는 소리가 그대로 사람들의 가슴을 지끈지끈 때리는듯 했다. 말뚝에는 시꺼먼 먹글씨로 《북위 38도선》이란 글이 큼직하게 써여있었다.

(아하, 38도선 경계표식을 하러 나왔구나.)

일범은 한순간 안도의 숨이 나왔다. 그것도 모르고 온 동네가 공포에 떨었다고 생각하니 어이없기도 했다.

《말뚝은 왜 박는다는거야?》

《글쎄 무슨 표식을 하는 모양이겠지》

모여선 마을사람들속에서 제나름대로 수군거리었다. 이때 국수봉쪽에서 무슨 타령같은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노래소리는 점점 가까와졌다. 이윽고 한사람이 갈지자걸음을 하며 건들건들 목청을 뿜으면서 버들천나무다리로 오고있었다. 술에 억병으로 취한 문서방이였다. 산소에 갔다가 마음껏 마신 모양이였다. 옷말사람들이 나무다리를 건느려는 문서방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서방은 팔국질을 하며 그들을 뿌리쳤다.

《왜 가지 말라는거야. 내 술먹고 내가 취했는데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문서방은 오히려 제편에서 성을 내며 비틀비틀 나무다리에 들어섰다. 그의 입에서 또다시 노들강변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자 건너편쪽에 있던 미군병졸놈 하나가 문서방을 보고 새된 소리를 지르며 총을 들어 겨누었다. 사방에서 《문서방!》, 《이 사람아!》 하는 웨침소리가 날아갔다. 그러거나말거나 곧드레만드레해진 문서방은 아무런 주저도 없이 허청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진 일범은 불상사가 날것만 같아 그에게로 달려가려고 했다. 옆에 있던 아버지가 팔목을 잡는 바람에 잠시 멈추었다.

문서방을 지켜보던 장교놈이 한손을 자기 어깨에 난뺨 들어보이자 금시 사격할 태세를 하던 병졸

놈이 충구를 내리었다. 놈들도 호기심이 든 모양이다. 충을 든 병졸앞에까지 간신히 다가온 문서방은 너무도 만취되어 눈물이 질적거리는 흐릿한 눈을 뜨고 허꼬부라진 소리를 질렀다.

《넌 도대체 누구야? 왜 여기와서 어물거리는가 말아야. 비키란 말이야.》

문서방은 손을 들어 한쪽으로 핵 밀어제끼는 시늉을 하다가 제깎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칠거리에 었다. 문득 장교놈의 상판에 알קות 웃음이 비끼었다. 그는 문서방겉으로 천천히 다가와 어깨죽지를 우악스럽게 거머쥐고 뭐라고 지껄었다.

《뭐, 뭐라구? 이게 무슨 고양이울음소리야?》

문서방은 불시에 어깨를 들썩이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곁에 서있던 병졸놈들도 처음에는 어안이 병병해있다가 저희끼리 마주보며 킬킬 웃어댔다. 그러자 약이 오른 정교놈은 문서방의 턱수염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었다. 문서방은 그놈이 흔드는대로 도리머리를 하다가 장교놈의 손을 탁 뿌리치며 노발대발하여 소리를 질렀다.

《요 발칙스러운놈같으니. 넌 애비에미도 없느냐 이놈. 이래봐두 내가 버들꿀 상썩름군이다. 이놈아!》

문서방은 팔소매를 걷어올리며 싸울 태세를 했다. 일범은 속이 덜컥 내려앉아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 잠자코 돌아오세요.》

했으나 문서방은 더욱 기광이 나서 제법 손바닥에 침까지 뱉뱉 뿔으며 허세를 부리었다. 놈들은 문서방이 노는 꼴이 재미있다는듯 허리를 흔들며 그냥 웃어댔다.

《이 자식들이 왜 이래, 허파에 바람이 들었나. 내 술먹고 내 집에 가는데 왜 길막고 지랄이야.》 문서방은 바지피춤을 한번 추스르고 지척지척 발을 옮겼다.

《에이!》

장교놈이 능글능글 웃으며 돌아가라고 손을 저었다.

《뭐, 돌아가라구? 내 집이 저긴데?..》

문서방은 어이가 없어하며 손가락으로 아래말을 가리켰다. 그래도 장교놈은 막무가내로 머리를 흔들었다.

《원. 시러베아들놈같으니, 제 집에두 못간단 말야. 우리 문씨가 신발이 수백개씩이나 닳도록 이 길을 다녔는데 안된다구? 네놈들이 백주에 길을 막아놓고 제집에두 못가게 해. 날강도같은 자식들, 나중엔 별꼴을 다 보겠네. 더운밥 먹구 식은 소리만 하지 말고 어서 너희들은 네집으로나 가라. 난 내 집으로 가겠다.》

문서방은 한동안 큰소리로 엮어대더니 활개를 치며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가 놈들이 박아놓은 말뚝을 보자 《이건 또 뭐야? 오라, 너희들이 이것때문에 못가게 했구나 뭐 38도선?! 흐흐..》 하고 자기가 알아맞힌것이 사뭇 회한한듯 꺾꺾 웃더니 말뚝

을 뽑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이때 철갑모를 눈두덩우까지 내려쓴 우직스레 생긴 병졸놈이 까마귀같은 소리를 지르며 문서방의 뒤덜미를 움켜잡고 나꾸어 썼다.

《아이쿠!》

문서방은 숨넘어가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벌렁나가넘어졌다. 그바람에 허리춤에 꽂았던 목이 긴 청주병이 풀발에 데그르 굴러떨어졌다. 병졸놈은 문서방의 가슴팍에 충구를 들이대고 당장 방아쇠를 당길 차비였다. 일범은 눈앞이 아찔했다. 그는 더 생각할 사이없이 문서방에게로 달려갔다. 마을사람들속에서도 고향이 터졌다.

일범은 미군놈의 충구앞을 막아나서며 격분에 넘쳐 부르짖었다.

《술취한 사람에게 이게 무슨짓이요?》

《당장 흥기를 거두지 못할가?》

어느새 다가왔는지 태웅렬도 버럭 고향을 질렀다. 그 사나운 기상에 병졸놈은 주눅이 들어 주춤거렸다. 장교놈도 소요가 일어나면 시끄러운 일이 생길것 같아서인지 문서방을 데리가라고 손짓했다. 일범이 얼른 그의 몸을 부축하며 아래말 지경으로 내려섰다.

장교놈은 버들천내가의 좌우에 하얗게 나와 서있는 두 동네사람들을 번갈아 돌아보며 뿔이라고 지껄었다. 놈의 수작을 통 알아들을수 없었지만 손짓, 몸짓을 통해 38도선 말뚝을 넘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총살한다는것이였다. 사람들은 너무도 억이 막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굳어져있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아침저녁으로 오고가는 마을길을, 부모형제가 있고 친척친우들이 있는 두 마을길을 백주에 막아놓고 건너다니면 죽이겠다는 강도의 말을 과연 들어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길래, 미군놈들이 뭐길래 이런 망발을 할수 있단말인가.

사람들은 믿을수도 인정할수도 없는 사실앞에서 기가 막혀 멍청히 서있었다.

《그러니까 이젠 이 다리로 건너다니지 말라는건가?》

수염이 허연 로인이 채머리를 흔들며 자기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가 하여 곁사람에게 묻는다.

《그런것 같쥬다.》

얼굴을 찌프리고있던 농민이 침울한 어조로 대답했다.

《아니, 그럴수가 있다.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사는 이상...》 로인은 끝내 납득이 가지 않아 채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저놈들이 다리를 허무는게 아니야?!》

아까 로인에게 대답하던 농민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미군놈들이 도끼로 나무다리를 찍어내기 시작했다. 놈들은 두 마을사람들이 버들천을 아예 건너다니지 못하게 할 심산이다.

《저놈들이 우리 논가운데에도 말뚝을 박았어

요.》

이번에는 한 녀인이 울먹거리며 부르짖었다. 과연 38도선이라는 패말이 버들천을 따라 올망졸망한 논판 한가운데에 박혔다.

《아이고, 우리 밭도 두동강이 나는구나!》

《아니 저렇게 되면 우리 땅은 38도선너머에 있는데 농사는 어떻게 짓구 다 지은 곡식은 어떻게 날라온다는거야.》

《허, 물방아간도 두조각으로 되는구나.》

여기저기서 억이 막힌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 딸은 몸을 풀고있는데 길을 가로 막으면 시집엔 어떻게 간단 말이유.》

한 아낙네가 치마폭을 들어 코물을 닦으며 울먹거렸다.

《방정맞은 소린 왜 해. 땅이 두조각으로 되는 판에.》

남편인듯 한 농민이 녀인에게 옥박지른다.

《문서방 줄경치르는걸 보고도 그 소리요. 사람이 중하지 땅이 중해요?》

아낙네도 역정을 썼다.

《주둥아리를 다물지 못해. 땅이 있어야 목숨도 있는거야.》 두 내외는 그 경황에도 피대를 돌구며 아웅다웅했다. 그러자 채머리로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가만들 있어. 38도선이 선친의 묘잔둥으로 지나는 판에 무슨 입씨름이야.》

그리고는 입을 철문처럼 다물고 서늘한 눈길로 농민들의 행동거지를 지켜보고있는 태웅렬에게 어정어정 다가가 분통을 터뜨리는것이였다.

《이보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판국인가. 세상 만물이 생긴 이래 이런 변이 언제 있었나. 조상대대 살아온 이 땅을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마음대로 갈라놓는 심보는 뭐란 말인가.》

로인은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더니 땅을 치며 끼어꺼이 통곡하기 시작했다.

《어허이구, 우리 로친은 죽었구나. 옷말 장수쌈을 마셔야 속탈을 고치는건데 길을 막아놔으니!...》

옆에 있던 농민도 절망에 잠겨 탄식을 했다. 태웅렬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동네사람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무 상심들 마시오. 아무려면 땅을 어떻게 갈라 놓겠소. 내 곧 군청에 올라가서 정식 산소를 하겠소. 우리는 절대로 땅을 갈라놓는 놀음을 좋아하지 않는다구 말이요.》

미군놈들은 얼마후에 군용차를 타고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취야로 통하는 큰길의 방아다리목에 미군초소가 설치되고 38도선일대를 수시로 순찰하며 걸핏하면 총질을 해댔다. 38도선말뚝을 뿔아달라고 군정을 찾아갔던 태웅렬의 상소도 거절되였다.

## 4

유구한 하나의 민족과 강토가 동강나는 준엄한 형국에서도 생활은 흐르고있었으니 어느덧 두순이와 일범의 잔치날이 눈앞에 다가오고있었다.

기다리던 날이었으나 불안스러운 날이기도 했다. 하루아침에 새색시가 사는 아래마을은 38도선 남쪽이 되고 신랑이 사는 웃마을은 북쪽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제 북쪽의 새서방이 38선을 넘어가 남쪽에 있는 색시를 데려와야 했으니 과연 잔치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알랴.

어느날 새서방집에서는 국수봉 산길로 해서 색시의 집을 찾아갔다. 미군놈들이 두 동네의 길을 박고 있는 조건에서 잔치를 하고 밤에 산길로 조용히 색시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태웅렬은 펄쩍 뛰었다. 외동딸의 잔치를 어떻게 야밤도주하듯 하겠느냐고, 미군놈들도 사람일진대 인륜대사인 잔치행렬까지 막겠느냐는것이였다. 새서방네 측에서 아무리 설복했으나 태령감은 자기의 주장을 철저히하지않았다. 어떻게 해서도 미국사람들의 승인을 받겠다는것이였다.

그 무렵에 이웃동네인 노루목에 아흔아홉칸짜리 집을 짓고사는 지주 송관흙의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다. 그의 아들 송정수가 군청의 미고문관 통역관으로 되였다는것이다. 태웅렬은 옛 서당훈장시절에 제자인 송정수를 만나면 혹시 가마바리를 통과시킬 방도가 생길것 같았다. 그는 곧 행장을 차리고 송정수의 집을 찾아갔다. 마당가에 찢차 한대가 서있었다. 읍에서 송정수가 온 모양이였다. 태웅렬은 마침 잘되였다고 생각하며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에서 지주녀원네의 아양떠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뒤이어 어떻게 알았는지 송정수가 반색을 하며 나왔다.

《선생님, 그간 귀체만강하셨습니다!》

송정수는 허리를 꺾으며 제법 제자답게 인사를 했다.

《나는 별고없었네. 춘부장께서도 잘있나래?》

《예, 지금 미고문관님이 집에 와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말씀을 하던 참입니다.》

《나를?!...》

《예, 어서 들어가십시오.》

태웅렬은 어리둥절하여 송정수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갔다.

《고문관님, 제가 말씀드린 태웅렬선생이십니다.》

송정수가 사뭇 유쾌한 어조로 태웅렬을 소개했다.

《오 그렇습니까? 미스터 송에게서 선생의 말을 자상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반갑습니다.》

고문관은 뜻밖에도 조선말을 류창하게 했다.

《태웅렬이라고 합니다.》

태웅렬은 중절모를 벗어두고 가볍게 목례를 했다. 고문관은 검은색양복에 넥타이를 맨 늘씬한 키에



희끗희끗한 머리칼이며 얼굴표정은 군인이라기보다 학자와도 같은 인상을 주었다.

《태선생, 앉으십시오. 우린 방금 산천을 돌아보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참으로 자랑할만 한 고장입니다. 그리고 이 청주야말로 미국의 위스키보다 더 훌륭합니다.》

고문관은 잔을 들어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태웅렬은 긴장했던 마음이 좀 풀리었다. 처음 보는 미국인이 리해가 있는 인간같았다.

《자, 조선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고문관이 잔을 높이 들고 좌중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태웅렬도 잔을 들었다. 얼굴이 벌거우리해진 고문관이 다시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국은 조선의 벗입니다. 나는 영향력이 큰 태선생이 이 지대 농민들에게 미국에 대하여 좋은 말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태웅렬은 이 고장의 명망있는 인물이였다. 옛날 경상도에서 살던 태씨일가가 물란리가 나서 고향을 떠나 이 국수봉밑에 보짐을 쫓 때로부터 마을이 생기고 제 손으로 갈밭을 일구어 땅마지기를 마련한 후에는 동네의 주인이 되어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관하는 좌상집이 되었다. 얼마나 세도가 당당한지 량반들 초차도 말을 타고 마을 앞길을 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한 태씨문중의 장손인 태웅렬은 누구보다 정의감이 강하고 한때는 독립운동가들을 따라 연해주바람도 맞았고 의병이 지리멸렬하자 고향에 돌아와 룡혈포를 황포바다에 던진 다음 마을에 서당을 세우고 훈장노릇을 했다. 그러나 그의 도고한 성격은 변함이 없어 름근의 마을사람들조차도 존경을 했다.

《알겠습니다. 나도 한가지 고문관님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태웅렬은 마침 잘되었다고 생각하며 청을 들이냈다.

《말씀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오는 동지달 열하루날에 저희집에 대사가 있습니다. 외동딸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참 반가운 일입니다.》

고문관은 진심으로 기쁜듯 희색이 만연했다.

《그런데 사위감이 38도선 말뚝을 박은 북쪽마을에 있지요.》

태웅렬의 말이 끝나자 고문관의 얼굴표정은 싸늘해졌다. 그는 말없이 한동안 고개를 끄덕이더니 용단이나 내리듯 입을 열었다.

《나는 조선의 풍습을 존중합니다. 처녀가 총각에게 시집가는것은 누구도 막을수 없는 권리입니다. 내가 초소를 지키는 우리 병사들에게 명령하겠습니다. 잔치를 막지 말라고.》

《고맙습니다.》

태웅렬은 진심으로 사례했다. 가슴속에 서려있던 폐구름같은 시름이 줄지에 사라졌다.

《태선생, 잔치를 잘하십시오.》

고문관이 선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태웅렬은 고문관에게 재삼 인사를 하고 밝은 얼굴로 송정수의 집을 나섰다.

《아니?!...》

송정수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고문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색시를 38도선너머로 보낸다고 의견이 있는게 아닙니까?》

고문관은 알긋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자유세계를 버리고 빨갱이품으로 기여드는 녀을 어떻게?...》

송정수는 두눈에 살기를 뽀으며 여전히 놀라운듯 중얼거렸다.

《미스터 송, 너무 흥분하지 마시오. 우리 병사들은 자기 의무를 리행할것입니다. 흐흐...》

고문관은 무시무시한 웃음을 터뜨렸다.

## 5

동지달 열하루날, 아래말 태웅렬네 집에서는 경사가 났다. 외동딸 잔치를 하는것이였다. 새서방네 집에서도 신랑과 후행이 색시를 데리려 국수봉산길로 해서 아래말로 건너왔다. 버들천을 사이에 두고 새서방과 새색시집이 있기때문에 궁치방아간으로 해서 조용히 빠지면 잠간사이에 새서방집에 당도하지만 새색시집에서는 굳이 큰길로 돌아가자고 고집을 부렸다. 미고문관과 방아다리에 있는 초소를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보았던것이다.

새색시가마가 떠날무렵에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산천은 금시에 뽀얀 장막속에 묻히였다. 첫눈은 축복을 상징한다고 한다. 좌상집의 외동딸 잔치여서 마을사람들은 더욱 성수가 났다. 어른이 할것없이 마을사람모두가 떨쳐나섰다. 태웅렬도 가마바리가 초소를 통과하는 일이 궁급하여 앞장에 섰고 그옆에 막내인 두남이도 따랐다. 잔치행렬은 큰 시위행렬과도 같았다. 갑자기 눈보라가 일었다. 국수봉이 웅웅 소리를 지르고 방축우의 고리버들이 애처롭게 몸부림쳤다. 그래도 잔치행렬은 가고있다. 앞장에 재빛두루마기를 입고 중절모를 쓴 태웅렬이 박달나무지팡이를 짚으며 위엄있게 걸어가고 그 뒤로 새서방인 일범이와 옷팔에서 온 둘러리, 다음에 칠색주름을 늘이고 금시 입을 벌리고 달려들듯한 호피가족을 씌운 새색시가마가 네명의 장정들 어깨에 받들려 위풍당당히 움직였다. 눈발속에 미군놈 초소가 있는 방아다리가 점점 가까와왔다. 미군보 초놈이 다리목초소에서 서서 이쪽을 바라보며 서성거리고있었다.

이윽고 잔치행렬이 보초소앞에 이르렀다. 보초놈이 그들의 앞가슴에 총부리를 내대며 정지하라고 소리쳤다. 태웅렬이 나서서 잔치때문에 새색시를

래운 가마를 옷말로 보내야겠다고 말했다. 석고처럼 낯짝이 하얀 보초놈은 막무가내로 도리질을 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보초막안으로 들어가 어디에다가 마룻마룻 전화를 거는듯 했다. 잠시후에 늙은 태웅렬에게 좀 기다리라는 시늉을 해보였다. 잔치일행은 할수없이 가마를 땅에 놓고 기다리지 않을수 없었다.

한시간쯤 흘러서 찻차 한대가 눈발속을 뚫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는것이 보였다. 군용차는 보초소앞에서 급정거했다. 차에서 장교와 사복쟁이가 내렸다. 사복쟁이는 뜻밖에도 통역관인 송정수였다. 태웅렬은 반가운 생각이 들어 그의 앞으로 급히 다가갔다. 미군장교놈이 뭐라고 씨벌이자 송정수가 통역을 했다.

《선생님, 장교님은 38도선을 넘어갈수 없다고 하십니다.》

《뭐라고?》

태웅렬은 아연하여 저도모르게 소리쳤다. 송정수 자신도 미고문관이 자기는 조선사람들의 풍습을 존중한다고, 미군병사들에게 명령하여 잔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한 말을 알고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딴 수작을 하다니?...

《정황이 달라졌습니다. 통보에 의하면 저 옷동네에서 공산당이 미군정하에 있는 남쪽의 처녀와 잔치를 한다고 새색시가 오면 체포하겠답니다. 미국 어른들은 새색시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십니다.》

송정수는 표표한 낯짝을 들고 꺼리낌없이 지껄었다.

《여보, 그건 거짓말이요.》

결에서 송정수의 말을 듣고있던 일범이가 격분에 찬 어조로 소리쳤다.

《거짓말이라구? 좋소. 그럼 넘어가시오. 그러나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 다시 한명도 남쪽으로 넘어올수 없다는것을 명심하시오.》

송정수는 야멸찬 미소를 던지며 위협했다. 갑자기 침묵이 흘렀다. 설사 체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색시의 둘러리와 후행 가마군들은 돌아와야 하지않는가. 이때 가마안에서 휘장을 들치고 새색시가 천천히 나왔다.

《누나, 가지 마, 옷말에 가면 잡아간대.》

결에 있던 두남이가 두순의 품에 안기며 울상이 되어 중얼거렸다. 낯빛이 파랗해진 두순은 말없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기만 했다.

《애야, 어쩔테냐?》

태웅렬이 딸에게로 돌아서며 런던에 찬 어조로 물었다. 그는 원래 가마바리를 방아다리초소나 넘겨놓고 돌아설 생각이였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의 잔치날에 이처럼 참혹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듯 괴로웠다. 칠보단장한 두

순은 천천히 고개를 쳐들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두눈에는 꺾을수 없는 의지가 빛발쳤다. 이윽고 두순의 입에서 조용하면서도 결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 한번 언약한 이 몸, 앞에 불행이 기다린다고 어떻게 돌아서겠어요.》

태웅렬의 얼굴에 비장한 빛이 비졌다. (그렇다. 네말이 옳다. 여기서 돌아설수 없다. 우리가 만약 발길을 돌리면 우리 두 동네는 영원히 헤어져 살아야 한다. 안된다. 이제야말로 태씨가문이 어떤 가문인가를 보여줄 때가 왔다.)

그의 입에서 으드득 소리가 났다. 그의 검은 눈동자속에는 그 어떤 무섭고 결사적인것이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태웅렬은 지팡이를 꼭 잡고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하늘에서 여전히 눈이 쏟아졌다. 찬바람이 휘익 불자 두루마기자락이 바람에 날렸다. 그는 드디어 마음을 다잡고 비자루같은 입김을 내뿜으며 딸에게 말했다.

《그래 가자! 어서 가마에 올라라!》

이때 살기에 찬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군장교놈이 천천히 권총을 뽑아들었다.

태웅렬은 마을사람들을 둘러보며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어서 떠나자고 웅쳤다. 그리고는 보초따위는 안중에도 없는듯 지팡이를 짚으며 현결차게 걸음을 내짚었다. 보초놈이 아연실색하여 총구를 내들며 《서라》하는 소리를 연방 내질렀다. 새서방인 일범이가 장인의 가슴에 내댄 총대를 두손으로 나꾸어쳤다. 그러자 마을사람들이 물밀듯이 앞으로 나아갔다. 몇명의 미군병졸놈들이 달려나와 고함을 지르며 총대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후려갈기였다. 다리목은 삽시에 란투가 벌여졌다. 장교놈이 서서히 총구를 쳐들었다. 뒤이어 《땅!》하는 총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그 총소리는 고요하던 국수봉의 참나무숲을 흔들고 황포바다기슭에 내려앉았던 갈매기떼들을 놀래우며 평음처럼 메아리쳤다. 일범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가마를 잡고 서있던 두순이가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는것이 보였다. 그놈이 그를 쫓것이다.

《두순이!-》

얼흔이 나간 일범이가 두순에게로 달려가며 퍼터지게 불렀다.

《새색시가 총에 맞았소!》

함께 가던 문서방이 사람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마을사람들이 두순에게 왁 모여들었다.

《두순이, 정신 차려.》

일범이가 쓰러진 두순을 급히 안으며 절통해서 부르짖었다. 두순의 가슴노리에서 선홍색피가 흘러내려 눈덮인 땅을 물들인다. 허둥지둥 딸에게로 달려온 태웅렬은 두순의 머리맡에 주저앉아 정신나간 사람처럼 굶어보기만 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누구에게 묻듯이 둘러선 마을사람들을 쳐다보더니 그만 《두순아, 이게 웬일이냐!》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불현듯 일범의 가슴에도 분노가 끓어올랐다. 꽃잎같은 눈송이 하나가 두순의 창백한 얼굴에 떨어져 녹아내린다. 일범은 서둘러 손바닥으로 물기를 문질렀다. 이윽고 두순은 간신히 눈을 뜨고 아버지를 원망어린 눈길로 올려다 보았다. 그의 확 퍼진 혼미한 눈동자에는 하많은 사연이 어려있는 듯했다. 두순은 괴롭게 숨을 몰아쉬더니 천천히 옷마을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새 생활이 기다리고있는 옷마을,...그는 다시 일범을 올려다 보았다. 두순의 애절한 눈동자에서 뜨거운 이슬이 불쑥 솟았다. 그 맑은 눈물이 눈곱에 흥건히 고였다가 뺨으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어 피기가 가져진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다.

《아버지, 도대체... 38도선이... 뭐 예요?...》

하고는 더 말을 못하고 스프르 눈이 감겨지더니 옆으로 고개를 힘없이 떨구었다.

《두순아, 내 딸아!》

태웅렬은 딸의 얼굴을 두손으로 잡고 흔들며 복장이 터지게 불렀다. 그러나 두순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옆에 있던 두순의 삼촌들과 형제들이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리었다.

통절한 비애가 일범의 가슴을 휩쓸었다. 아, 38도선! 38도선! 너는 뭐냐? 너는 뭇이길래 가마타고 시집가던 새색시가 총에 맞아 죽어야 한단 말이나, 국수봉아 말해다오. 황포바다여, 이 땅이 생겨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말해다오.

마을사람들도 슬픔을 못이겨 고개를 비틀고 눈물을 뿌렸다. 일범은 정신나간 사람처럼 싸늘하게 식어가는 두순의 시신을 내려다 보기만 했다. 목구멍으로 무엇인가 자꾸 치밀어올라 숨을 쉴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끝내 참고 참았던 눈물이 알각 쏟아져 내렸다. 아, 미군놈들은 드디어 본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마바리에 총질을 하여 새색시를 죽이는 야만, 인간의 법도와 료리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놈들!...

일범의 눈빛은 적의에 불타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벽력같은 고함을 질렀다.

《저놈들을 죽이라!》

마을사람들이 와 들고 일어났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장교놈은 언제 뺑소니를 쳤는지 도이지 않았다. 마을사람들은 사생결단할 태세로 미군놈들에게 육박했다. 그것은 화약에 불달린듯 한 폭발적인 행동이었다. 보조놈들이 뒤걸음을 치며 총질을 해댔다. 더욱 분노한 마을사람들은 죽기내기로 놈들에게 달려들었다. 문서방은 들고있던 술방구리로

통역을 하던 송정수의 골통을 내리쳤다. 그놈은 짝소리도 못하고 너부러졌다. 마을청년 하나가 놈을 개처럼 끌고가서 다리아래로 집어던졌다. 미군

보조소는 순식간에 풍지박산이 났다. 미군놈들은 더 견딜수 없게 되자 어디론가 줄행랑을 놓았다.

《여러분! 군청으로 갑시다.》

태웅렬은 딸의 시신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격분에 찬 소리를 쳤다. 마을사람들이 호응하며 그를 따라나섰다. 눈발은 언제 멎었는지 모든것이 정적속에 잠긴듯 했다. 다만 서컸 하늘틈새기로 한줄기 석양빛이 힘차게 뿜어나왔다. 음산한 재빛구름이 그 빛발을 막아보려고 그쪽으로 서둘러 몰려가고있었다. 그러나 그 틈새기는 점점 넓어지면서 불길같은 노을을 토했다. 미구에 노을은 온 우주를 불태울듯 장엄하게 타올랐다. 그 하늘밑으로 딸을 안은 태웅렬을 앞세우고 버들천사람들이 하얗게 읍쪽으로 몰려가고있었다.

...일범로인은 금강산 온정각의 어느 한방에서 이제나 저제나 태두남을 기다리고있었다. 이윽고 방문이 열리며 안내원처녀를 따라 백발이 성성한 로인이 천천히 들어왔다. 일범은 자리에 앉은채 방안으로 들어오는 로인을 지그시 지켜보았다. 전혀 낯설은 사람이었다. 방안에 들어온 로인도 일범을 뿔어질듯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와플 놀라며 《매부, 날 모르겠소. 내가 태두남이요.》 하면서 두팔을 뻗치고 허둥지둥 다가왔다. 일범로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는 찬찬히 상대방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그만이야 일범로인은 《아!》 하고 외아디소리를 질렀다. 주글주글한 턱언처리에서 유표하게 박힌 까만 김을 알아보았던것이다. 태두남이 분명했다. 열두살 그 시절에 누이의 편지를 가지고 눈웃음을 치며 나타났던 그 두남이가 옳았다. 아, 그런데 그 당돌하고 오돌쫀던 두남이는 어디 가고 허리굽고 백발이 날리는 로인이 나타난것이다.

《매부, 내가 왔소. 두남이가 왔단 말이요.》

태두남은 목갈린 소리로 부르짖으며 무릎을 꿇고 일범의 발밑에 엎드렸다.

눈곱이 확 달아오른 일범은 급히 태두남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매부!》

《처남!》

두 로인은 소리쳐부르며 와락 부둥켜안았다.

《보고싶었소. 그리웠소.》

태두남은 일범의 가슴에 허연 머리를 박은채 목메여 중얼거렸다.

《자리에 앉자구.》

일범은 두남의 어깨를 부어잡고 안락결상에 앉았다. 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광복된 그해 첫 겨울에 헤어져 60년세월이 가까와왔으니 이제는 모두가 백발의 로인들이 되었다. 그 세월이 그들을 몰라보게 변모시켰지만 아직도 분렬의 장벽은 그대로 남아있는것이다.

《반갑네. 이렇게 만나니...》

일범은 손수건으로 눈곱을 문지르고 나서 진정으로 사의를 표했다.

《비록 누이는 저세상으로 갔지만 처남, 매부간의 정이야 어디 가겠소. 난 어느 하루도 매부를 잊은적 없소이다. 이걸 좀 보시우.》

태두남은 품속에서 하얀 명주천에 정히 싼것을 꺼냈다. 그리고는 명주천을 해치고 은빛이 나는 자그마한 장도를 내놓았다.

《?!...》

일범은 순간 놀랐다. 이윽고 그는 두순이와 정을 나누던 그 시절 언젠가 잔치를 앞두고 쪽지편지를 가지고왔던 두남이가 내보였던 그 은장도임을 알아보았다.

일범은 장도에 깃든 사연이 파뻗히게 가슴에 젖어들었다. 그는 두순의 숨결이 깃든 장도를 꼭 선채 말없이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미군놈들이 이땅에 남아있는 한 우리 겨레의 피는 마르지 않는다.

일범은 엄숙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처남, 우린 누이만이 아닌 민족의 피값을 천백 배로 받아내야 하네.》

《매부의 말씀을 명심하겠소.》

자리에서 일어난 태두남의 두눈에도 굳은 의사가

빛발쳤다. 그에 화답하듯 창밖에서는 파도소리가 메아리쳤다.

창가에서 천천히 돌아선 일범은 태두남에게 다가와 두손을 꼭 잡아주며 믿음어린 미소를 지어보였다. 수없는 경난을 겪은듯 한 태두남의 주름진 얼굴에 투지와 신심에 넘친 표정이 어리었다.

어느덧 두손을 굳게 맞잡은 그들의 가슴속에 들수십년동안이나 얼어붙었던 분렬의 장벽이 봄날의 눈석이마냥 무너져버리고 분계선패말이 뿔히여지고있는듯 했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6.15북남공동선언이 있어 분렬의 어둠은 가셔지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통일의 려명이 밝아오고있는것이였다.

×

다음해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는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가 주최한 집회가 또다시 열렸다. 시민들은 민족의 통일념원을 짓밟고 민족화해와 단합의 길을 방해하는 미국은 당장 나가라고 웨쳤다. 그 소리는 하늘땅을 진감했다. 그들속에는 백발을 날리며 앞장에서 구호를 웨치는 태두남의 모습도 보였다.

## 상식

# 지적소유권

오늘 정보산업시대에는 해마다 방대한 량의 정보자료들이 나오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들을 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정보의 창조자와 리용자사이에 정보의 소유와 리용과 관련한 법질서를 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요구를 배경으로 지적소유권제도가 발생발전하였다.

정보의 경제적가치에는 표현적가치와 의미적가치의 두가지가 있다.

표현적가치를 가지는 정보는 소설, 음악, 영화, 방송 등과 같은 형태로서 정보를 보거나 듣는것으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의미적가치를 가지는 정보는 연구론문, 설계도면, 사용설명서, 실험자료, 운영지도서 등과 같은 형태로서 상품제작 혹은 봉사기관에 도입되는 조건에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

표현적가치를 가지는 정보는 그것이 복사 혹은 전달되는 경우 그 가치가 상실되며 의미적가치를

가지는 정보는 그것이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가치가 상실된다.

표현적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복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가 저작권제도이며 의미적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한것이 특허권제도이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정보가 다 지적소유권보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실례로 법률, 기상예보, 일반통계자료, 고전적인 소설이나 음악, 경제법칙 등은 지적소유권의 보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지적소유권은 공업소유권, 저작권, 식물제품증권,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 배치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분류하고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지적소유권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지적소유권침해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가 강하게 취해지고있다. 또 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적소유권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있다.

# 산나리

박정애

나리 나리 산나리  
인생의 한시절 흘러간  
북방의 철길을 또다시 걸어보는  
나를 반기여 마주 오는듯  
나뭇이 한들거리는 노을빛 고운 산나리

잘 있었느냐  
긴긴 여름날 심산에 피어피여  
철길개척의 나날 벗하여준 류다른 상봉아  
꽃속에서 풍겨오는 그윽한 향기런가  
흘러간 청춘의 소중한 추억 불러내누나

나리 나리 산나리  
내 너와 첫 인연 맺은것은  
사나운 눈보라속에서 암반과 싸우며  
한치한치 차굴을 열던 못잇을 첫해  
엄혹한 겨울 이겨낸 그 여름날이었지

푸른 잎 푸른 줄기 너무도 연약해  
공원이나 유원지에 피어있을 너  
산중에도 험준한 계곡 차굴우에  
소나무와 나란히 피어  
단발머리 이 가슴에 환희를 준 예쁜 나리

나리 나리 정들은 산나리  
산천을 사를듯 한 7월의 폭양아래서  
첩첩 치솟은 칼벼랑 깎아내며  
온몸이 땀비에 젖어 주저앉을 때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모습인가  
절벽에 소리없이 피어 웃던 꽃

철길 룽백여리 자옥자옥 피어난 위훈의 송이송이  
쏟아지는 비발속에서도 로반을 떠나지 않던  
노래많은 처녀들 머리우에 담뿍 피어있었고  
하루일 끝낸 즐거운 저녁이면  
혁신자들 가슴에 안겨 설렘었나니

나리 나리 사랑하는 산나리  
동지위해 제 한몸 서슴지 않은  
고향을 화성에 든 신입당원 그 동무  
심장의 맹세인양 일기장 갈피속에 간직되었던 꽃  
이 가슴에 깊이도 뿌리내린 삶의 꽃이어

세상에 아름다운 꽃 많아도  
가장 힘겨운 날 뜨거이 맺어진 길동무  
붉은 당원증 가슴에 품고 파득령 넘어왔던 날  
동무들 안겨준 만가지 꽃중에도  
당기의 그 빛을 잎잎에 고이 비껴담은

너와 함께 벅찬 기쁨 나누지 않았더나

이제는 멀리 세월이 흘러  
돌격대귀틀집 그 자리에  
수려한 이깔이 밀림을 이루었고  
차굴이며 웅벽에 이끼가 덮였어도  
나리 나리 변함없는 산나리

그 누가 인생은 추억이라 했던가  
나라의 철길에 현현히 바친  
단발머리시절의 상봉인 산나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궁지높이 모시고  
보람찬 삶을 빚내인  
너는 나의 청춘이거니

흘러온 세월로 하여  
옷설에 무거이 훈장가득 번쩍이여도  
빛나는 그 훈장  
조용히 받들고있는  
나리 나리 청춘시절의 나의 나리

선군의 이 세월에 우리 당 따라  
젊은 날 그 정신 그 열정으로  
조국에 아낌없는 삶의 자옥을 새기라고  
아, 내 마음속에 언제나 불노을로 타는  
나리 나리 산나리

## 양키병졸 존의 고백

김정곤

딸라에 이 몸 팔려 끌려왔다가  
조선전쟁 석삼년에 혼쫓을 뻔소  
그 땅은 아예 밟지도 마소  
돌맹이 하나에도 퇴관이 박혀있다고

풀잔디에도 아예 앉지를 마소  
뽕죽뽕죽 잔디잎이 퍼렇게 독을 쓰고  
기여다니는 개미까지  
장판지 파고들어 독침을 쏘단요

나무그늘에도 아예 서지를 마소  
침략자라면 술방울도 칠추되어 내려까고  
그늘조차 시꺼먼 죽음의 자락인듯  
몸뚱이를 둘둘 휘감아 덮는다고

앞뒤좌우 어딜 봐도 죽음의 함정뿐  
하느님께 빌자고 하늘을 향하니  
청청 마른 날에도 불벼락 쏟아붓는  
어- 하늘조차 입벌린 불함정이라오

## 자단나무 함

주화산

면사포처럼 엷은 새벽안개가 공원의 《산수정》 주위를 살짝 휘감고있었다.

푸른 잎새들이 조화롭게 엇갈린 숲속에서 예순살을 가까이 한 강과른 인상의 로인이 들고온 새조롱을 자기 키만 한 높이의 나무가지에 걸어놓고는 조롱속의 새를 향해 휘파람을 몇번 가볍게 불었다.

그러자 귀여운 새도 그 소리에 화답하듯 유쾌하게 지저귀었다.

순간 로인의 얼굴에서는 깊이 패인 주름살들이 쭈욱 퍼졌다.

마치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융합되는 높은 경지에 자신이 도달하기라도 한듯 한 흐뭇한 인상이었다.

이어 그는 두팔을 펴고 허리운동을 한 다음 곧바로 서서 정신과 힘을 가다듬고 태극권운동을 시작하였다.

그가 태극권운동(몸단련체조의 하나-역주)을 끝내자 가까이에서 서있는 나무밑에서 허리가 구부정한 로인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호국장, 자네 태극권습씨는 어찌면 그렇게도 멋있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데 놀리지 말라구요.》

《아닐세. 내 말은 진담일세. 내 보기엔 자네가 이미 태극권의 리치를 깨달은것 같구만.》

호림은 그 말에 가볍게 웃었다.

《왕아바이, 너무 요란하게 말하지 말라구요. 난 그저 <의> 와 <기> 의 두가지 리치만을 깨달았을 뿐이웨다. <의> 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자기를 잊을 정도로 정신을 집중하는것이고 <기> 는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것이지요 그렇지요?》

왕로인은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말을 이었다.

《참, 자넨 오래간만에 보는구만, 호국장.》

《출장을 갔뻤습니다.》

호림은 이렇게 말하며 가볍게 웃어보였다.

그가 자리를 뜨기 바쁘게 사람들이 왕로인의 곁으로 몰려와 말을 걸었다.

《듣자니 사탕창고를 건설하던 간부들이 모두 구류당했다던데 호국장은 어째서 아무 일도 없는것처럼 저렇게 태연한가요? 요즘에 무슨 소식 들으신게 없나요? 아바이.》

왕로인은 상업국적으로 근무년한이 제일 오래고 년로보장을 받은후에도 접수실의 접수원으로 오래

동안 일해오고있었다.

그는 그래서인지 상업국안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상업국의 《소식통》 이라고 불리우고있었다.

호림은 상업국의 부국장이였는데 이 자리에서 십여년동안 일해왔기때문에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를 호국장이라고 불렀다.

왕로인은 호국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있었다.

왕로인이 그들의 물음에 시답지 않아하는 태도를 보이자 모두의 흥취는 대번에 사라졌다.

《왕아바이, 아바이 보기엔 호국장에게 아무 일도 없을것 같애요?》

《말을 못하겠네.》

《흥, 웃기지 말라구요. 아바이야 고작해서 접수원이고 큰 간부도 아닌데 왜 틀을 차리는거예요. 그 말을 한다고 아바이일에 방해가 되는가요?》

《내 속담 하나 말하지. 사람은 겉을 보고 평가하며 바다물은 말로 쥘수 없다고 했네. 지금의 세상리치는 이전과 달라. 암전한 고양이아 살찐 쥐를 잡는다고 했거늘 누가 누구의 속을 알수 있단 말인가?》

《그러지 말라구요. 괜히 말했구만.》 모여왔던 사람들은 두덜두덜하며 제각기 바구니들을 메고 집으로 흩어져갔다.

안해가 점심식사준비를 다 해놓기도 전에 호림은 여느때보다 일찌기 집에 들어섰다.

그는 은부시장이 자기를 불러 담화했다고 말했다.

안해는 이 말을 듣자 급한 성격을 감추지 못하고 부엌에서 나와 남편에게 다가갔다.

《부시장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

호림은 안해가 긴장해하자 저으기 재미있어하며 오히려 되물었다.

《당신생각엔 그가 무슨 말을 했을것 같소?》

《사탕창고문제겠지요?》

안해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남들은 날 리해 못해도 왜 당신이야 나를 리해 못하오. 사탕창고건설에서 내가 뭘 리득본게 있는가고 또 꾸념을 하자는커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때문에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예요. 남들은 그 건설에서 목돈을 벌었지만 당신이야 두손에 물집밖에 번게 있어요. 그런데도 밖에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억원이상이나 투자한 사탕창고건설이여서 책임자면 제일 많이 횡재했

는데 돈냄새조차 맡지 못했다는게 말이 되는가구요. 시정부의 부서기장은 체포되었지, 토지관리국 부국장도 구류되었지, 관련있는 사람들은 모두 조사를 받는데 그대 건설을 책임지고 한 당신은 조금이라도 일없을것 같어요?》

호림은 껄껄 웃었다.

《당신도 믿지 않소?》

안해는 말없이 머리를 저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리득을 보았는지 어떤지야 당신이나 알 노릇이지요. 그러나 난 당신한테서 일전 한푼 받은게 없어요. 듣자니 우에서 당신을 국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는데 지금은 감감무소식이지요. 하긴 지금은 무엇이냐 가짜가 많고 진짜도 가짜로 변하는 판이니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는것도 이상할것 없지요.》

《내 보기엔 꼭 그렇지도 않아. 우에서도 다 보는 눈이 있소. 방금전에 은부시장이 나를 불러 담화하면서 새 임무를 주었소. 큰 상업종합도시건설을 책임지고 하라는 과업을 말ियो. 그 도시는 우리 성에서 제일 큰 문화오락상업도시란 말ियो.》

《그걸 말했다고 했어요?》

호림은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늙은 안해를 더욱 성나게 했다.

《하지 말라요. 그대 사탕창고를 짓고 뭘 리득본게 있수? 사람은 고생만 했지, 남들은 뒤에서 당신의 등을 쳐먹었지. 그대 부국장의 집이라는걸 좀 보라구요.》

호림은 늘 제가 사는 집의 환경에 습관되어서 알수 없었으나 만일 누군가가 집안에 들어와 본다면 이 집이 과연 대도시상업국의 부국장집이라고는 도무지 믿지 못할것이였다.

40평방미터짜리 방 두칸과 전실이 달린 집인데 한칸에서는 로인내외가 살고 다른 방은 호림이가 사무를 보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로 쓰고있었다.

전실이라는것도 물과 8평방미터정도여서 밥이나 먹기 알맞춤한 비좁은 방이였다.

침실과 전실의 바닥에는 퇴색해질대로 해진 밤색 뽕끼가 한꺼풀 칠해져있었는데 그나마도 신발바닥에 닳아 나무살들이 희끗희끗 보이였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벽에는 처음의 회칠한 색 그대로였다.

결상이며 책상, 침대 등 모든 가구들은 60년대의 뒤떨어진 구식제품들이였으며 초출한것들이였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마음속 보물로 간주해온것은 새장과 거의 어휘사전만 한 자단나무함이였다.

안해는 궁색한 집모양을 보며 아무래도 마음속의 솟구치는 불만감을 누를길 없었던지 《부시장이 또

당신을 찾거들랑 못하겠다고 하라구요!》 하고 소리쳤다.

한생 안해의 말에 순종해온 호림은 안해의 피백한 감정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은부시장은 이전에 나와 함께 여러해동안이나 같이 일했소. 그래서 나를 신임하고있는데 어떻게 못하겠다고 하며 말겨진 일을 남에게 밀어버릴수가 있겠소? 당신이 하지 말란다고 해서 그만둘 내가 아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소!》

안해는 다시금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당신은 남들과 자기를 대비해놓고 보라구요. 이 공사는 남들의 입에는 큼직한 고기덩이를 물려주지만 당신손엔 묵직한 연자돌만 줄거웨다. 당신은 그대 고기조박 하나 맛볼것 같어요?》

호림은 더 이상 말하고싶은 생각이 없는지 입을 다물고말았다.

문득 말 못할 심정을 느끼자 허허 웃으며 새장이 있는 베란다로 나갔다.

호림이가 상업도시건설 총지휘를 맡았다는 소문은 온 도시에 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익을 따져보며 그를 초청하느라 야단이였다.

그가 상업국청사의 정문을 나설 때 경비원 왕로인이 큰 소리로 그를 불러세웠다.

《호국장, 그렇게 큼직한 책임을 맡았으니 돈은 좀 마음놓고 쓸수 있겠구만.》

이 말에 호림의 입가에는 느슨한 웃음이 피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났어도 달라진것은 없었다.

사실 그에게는 말하지 못할 고충이 있었다.

그가 가지고있는 공사비는 수천만원이였으나 자신은 한푼의 돈도 사취할 권한이 없다고 여기는 그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주머니를 흔들며 그를 초청해도 그는 한푼도 꺼내놓지 않았다.

매달 생활비는 팔구백원이라고는 하지만 량주의 일상생활을 제외하고도 휴일마다 놀러 오는 손자손녀들을 위해서도 사오백원을 써야 했다.

그러느라하면 월말에는 생활비를 기본적으로 다 써버리게 된다.

다행히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으니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거덜이 날 판이였다.

국의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하면 《걱정 말라구. 어느 집이나 읽기 힘든 경서가 있는 법ियो.》 라고 말하곤 하였다.

일부 사람들이 호림을 두고 뒤에서 수군수군할때면 왕로인이 나서서 말을 비치곤 하였다.

《자네들보다야 내가 그를 더 잘 알지. 속담에도 <가난한 모양 보고 흉보지 말라. 캐낸 은덩이 세바

구니 있다오> 라는 말이 있지 않나 자네들은 그 사람집에 조상전례의 자단나무함이 있는걸 보지 못했지?》

20여년전만 해도 박달나무가구는 녹거리로 팔리 우군 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박달나무가구는 제일 일러주는 고급제품으로 된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자단나무제품은 보배중의 보배로 일러오고있었다.

참으로 오랜 자단나무는 보기 드문 귀한것이였다.

전문가들은 호림의 집에 있는 그 자단나무함값을 금세로 치면 1만원이상의 값어치가 된다고 장담했다.

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앞에서 왕로인은 이렇게 말하군 했다.

《함속에는 함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다네.》

어떤 사람들은 《아바이가 말한것을 아무리 생각해봐야 조금도 믿지 못하겠수다.》 하고 말하였다.

왕로인은 어처구니없다는듯이 허허 웃어버렸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도 나자신은 믿는다네.》

그러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며 다음말을 기다렸다.

이것을 본 왕로인은 시치미를 뚝 떼고 호국장은 참좋은 사람인지라 그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도 쓸데없이 말할수 없다고 슬쩍 말을 거두어버렸다.

사람들은 불만에 차서 왕로인을 욕했다.

《령감님 속심은 칠면조 한가지라니까. 령감은 평생 경비원으로나 살라구요.》

성이 나서 돌아가는 그들을 보며 왕로인은 허허 웃었다.

왕로인이 분명 부국장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고있었기때문에 로인의 친척 두명이 그 내막을 알아보려고 찾아왔다.

한사람은 그의 맏사위, 건재공사 조지배인이였다.

상업도시건설에 필요한 건재들을 몽땅 차지하고 싶어하는 맏사위는 마치 지폐장들을 헤듯이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을 비비며 국장이 이것이면 좋아할것 같으냐고 물었다.

왕로인은 그에게 호국장을 기쁘게 하는것은 오직 자그마한 새뿐이고 그따위는 생각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맏사위는 실망하여 가버렸다.

또 한사람은 그의 사촌형이였는데 장식공사의 손지배인이였다.

그 역시 건설되는 상업도시건물들의 장식을 독점하여 리득을 얻으려는 심산이 있었다.

손지배인은 사촌동생에게 어떻게 해야 건설에 뚫고 들어갈수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내서 호림의 집을 번듯하게 일신시켜주겠노라고 덧붙였다.

왕로인은 딱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건설이 진행될수록 호림에 대한 풍언은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그러나 그는 듣지 못한듯 의연히 일에만 몰두하였다.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만은 여전히 달라진것이 없었다.

후에 돈이 생기면 청하기로 마음먹은 그였다.

공사의 첫 시작은 집들을 철거시키고 공사장을 깨끗이 정리하는것이였다.

이 일은 백여호나 되는 가정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번잡한 사업이였다.

목이 쉬도록 선동하고 신발창이 닳도록 뛰어다녔으며 밤낮으로 사람들을 만나군 했다.

이런저런 비난도 참았고 지어 욕지거리도 들어야 했다.

이 모든것을 묵새기려고 호림은 웃으며 지냈다.

그러나 못가계방주인의 말은 끝내 그의 마음속 아픔을 헤집어놓았고 극도로 참기 어렵게 하였다.

못가계방은 그곳에서 몇대를 거쳐서 살아오고있었다.

철거하라고 해설을 하니 가게방주인은 시정부가 자기들에게 땅값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들이대는것이였다.

호림은 거듭 그에게 시정부를 리해해야 하며 건설을 지지해나서야 한다는것 그리고 지나친 요구는 만족하게 들어줄수 없다고 말했다.

상대방은 이만저만 노하지 않아 호림의 코끝에 샅대질을 해가며 야단을 쳤다.

《쓰는것은 나라의 돈이고 당신네 호가네 돈주머니에서 꺼낸 돈은 한푼도 없으면서도 무슨 큰소리치는거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우. 그러니 국장도 못되고 한평생 부국장이나 해먹지!》

그때 그는 어색하게 웃음지으며 여느 사람 같으면 참기 힘들었을 모욕을 참아냈다.

그후 그의 마음은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간부할 생각도 없었으며 부국장이라는 직위도 생각지도 않게 말아안게 된것이였다.

호림은 늘 스스로 (밥을 먹자면 무슨 일이든 해야하고 일을 하면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군 하였다.

여기에 무엇이 옳지 못하단 말인가!

사실 호림이가 간부로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나 호림은 상급조직에서 자기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티끌만치도 의심해본적이 없었다.

자기의 량심에 부끄러운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없는데 어찌 나를 의심할수 있으랴!

이러한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말없이 오직 진심을 바쳐 사업에 몰두해왔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고 예나 다름없이 한직무에서 사업을 계속해온 호림이었다.

지금 그를 괴롭힌 못가게방주인의 말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안해는 그의 심정을 알고 위로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바탕 치청구를 늘어놓았다.

《당신은 쓰다남은 초췌다리에요! 이제 우에서도 당신을 소홀히 보는것 같은데 왜 기를 쓰며 일을 하는거예요? 내 말대로 그 일에서 손을 떼고말라구요. 마지막엔 나쁜 놈이라는 말 듣지 말구요.》

그러나 호림은 일언반구없이 일에 전념했다.

불과 백여일동안에 건설장부지는 기적적으로 정리되었고 설명절을 맞이했다.

설명절이라면 응당 며칠동안 휴식할수도 있었으나 그는 음력 정월 초하루를 쇠고서는 기사들을 데리고 동분서주하며 드바쁘게 뛰어다녔다.

그는 집일도 있고 새장도 생각지 않았으며 오직 도시설계와 도안구상으로만 머리를 팍 채웠다.

그가 분초의 틈도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있던 어느날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집이 도착맞혔어요. 빨리 오시라요.》

호림은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갔다.

안해는 울상이 되어 간밤에 자단나무함이 도착맞혔다고 하면서 슬퍼하였다.

안해의 말을 들어보니 그날 안해는 아들네 집에 갔다가 거기서 저녁밥을 먹고 잠을 잤는데 빈집에 뛰어들어 도적은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곧장 옷장에서 그 나무함을 꺼내간것이였다.

사건현장을 두루 살펴보고난 공안원들은 집안일을 잘 아는 놈이 가져갔을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자단나무함의 분실이 호림에게 어찌나 큰 충격을 주었던지 그는 하루종일 멍청히 있을뿐이였다.

그의 친구들이 슬며시 물어보곤 했다.

《돈을 얼마나 잃어빠렸나?》

호림은 한마디 말도 없이 머리를 저을뿐이였다.

사람들은 제나름대로 말 못하는 그의 아픔을 지레짐작하였다.

그가 푹푹히 말하려 하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더 의심하였다.

조지배인은 호림이가 나무함을 잃고 상심해마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 좋은 기회라고 속구구를 하였다.

그는 급히 박달나무를 비싸게 사들여서는 정성들여 목함을 만들어가지고 흥겨운 마음으로 호림을 찾아왔다.

호림은 그의 속심을 알아차리고 조지배인이 입을 열기도 전에 웃으면서 거절했다.

《내가 생각하는것은 함이 아니라 그안에 있던 물건이요.》

조지배인은 실망을 느끼며 돌아가고말았다.

그 소문은 빨리도 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소식통》 왕로인에게 그 자단나무함속에 얼마어치의 돈이 있었는가고 물었다.

《돈을 얼마나 잃었는가? 자네같으면 그 물음에 대답하겠나? 이제 법률위원회에서 돈의 출처를 조사하면 어찌겠나?》 이렇게 말하는 왕로인은 우정모르쇠를 하는것 같았다.

한주일이 지나서 공안국에서 도적을 잡았다고 알려왔다.

그자에게서 아주 많은 물품들을 회수했는데 그속에는 자단나무함도 있으니 호림이가 시범정 강당에 와서 도착맞혔던 나무함을 찾아가라는것이였다.

호림은 그지없이 흥분되였다.

왕로인도 흥분되어 자못 예언자처럼 말했다.

《더 재미난 일은 이제부터라네.》

법정강당안은 립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

모두들 호림의 나무함을 보려고 모여든것이다.

저속에는 도대체 어떤 보물이 있을가?

이미전에 사람들은 어느 간부네 집을 턴 죄로 붙잡힌 도적의 자백을 통해 거액의 탐오죄물이 폭로되였던 사실을 잘 알고있었다.

오늘도 역시 이런 추문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주석단앞에는 책상이 길게 놓여있었다.

그우에는 도적에게서 압수한 여러가지 물건들이 주련이 펼쳐져있었다.

금가락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지어 금덩이 등 각종 치레거리들이 있었고 인민화폐, 딸라, 엔 저금통장과 수많은 그림, 도자기, 족자 등 골동품들도 있었다.

사람들의 눈길은 이런 물건들에 잠깐씩 머물렀다가는 모두 자단나무함에 모아졌다.

사람마다 이 목함을 화제로 하여 자기들대로의 생각들을 소곤거리였다.

옛날에 정화라는 사람이 유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말레이시아를 지나게 되였었다고 한다.

풍랑과 맞서려고 정화는 몹시 무거운 나무들을 사서 배밑창에 깔아놓았는데 귀국하자 인차 이 나무들을 조정에 바쳤다고 한다.

목공들이 왕족들의 가구를 만들면서 보니 이 나무의 무늬가 아름답고 재료가 굳기 이룰데 없어 톱

으로 켜기 여간만 애먹지 않았다고 한다.

나무의 색깔이 자색이고 박달나무향기를 풍긴다고 하여 목공들은 이 나무에 《자단나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단나무는 너무나도 더디게 자라 손가락굵기만한 나무모가 채목감으로 되기까지는 약 2백년이 걸린다고 한다.

나무속은 비었는데 겉층에서 1센치미터정도의 깊이까지는 안의 색과 달라서 좁은 겉층만을 쓸수 있었다.

이것으로 하여 자단나무값은 대단히 비싼것이다.

호림의 나무함은 짙은 자색이 드러나있어 력사가 참으로 오랜것임을 보여주는 세상에 보기 드문 진귀한 보물이였다.

반환사업이 시작되였다.

집행자는 순서대로 호림을 지명했다.

그러나 앞에 나선 사람은 호림의 안해였다.

로부인은 말하기를 요즘 남편은 도시건설일로 하여 동분서주하고 밤을 꼬박 새우다나니 어제밤 심장발작이 일어나 병원에 실려갔다는것이였다.

강당안은 한동안 수군거리는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집행자의 물음에 국안의 간부들은 그 녀성이 호림의 안해가 옳음을 확인했고 나무함을 그에게 반환하는데 동의했다.

집행자는 공식적인 절차대로 녀인의 신분증을 검사하고나서 물었다.

《이것이 호림동지의 물건이 옳습니까?》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손을 내밀어 함을 집어들자 집행자는 말했다.

《부인은 함을 열고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확인해 주십시오.》

로부인은 뚜껑이 닫혀져있는 함을 보고 또 보더니 그안에 든 물건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당안은 여전히 정숙했으며 모든 눈길들이 로부인의 얼굴과 억양에 집중되어 그의 표정변화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었다.

그 누군가 소곤거리였다.

《호국장은 앓지 않다가 왜 부디부디 이런 때 앓을가요? 여기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것 같애요.》

이때 호림의 안해가 입을 열었다.

《이 나무함은 열쇠가 없이 사개가 맞물리게 된것

입니다. 그러니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나도 하루종일 만져서야 열수 있었수다. 지금 이 함은 원래상태 그대로이니 열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대로 부인은 꼭 직접 열어보이고 무엇이 없어졌는가를 여기에 등록해야 합니다.》

로부인은 웃으며 더듬더듬 말했다.

《도적놈이 욕심을 낸거야 이 나무함이지 그안의 물건은 아닐겁니다.》

그러나 집행자의 요구는 강경했다.

강당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했고 로부인과 자단나무함을 지켜보았다.

함을 열려고 하지 않을수록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커졌고 함속의 보물이 과연 무엇인가를 꼭 보고 싶은 욕망이 더 커졌다.

할수 없다는듯이 로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이속에 보물이 있다고는 생각지 말라구요.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그는 나무함을 이리저리 어루만지더니 마침내 함을 열었다.

로부인의 손에 조심히 들려나와 주르륵 펼쳐지는 것은 한쪽의 서예작자였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씌여져있었다.

《분골쇄신훈불과

지류청백재인간》

(부서져 가루됨을 두려워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세상에 남네)

시에 대해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이 시가 석회석을 두고 읊은 시임을 알수 있었다.

(석회석을 가루내어 만든 회가루는 물에 풀려 없어져도 회고 깨끗한 모습으로 남는다는 뜻)

부인은 말했다.

《호찌가문의 조상들은 저의 남편에게 금은보화를 재산으로 남겨놓은것이 아니라 이 글작자를 전해 주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늘 자기에게는 이것이 족자로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음의 보물로 지녀왔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당안은 숨소리마저 죽은듯 정적이 깃들었다.

그러나 인차 우렁찬 박수가 폭발하였다.

로부인은 그 무엇인가 깨달은듯 족자를 쥐고 이리저리 살펴느라고 강당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

## 손에서 놓고싶지 않은 《영근 이삭》

손에서 쉬이 놓을수 없고 보고 또 보게 되는 조선문학 주체93(2004)년 1호에 실린 단편소설 《영근이삭》(변창률작)을 읽고 커다란 감동에 휩싸여,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영근 이삭!

총알처럼 또글또글 여문 알찬 알들이 무겁게 안겨와 손에서 놓을수 없는 영근 이삭, 이러한 영근이삭을 가꾸고 거두어들이는것이 우리 농장원들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삭은 그저 바란다고 하여 절로 무르익는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가는 우리 농장원들모두가 알차고 영글게 일해갈때만이 열매맺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단편소설 《영근 이삭》의 주인공 홍화숙이 바로 그런 알차고 영근 《이삭》인것입니다.

언제나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자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간지게 할뿐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일해나가기도록 대바르게 요구하는 홍화숙의 성격을 벼모판에서의 오리사건, 모내기후 로력일평가장면, 강냉이무지사건, 작업반회의장면 등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에는 홍화숙이처럼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라살림살이를 제집살림처럼 알뜰하고 간지게 해나가기도록 충고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대바른 인간들이 필요한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편견으로 《말썽군》, 《타산쟁이》라는 뒤소리를 들으면서도 영근이삭을 위해 자기의 진심을 바쳐가는 주인공의 정신세계에 정말 감동되게 됩니다.

화려한 문장이나 미묘한 세부는 없어도 구수한 흙냄새, 난알향기가 풍기여 사람들을 절로 작품의 세계에로 이끌려들게 하는 《영근 이삭》.

작품은 올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자기의 본분을 다시금 깨우쳐주며 고무해주고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작품을 쓴 작가선생님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조선문학》편집부에서 앞으로도 이 작품처럼 《영근》작품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천시 쌍룡협동농장

석준식